

가족과 커뮤니티

Family and Community



2022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과 커뮤니티

목 차

기획특집 | 고전문학 속 가족 주체의 형상

윤정안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진>의 월선과 월생	5
한양하 구비 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37
성민경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73
이재숙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111

일반논문

신호식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139
박건우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165
문창배 · 최영진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201

서평

윤수진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221
----------------------------------	-----

▣ 발간 및 투고 규정(제출 양식)	228
▣ 논문 심사 규정	232
▣ 연구 윤리 규정	236
▣ 임원 명단	241

계모형소설의 ‘친밀’한 이복남매 -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

윤정안*

— 목차 —

1. ‘합성’과 ‘차이’로 직조된 계모형소설 <황월선전>
2. 새로운 이복남매 관계의 양상과 변화된 서사
3. ‘친밀’한 이복남매 서사의 의미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에 주목하여 <황월선전>을 살펴본 것이다. <황월선전>은 계모형소설의 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설들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계모형소설과는 달리 이복남매의 사이를 친밀하게 구성하여 새롭게 작품을 만들었다.

조선시대에는 후처의 자녀는 전처의 자녀에 비해 차별을 받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장화홍련전>의 장화와 장쇠처럼 이복남매는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황월선전>의 월선과 월생은 친밀하게 묘사된다. 월생은 어려움에 처한 이복누나 월선을 도우려 하고, 부정하다는 누명을 쓴 이복누나 월선이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황월선전>에는 원귀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숙향전>의 숙향처럼 집에서 유리된 여성의 고난과 극복이 그

*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6 『가족과 커뮤니티』 6집

려진다. 월생은 집에서 축출된 월선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약없는 길을 떠나는데, 그 과정에서 월선의 남편 장위를 만남으로써 월선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월생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부 이본에서는 계모가 천수를 누리는 것으로 설정된다.

월생이 이복누나를 아끼는 모습은 부계적 혈통에 의한 것으로,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 황공의 출생과 행동, 그리고 황공이 부재했을 때 가족 비극이 발생하는 등의 설정은 가부장인 황공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이 역시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월선이 죽지 않아 원귀가 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는 이를 현실성의 강화로 해석하지만, 원귀만 등장하지 않았을 뿐 비현실적인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월선이 죽지 않는 서사, 계모가 죽지 않는 서사는 아무도 죽지 않는 화해의 서사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계모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계모형소설처럼 <황월선전> 역시 가족 갈등의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

주제어: <황월선전>, 계모형소설, 이복남매, 친밀함, 서사의 변화, 부계적 혈통, 가부장적 가족 질서

1. ‘합성’과 ‘차이’로 직조된 계모형소설 <황월선전>

고전소설은 주로 대중들의 인기를 얻어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기 있는 작품을 모방하기도 하고, 그 내용을 약간 바꾸어서 유통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이러한 방식의 작품 생산이 저작권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이 유행하던 시기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였기에 이러한 방식의 작품 생산과 유통이 흔하게 이루어졌다. 이 독특한 소설 창작과 향유의 방식은 ‘이

본'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의 작품을 재생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독자들에게 식상함을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다른 소설의 생산 방식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한 방식이 기존의 인기 있는 작품들의 내용을 합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작품에는 없는 새로운 설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움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인기를 끌고자 하는 전략이 구사되었다.

<황월선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황월선전>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모형소설의 후대적 유형으로 거론되었다.¹⁾ <황월선전>은 대개 19세기 후반 혹은 20세기 초에 창작된 것으로 보이는데²⁾, 이 시기에는 이미 <장화홍련전>을 비롯하여 <김인향전>, <정을선전> 등 계모형소설로 분류되는 여러 소설은 물론 많은 고전소설들이 널리 유행하고 유통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황월선전>을 읽다 보면 다양한 고전소설의 흔적들이 감지된다. 계모형소설인 <장화홍련전>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은 작품의 기본 구성이 전처의 딸과 계모의 대립이라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다음

1) <황월선전>은 가정소설이나 계모형소설의 후대적 면모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2) 정상진은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형성된 작품이 아닌가 추정”(정상진, 「계모형 고전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우암어문논집』 9,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213면.)하고 있고, 김민조는 <황월선전>의 출현 시기를 “19세기 후반경”(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42면.)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민조는 “필사본 37종, 1928년 덕흥서림에서 발간된 활자본 1종 등, 총 38종”(위의 글, 218면.)의 이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의 지명이 언급된 경우가 있는 것을 보아 광범위한 지역에서 향유”(위의 글, 223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황월선전>은 꽤 인기를 얻었던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의 장면은 <황월선전>이 <장화홍련전>을 비롯한 계모형소설의 영향 아래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엇지하면 몸이 부기 나고 쏘 낫티 지미 씨이고 슈티한 사람 갖치 할고 할미 답왈 그난 어렵지 안이하오리다. 연연 물집 우의 돌며 물 썩을 어더다가 잘 장만하여 먹으면 몸이 부기 나고 쏘 지미 씨이고 슈티한 사람 갖삽나이다. 하고 쏘 옛자오며 왈 부인게옵소 소여탈 이리키 익홀하옵시니 엇지 범연하리요. 한티 박씨 드고 모한 씨로다 하고 쏘 엇지 하면 낙티한 모양 갖치 할고 무여 왈 간난 강칭이를 썩지을 벗기고 이러하면 뉘라서 알이요3)

위의 인용문은 <황월선전>의 계모 박씨가 월선이 부정한 여성으로 꾸미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전형적인 계모형소설의 문법으로 두 편의 계모형소설이 떠오른다. <장화홍련전>에서 갓 태어난 쥐의 껍질을 벗긴 것에 피를 칠하여 장화가 낙태한 것으로 꾸민 계모의 모습은 <황월선전>에서는 갓 태어난 강아지로 변주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이본에서 “축출된 월선의 구원자로 장화홍련이 등장”4)하기도 한다. 이는 <황월선전>이 <장화홍련전>을 의식했다는 점, 그리하여 이 작품의 탄생에 <장화홍련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의 기본 구성은 계모담이며, <장화홍련전>과 같은 계모형소설의 인기를 빌어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 혹은 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불어 <장화홍련전>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향전>의 흔적도 보인다. 계모가 무녀를 불러 전처의 딸을 모해할 꾀를 얻는 것도 그러하고, 전처의 딸에게 특별한 비방을 써서 임신한

3) 김광순 편, <황월선전이라>, 『韓國古小說全集 : 金光淳所藏 筆寫本』 18, 경인문화사, 1993, 176~177면(이하 작품명을 <황월선전>으로 표기하고 면수만 표기함).

4) 김민조, 앞의 글, 238면.

여성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면 역시 <김인향전>을 떠올리게 한다. 즉, <황월선전>에서 계모가 전처의 딸을 모함하는 장면은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의 모해 장면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며, <황월선전>의 출현에 두 작품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이처럼 <황월선전>의 기본적인 서사는 이전에 등장한 계모형소설의 문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만 감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주승에게 소원을 비는 장면은 어렴풋이 <심청전>을 떠올리게 한다. 월선이 집안에서 축출된 이후 장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다가 혼인 이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박씨전>을 생각나게 한다.⁵⁾ 월선을 찾아다니던 월생이 몸이 아파 주점에 누워 있다가 월선의 남편 장위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는 장면에서는 <주생전>의 마지막 장면이 겹친다. <콩쥐팍쥐전>에서처럼 <황월선전>에서도 계모가 자신의 자식과 전처의 딸에게 각기 다른 조건으로 경쟁시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집에서 유리된 월선이 죽은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은 <어룡전>의 흔적이 보이기도 한다. <사씨남정기>에서 유한림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교씨의 수족 노릇을 하던 설매라는 시비로 인한 것인데, <황월선전>에서 계모의 사주를 받아 못된 짓을 하던 윤행이 모든 진실을 글로 적어 두고 달아남으로써 황공은 사건의 실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황월선전>이 <사씨남정기>에서도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물론 이러한 다른 작품과의 단편적인 유사성만으로 위에 언급된 작품들이 <황월선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⁶⁾ 그러나 이러한 유사한 모티프들의 발견은 <황월선전>이 다

-
- 5) 박인희 역시 “여성 인물이 이처럼 혼인한 이후에 변신하고 있는 모습은 여성영웅소설인 <박씨전>으로부터 확인해 볼 수 있다.”(박인희, 「계모형 가정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 연구 - <황월선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65면.)라고 지적한 바 있다.
- 6) <콩쥐팍쥐전>의 경우 <황월선전>과 출현 시기의 선후 관계가 다르기도 하다. 1919년 대창서원에서 소설의 형태를 띠고 책으로 발간된 첫 번째 사례이다(권

른 여러 작품들과의 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만들어졌으리라는 추측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화홍련전> 류의 계모형소설의 핵심 갈등이 계모와 전처 딸과의 갈등이라면 이 갈등의 해소는 전처의 딸이 원귀가 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황월선전>에서 월선은 죽지 않으므로 원귀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성권은 후대의 가정소설들은“‘군담’ 및 남녀 결연에 따르는 ‘애정담’과 합성적 성격을 띠고 나타나게 되었고 독자들은 한 권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⁷⁾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장화홍련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애정담은 그보다 후대작인 <김인향전>에서 보이고, <정을선전>에서는 여주인공 추연이 계모로 인해 고통받는 장면에 이어서 처첩의 갈등을 겪는 서사가 합성되어 있다. <황월선전> 역시 마찬가지로 월선이 집에서 나오게 된 이후 겪는 고난은 계모형소설의 문법이 아니라 다른 작품과의 합성을 통해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집에서 유리된 이후 겪는 월선의 고난은 <숙향전>에서 숙향이 당하던 고난과 유사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황월선전>을 계모형소설과 영웅소설의 결합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⁸⁾ 그중에서도 여성 인물이

순궁, 「<콩쥐팍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254면). 이는 <황월선전>의 탄생보다 늦은 것이다. 그러나 콩쥐팍쥐 이야기의 경우에는 소설보다는 민담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미 민담으로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오윤선, 「콩쥐 팍쥐 이야기에 대한 고찰 - 당대 연구자들의 국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2, 민족어문학회, 2000, 31~34면.)에서 널리 퍼진 콩쥐팍쥐 이야기가 <황월선전>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황월선전>이 <황화일엽> 설화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바(이윤경, 「계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62면.), <황월선전>의 탄생에 설화와의 관련성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

7) 이성권, 앞의 글, 77~78면. 박인희는 <황월선전>이 대중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대에 인기를 끌었던 애정소설, 영웅소설 등에서 흥미로운 요소들을 합성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박인희, 앞의 글 79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숙향전>과의 관련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황월선전>에는 월선은 축출된 이후 막막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살하려고 했으나 초월적 존재가 이를 막고 도와준다는 점, 이후 월선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점, 그리고 집에서 축출된 월선이 장진사의 집에 의탁하게 된다는 점에서 <황월선전>의 월선은 <숙향전>의 숙향의 모습과 유사하다. 또한 혼인을 통해 월선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뀐다는 점에서도 <숙향전>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처럼 여성의 수난과 극복이라는 점에서 <황월선전>은 영웅소설 보다는 여성수난담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황월선전>은 <장화홍련전> 등의 계모형소설과 <숙향전> 등의 여성수난담이 합성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황월선전>은 <장화홍련전>과 <숙향전>이라는 기존의 인기 있는 작품들의 익숙한 서사에 의지하여 상업적 이익을 거두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월선전>의 생산자는 이러한 익숙함만으로는 인기를 얻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기존의 계모형소설과는 다른 설정이 보이는데, 그것은 이복남매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장화홍련전>에서 장쇠는 직접 이복누나인 장화를 연못으로 데리고 가 죽였다. 그는 계모의 공모자였다. 그런데 <황월선전>에서 이복남동생인 월생은 <장화홍련전>의 장쇠와 달리 계모의 행동을 비난하고 이복누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우려는 존재로 등장한다. 장쇠처럼 이복누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은 성공한다. 그래서 월선은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며, 원귀가 아닌 장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계모형소설과 매우 다른 면모라 할 수 있으며, <황월선전>이 다른 계모형소설과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기존의 연구들 역시 이러한 월생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월생의 인물됨과 행위는 이 작품의 갈등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⁸⁾라거나 “<황

8) 박인희, 앞의 글, 68면; 김재용, 앞의 글, 158면; 이운경, 앞의 글, 68면.

월선전>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주변 인물은 후처 자식인 월생¹⁰⁾이라는 지적, “월생은 가족갈등 사이에서 가장 번뇌하는 인물일 수 있는 것”¹¹⁾ 등은 모두 일반적인 계모형소설에서 볼 수 없는 후처의 자식인 월생의 독특한 면모에 주목한 언급이다. 또한 “<황월선전>의 계모소생 월생은 월선을 옹호하여 생명을 구하고, 생모 박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인형 인물로 설정”¹²⁾되었다거나 “선인으로서의 월생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어 있다”¹³⁾는 등의 지적 역시 다른 작품에서는 찾기 어려운 계모의 자식이 보여주는 특이한 모습에 주목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은 계모형소설이라는 유형적 구조에 주목하다 보니 월선과 계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복남매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월생은 월선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모 박씨는 월선을 죽이기 위해 갖은 흉계를 내고 있다. 황공을 경유하여 이들은 대결을 벌이고 있다. 다른 계모형소설에서라면 한편이어야 할 이들은 적대적이다. 이것이 <황월선전>이 다른 계모형소설과 다른 점이며,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이복남매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다른 계모형소설과 어떻게 다르며, 이것이 만들어내는 서사의 변화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복남매의 친밀함은 <황월선전>뿐 아니라 <김취경전>이나 <어룡전> 등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취경전>과 <어룡전>의 이복남매는 <황월선전>만큼 서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김취경전>에서 취경과 후처의 자식 설애는 우호적인 관계로 등장하지만, 설애는 전처의 또 다른 자녀인 선애와 함께 움직이면서 주인공

9) 정상진, 앞의 글, 228면.

10) 박인희, 앞의 글, 73면.

11) 이윤경, 앞의 글, 129면.

12) 김민조, 앞의 글, 226면.

13) 김재용, 앞의 글, 185면.

인 취경의 서사와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어룡전>의 경우, 계모가 죽은 이후 계모의 아들인 재룡을 데려다 키우는 정도로 등장할 뿐이다. 더구나 <김취경전>과 <어룡전>의 주인공은 취경과 어룡이라는 남성으로 뛰어난 공적을 이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이것이 다시 가문의 재건으로 이어지는 서사로 진행되는데, 이는 <황월선전>의 주인공 월선이 겪는 고난과 혼인, 행복의 서사와는 차이가 있다. 월선은 여성이므로 사회적인 성취를 통해 가족에 복귀하기 어려운데, 이는 남편 장위와 이복남동생 월생에 의해 이뤄지니, <황월선전>에 나타나는 이복남매의 관계는 <김취경전>과 <어룡전>의 것에 비해 작품의 서사를 구성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황월선전>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이복남매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 글에서 <황월선전>을 이복남매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¹⁴⁾

2. 새로운 이복남매 관계의 양상과 변화된 서사

계모가 불만을 드러내고 월선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때는 황공이 사신으로 중국에 파견되면서 재산을 분급한 이후이다. 황공은 자신이 사신으로 가게 되면 돌아오는 데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월선과 월생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다. 둘이 똑같이 나눠주고 남은 것은 계모 박씨에게 주었는데,¹⁵⁾ 박씨는 월선과 월생에

14) 이 글에서는 김광순이 소장한 40장본 <황월선전이라>를 대본으로 삼는다. <황월선전>은 결말부를 제외하면 이본간의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이복남매간의 사이를 살피는 데는 어떤 이본을 선택해도 크게 관계는 없다. 다만, 후술하겠지만 계모의 처결 문제는 <황월선전>의 독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므로, 기존의 계모형소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계모의 처결에 주목하여 계모에 대한 적의는 드러내면서도 벌을 받지 않는 이본을 선택하였다.

15) “나난 왕명을 밧자와 말이다국으로 가니 도라오기 슈연될 거시니 부인은 자여 등 데리고 농사를 심씨고 노복 등과 혼 가지로 중법을 부인이 주장후여 지너옵

게 재산이 똑같이 돌아간 것에 불만을 품고 이때부터 월선을 꺾박하기 시작한다.

재산분배로 인한 갈등은 <장화홍련전>에서 이미 목격한 바 있다. <장화홍련전>의 계모는 장화가 시집을 갈 때 전처의 딸들이 가져갈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돌리기 위해 장화를 해칠 음모를 꾸민다.¹⁶⁾ <황월선전>에서 역시 계모 박씨는 자신의 아들 월생을 위해 가부장 황공이 없는 틈을 타서 월선을 꺾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부정한 여성이라는 누명을 씌워 집으로 돌아온 황공의 손을 빌려 죽일 흉계를 꾸민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는 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자녀의 지위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상진은 “후실은 정실과 다름없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후실의 소생은 엄연한 적자로서 전실자녀와 대등한 지위가 보장¹⁷⁾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작품을 해석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문벌의식이 발달하면서 같은 형제 사이에도 외가에 따라 지체를 차별하는 경향¹⁸⁾이 있었다. 심지어 이복형제끼리는 돌림자도 다르게 쓰기도 했는데¹⁹⁾, 이는 전

소서 전답 문세를 너여녹코 왈 너 이지리 도라오기 어려울지라 쏘 사라올지라도 분점하고 부러 농사를 심씨 너니 무양하옵소서 하고 월선을 빅 말 낙니 두고 월성도 빅 말 낙을 주고 그 나문 전답은 다 부인을 톱기고”(〈황월선전〉, 172면.)

16) 정지영, 「<장화홍련전> -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438면 참조. 전처의 딸들이 죽게 되면 후처의 자식들은 더 많은 재산을 갖게 된다.

17) 정상진, 앞의 글, 225면.

18)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 케케묵은 고문서 한 장으로 추적하는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2013, 290면.

19) 한기범은 김장생의 가계에 대하여 “이복형제끼리의 돌림자는 ‘O孫’으로 통일을 기하면서도 이복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달리 이름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로서는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경향이었고, 오히려 사계의 아홉 아들들의 경우가 매우 이색적인 것이었다.”(한기범, 「사계 김장생의 가정관과 아홉 아들」, 『한국사상과 문화』 80,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5, 125면.)라고 지적하였다.

처의 자녀와 후처의 자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고, 이 구별은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 남성의 출세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취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²⁰⁾ 이는 재혼으로 들어간 여성은 물론 그 자녀까지 차별받는 당대의 상황 때문이다.²¹⁾

이는 재산분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경국대전』 형전의 개인노비(私賤)에 대한 규정을 보면 모든 자녀는 균분상속을 하되, 가계를 계승하는 아들은 1/5을 더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²²⁾ 그러나 후처의 자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의 상속법에 따랐을 때 월생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가계를 계승하므로 1/9을 받게 된다.²³⁾ 더불어 조선 전기에는 “자녀 없이 죽은 부인의 재산은 본족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승중자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경향이 강화”²⁴⁾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월선이 없었을 때 월생은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즉, <황월선전>은 <장화홍련전>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기 위해 전처의 딸을 죽이려는 계모의 악독함으로 벌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박씨의 태도에 대하여 월생이 전혀 동조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계모의 소생 장쇠는 계모의 모해

20) 전경목은 송정수의 예를 통해 조선시대에 재취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정을 서술하고 있다. 이때의 전제는 상대 남성이 “급제한 관료”라는 점이다. 그러한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굳이 자신의 딸을 누군가의 후처로 보내려 하지 않았다(전경목, 앞의 글, 283면 참조). 정지영은 조선시대에 후처로 들어가는 여성은 “남성처럼 재혼이거나, 상대 남성보다 낮은 신분이거나, 몰락한 가문의 성원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경우”(정지영, 앞의 글, 429면.)로 지적하고 있다.

21) 심지어 삼취하여 낳은 자녀는 “양반의 자치 모임인 향안에 등재되지 못하기도 했다.”(전경목, 앞의 글, 286면.)라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세 번째 부인이라면 양반 행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윤국일 편, 『경국대전』, 여강출판사, 1991,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73&tabNodId=NODE04241654#none>

23) 위의 글.

24) 정지영, 앞의 글, 438면.

에 적극 가담하여 이복누나 장화를 연못에 밀어 넣어 죽였다. 후처의 아들로써 장쇠는 계모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차별을 당하였을 것이고, 누나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누나들, 그 누나들이 사라지면 얻게 될 재산, 이런 조건들 아래서 장쇠는 자신의 어머니에 동조하여 어머니의 모해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월생 역시 장쇠와 다를 바 없는 조건에 처해 있었다. 박씨의 욕망처럼 그는 집안의 승중자로서 월선이 죽으면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장쇠와 달리 월생은 자신의 이복누나 월선을 보호하려 한다.

계모 박씨의 흥계로 월선은 농사를 망쳤다. 그 모습을 본 월생은 주저 없이 “그 누우 실농하물 보고 엇지 할고 하면 노복으로 하여곰 황조삼삼 석을 보”²⁵⁾낸다. 자신의 생모에게 동조하지 않고 위기에 처한 이복누나를 돕는 월생은 다른 계모형소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다.

이런 월생의 모습은 유교적인 윤리에 의해 올바른 것을 좇으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누나를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일이다. <장화홍련전>의 ‘어리석은’ 장쇠와는 달리 월생의 품성이 올바르기에 어려운 누나를 돕고, 생모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월생의 행동은 유교적인 윤리를 지키려는 측면으로만 보기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박씨 월성을 제 외가의 보덕고 이런 흥계를 하니 월성은 전후 이를 모를 차 전편의 듯고 천방지방 쫓차오며 우리 왈 이거시 외연 일고 박씨을 원망하니 박씨 월성을 디척하여 왈 나무 자식 헝실 엇찌한 줄 지난 엇지 자시 아너냐 너난 미거한 마음믹 에미 원망 말나²⁶⁾

월생이 그 거동을 보고 기가 막혀 발을 구리며 가삼을 쭈다리며 너가

25) <황월선전>, 175면.

26) <황월선전>, 186면.

집의 이셔시면 이런 이리 이시이요 누운임은 너무 실혀 마옵소서 누운
임 죽사오면 나도 함께 죽을 써시니 잠관 진정하옵소서²⁷⁾

첫 번째 인용문은 계모 박씨와 월생의 사이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씨는 월생이 있으면 월선을 해칠 일을 꾸밀 수 없음을 알고 월생을 외가에 보낸 후 월선을 해할 일을 꾸렸다. 박씨는 월생이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음을 알았던 것이다. 월생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는 이미 월선이 부정한 여성이라는 누명을 쓴 다음이었다. 박씨는 여러 증거를 꾸며 월선이 반가의 처녀임에도 사사로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해 낙태를 했다고 모함했는데, 이를 안 월생은 집안의 수치인 이복누나에 대한 분노 대신 이복누나 앞에 닥칠 일에 걱정이 되어 울면서 제대로 이복누나를 단속하지 못한 박씨를 원망할 뿐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월선이 낙태를 했다는 말을 들은 황공이 대노하여 월선을 죽이려 하자 월생이 월선을 찾아가 하는 말이다. 월생은 월선에게 누나가 죽으면 자신 역시 따라 죽겠다고 한다. 이는 황공이 이복누나 월선을 죽이는 것을 말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월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월생은 외가에 가 있었기에 월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월선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확신할 수가 없다. 하지만 월생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월선의 편을 들고 있다.

월선이 저질렀다는 행동은 반가의 여성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여러 증거로 인해 월선은 쉽게 누명을 벗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승상의 지위에 있는 황공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황공은 친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박씨에게 사정하면서 곧 월선을 죽이겠다고 할 뿐이다.²⁸⁾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박씨가 집 밖으로 나간다면

27) <황월선전>, 194면.

소문이 금방 돌게 될 터이고, 그렇다면 황공의 가문은 큰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월선을 죽여 박씨를 달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월생은 가문의 수치인 월선을 전혀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복누나를 감싸기에 바쁘다. 월생은 이복누나인 월선이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믿지도 않지만, 설령 그랬다고 해도 우선은 그것을 감추고 월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월생은 누나의 편이냐, 어머니의 편이냐의 선택에서 있다. 전자는 같은 부계의 혈통인 누나와의 정을 중시하는 것이고, 후자는 어머니를 존중하면서 가부장의 승계자로서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이익을 취하는 선택이다. 다른 계모형소설에서 후처의 자식은 당연하다는 듯이 후자를 선택하였다. 장쇠는 비록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탐욕스럽게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장화를 연못에 빠뜨린다. 그러나 월생은 자신에게 여러 면에서 생길 이익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복누나를 지키려고 한다.

앞서 살폈듯이 이복남매는 차별적인 대우 때문에 사이가 좋기 어렵다. 또한 여기에는 재산분배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바, 계모의 흥계는 곧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인 월생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흥계가 성공한다면 월선은 죽고 월선 몫으로 배정되었던 많은 재산은 월생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월생은 그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음에도 끝까지 누나의 편을 든다. 심지어 자신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므로 월선이 부정하지 않다는 확신도 없었지만, 월생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는 같은 아버지를 둔 누나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복누나를 옹호한다는 것은 어머니가 잘못되었

28) “잇디 박씨 왈 나난 상공 문하의 이실 사람이 안이라 상공은 월선을 다리고 일후 닉니 무양하읍소서 하며 시비를 다리고 나선이 상상 왈 부인 말씀은 닉 이미 알건이와 닉 여식 불칙하여 그런 죄을 지여시니 나도 무안한지라 이제 부인 가시면 마리 전파할 거시니 엇지 하리요 부인은 월성을 보와 차무소서 월선은 오날밤의 처치할 거시니 아직 차무소서”(〈황월선전〉, 194~195면.)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유교적인 윤리로 봤을 때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월생은 이복누나 월선의 편을 들 뿐이다.

이러한 월생의 노력 덕분에 월선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월생은 월선을 죽이려는 황공을 설득하여 월선을 죽이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월선을 놓아주었다.²⁹⁾ 월생은 '부정한' 월선을 살림으로써 그들의 돈독한 사이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월선은 원귀가 되지 않고 집 밖으로 축출되었다. 부정한 여성을 집안에 둘 수 없었으니, 황공과 월생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월선을 집안에서 몰래 내보내는 것뿐이었다. 이에 가족과 유리된 월선에게 닥친 고난과 그것의 극복으로 이어진다.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 때문에 계모형소설의 서사는 유지될 수 없었고, 원귀 서사는 <숙향전>의 여성수난 서사로 대치되었던 것이다.

가정에서 유리된 월선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계기 역시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 때문이다. 월선이 집 밖으로 축출된 이후 월생은 월선을 그리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월선을 찾아 나서겠다고 자원하며, 찾을 기약이 없자 노복들은 모두 보내고 혼자 전국을 헤매고 다닌다.³⁰⁾ 어디로

-
- 29) “월성이 질식하여 울며 달여드려 월선을 덥혀 안고 한 손으로 칼을 붓들고 이걸 하여 왁 이분임은 잠과 노을 참으로서 이런 자실을 보와 누운임을 살여 쥘음소서 엇지 자석으 몸의 칼을 디여 유허를 너리요 누운임 죽사오면 동싱인들 엇지 차옥한 거도를 보리요 아부임은 날을 싱각하와 꺾이지 마시고 오날밤의 우뢰여 혀 소식 엄시 쥐기거나 살이거나 하와 님이 모로기 하옵소서 쏘 남이 못삽거던 간밤의 죽엇싸 하고 선산의 혀장하오면 무사하리다”(〈황월선전〉, 200~201면.) 황공은 가부장으로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월선을 죽이려 한다. 그러나 죽이려는 순간마다 나타난 월생 때문에 황공은 딸의 죽음을 망설인다. 그러자 계모 박씨가 지속적으로 황공에게 압력을 가해 월선의 죽음을 재촉한다. 그럼에도 월선이 살아남았던 것은 끈질긴 월생의 노력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으로서 번민은 했을지언정 가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했던 황공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 와중에 월선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월생의 모습이 강조된다.
- 30) “월성이 노복을 다리고 아모리 촌진들 엇지 알이요 할 일 업서 노복은 다 보리고 혼자 차자가나라”(〈황월선전〉, 214면.)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복누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을 해소하고자 월생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길을 헤맨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연히 월선의 남편 장위를 만나 월선이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결말 역시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로 인해 변화를 보인다. 계모형소설의 계모는 대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황월선전>의 많은 이본들 역시 그러한 결말을 보여준다. 그러나 <황월선전>의 일부 이본에서는 계모가 죽지 않고 천수를 다 누리기도 한다. 계모가 죽는다고 해도 <장화홍련전>에서처럼 국가 권력의 처벌이 아니라 하늘이 천벌을 내려 죽이는 등 다른 계모형소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결말 부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계모의 처리 문제는 당대 독자들이 계모의 처리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³¹⁾

상상이 분하물 이기지 못하여 꺾기 분을 풀고져 십푸되 자식 월싱을 보와 꺾이지 못하고 박씨을 불너 왈 어지 사람이라 하며 제 자식을 그리 독하고 악한 일하고 엇지 살기를 바티리요 진실 자식이 곳 닉 자식이라 엇지 무도흔 횡신을 하고 어지 세상의 용납하리요 쥐기도 죄가 나물 거서로되 차마 월싱을 보와 지기지 못하건이왈 닳틀 들고 어디로 가리요?³²⁾

박시 상좌의 안치고 잔치 삼일 후의 일기가 디미하고 닉성벽역이 천지 진동하더니 공중의서 외여 왈 박씨야 드러라 네가 익미흔 스람을 모함하고 엇지 온전하리요 살기도 오라 스르다 그러나 월싱의 호성으로 황부인이 차마 엇지 흐리요 그럴지라도 네 죄 중한 줄 알고 이시라 흐더라³³⁾

31) 김민조는 <황월선전>의 결말에 나타나는 모티프에 따라서 이본군을 넷으로 나누었다. 이때 이본군을 나누는 주요한 기준은 별주대목과 천벌대목으로, 이 두 모티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구된다(김민조, 앞의 글, 224면 참조).

32) <황월선전>, 213면.

첫 번째 인용문은 시비 운행의 편지를 받고 월선의 혐의가 모두 거짓임을 안 황공이 계모 박씨를 찾아간 장면이다. 황공은 월선에 대한 박씨의 모해는 마땅히 죽어야 할 악행이지만, 월생을 봐서 죽이지 못한다고 했다. 월생이 아니었다면 월선은 이미 죽은 목숨일 테니, 월생은 월선의 생명의 은인이며, 동시에 황공의 은인이기도 하다. 그런 월생의 생모 박씨를 차마 황공은 죽일 수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러 황공의 생일잔치에서 상좌에 앉은 박씨에게 내린 하늘의 경고이다. 계모 박씨의 죄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황공과 마찬가지로 월생으로 인해서 차마 박씨를 죽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에서도 역시 박씨는 월생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모든 이본이 이와 같은 결말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이본에서 계모 박씨는 천벌을 받아 죽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모형소설에서 계모가 죽는다는 서사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황월선전>의 이본들이 계모의 처결에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계모의 처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김취경전> 등 일부 이본에서 계모가 용서를 받을 때는 계모가 잘못을 뉘우치기 때문에 가능한데, <황월선전>의 계모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계모 박씨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면모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뉘우치지도 않는 계모 박씨가 천수를 누리는 이본의 존재는 계모 박씨가 비록 천벌을 받을 만큼의 악행을 저질렀지만, 월선을 살린 월생의 친모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월생은 월선을 살리고, 월선을 찾아다니고, 월선이 다시 가족으로 복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렇게 월생이 쌓은 덕은 계모 박씨에 대한 '효'로 인지되어 박씨가 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이복남매 월선과 월생의 친밀한 관계는 계모의 목숨을 살리는

33) <황월선전>, 228면.

서사로 변화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황월선전>은 가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장화홍련전>의 잔혹한 서사에서 벗어나 아무도 죽지 않는 계모형소설이 될 수 있었다.

이처럼 <장화홍련전> 등 계모형소설의 전형적인 문법에서 벗어난 친밀한 이복남매라는 설정으로 인해 <황월선전>이 월선을 살리는 것으로 만들어 원귀가 아닌 가정에서 유리된 여성의 고난과 극복이라는 서사로 변화시킬 뿐 아니라 월생이 찾을 가망 없는 월선 찾기에 나서는 것, 그리고 월선을 찾는 도중에 장위를 만나 다시 월선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서사를 변화시켰다. 월생은 장쇠처럼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이 아니라 계모형소설의 일반적인 문법과 다른 갈등의 방향을 만드는 주요한 등장인물로 활약한다. 결말에서 계모가 천수를 누리는 일련의 이복을 탄생시키는 것까지, 이 모든 서사의 변화는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의 설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3. ‘친밀’한 이복남매 서사의 의미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는 월생이 부계 혈통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황월선전>이 다른 계모형소설들에 비해 가부장적 가족 윤리의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씨는 월생의 친모이며, 월선에 대한 박씨의 모해는 박씨 자신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월생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월생은 이복누나를 보호하려고만 한다. 월생이 평소 월선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박씨는 월생도 속이는 방법을 택하지만, 박씨가 만들어 둔 가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월생은 월선만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전처와 후처의 자식들은 차별을 당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후처

의 자식들은 전처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혈육으로 대접받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황월선전>에서는 그러한 차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친밀한 이복남매의 모습만을 비춰줄 뿐이다. 이복남동생 월생은 오로지 이복누나 월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록 월선이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도 혈육의 정으로써 차마 이복누나의 죽음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월생은 결국 죽을 뻔한 월선을 살리게 되며, 월선을 찾아 기약 없이 전국을 유랑하다가 우연히 만난 월선의 남편 장위를 만남으로써 다시 월선이 가족에게 돌아오도록 한다.

이런 월생의 존재는 계모의 악행을 더욱 부각시킨다. 계모의 자식인 월생은 이복누나를 도우려 하는데, 계모 단독으로 월선을 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계모형소설의 다른 계모들과 마찬가지로 <황월선전>의 계모 역시 악하다는 편견을 재생산한다. 더구나 계모의 아들은 전처의 딸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계모는 그런 전처의 딸을 죽이려 한다는 점에서 계모와 그 아들의 공동 범죄가 아닌 계모의 단독 범행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전혀 다른 행동은 선명하게 대비되기에 계모의 악행은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다.

월선과 월생, 즉 이복남매가 친밀한 것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골육의 정이 강조되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족 질서를 강조하는 것이다. 유교적 윤리에 의하면 모계보다는 부계 중심으로 혈통이 이어지며, 마땅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면 화목한 남매여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조선의 법과 현실은 이복남매를 차별하는 것이었으니, 후처의 자녀는 차별받는 입장에서 전처의 자녀에게 친밀함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작품이 <장화홍련전>이다. 특히 <장화홍련전>은 실제 사건이 소설화된 것³⁴⁾인 만큼 작품 내의 현실을 바탕으

34) <장화홍련전>의 소설화에 대해서는 윤정안의 논의(윤정안, 「<장화홍련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10~13면.)를 참고할 수 있다. 1656년 칠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1818년 이전에 소설로 만들어졌다. <장화홍련전>은

로 설정된 다양한 설정들은 당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복남매의 설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조선 후기 사회가 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사회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모계의 혈통이 가족 구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황월선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 이복남매가 서로 친밀하게 등장한다. 그렇게 되자 서사는 전처의 자식과 후처의 자식이 대립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보호한다. 이러한 설정은 당대 사회적 현실인 모계에 따른 구분이 아닌 부계가 같다면 이복남매 사이라도 친밀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족 윤리라는 이념과 연관된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 윤리의 강조는 황공에 대한 묘사에서도 감지된다. ‘좌수’에 불과했던 <장화홍련전>이나 <김인향전>의 가부장과 달리 <황월선전>의 가부장 황공은 고귀한 집안의 출신이며,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황공이 조선 팔도의 어스를 제수받고 상이 명을 받자 아 각도의 횡관하여 창곡을 풀어 백성을 진휼하고 각각 분읍을 슬기하고 지닌간이 근 곳마동 명어스라 칭찬하더라³⁵⁾

<황월선전>은 황공의 능력에 대한 서술로 시작한다. 소년등과한 황공은 흥년이 들어 어려운 백성들을 어루만지기 위해 어사로 파견되는데, 위의 인용문은 그 행적을 간략히 기술한 부분이다. 본격적인 서술이 시작되기 전 황공은 ‘명어사’로 그 능력을 선보인다. 이는 좌수에 지나지 않았던 <장화홍련전>이나 <김인향전>과는 다른 설정이다. 이는 황

17세기 중반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이는 당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기에 20세기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향유되었다 할 수 있다. 심지어 1924년 조선인만의 힘으로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장화홍련전>일 만큼 조선 후기에도 큰 인기를 끈 작품이다.

35) <황월선전>, 164면.

공이 그렇게 호락호락 계모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능력이 있는 황공은 계모의 모해를 깨닫지 못하고 월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은 황공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일 텐데, <황월선전>은 이런 '오해'를 피하고 가부장 황공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설정을 해 두고 있다.

계모 박씨는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 두 작품의 계모가 사용하였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월선이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부르게 하고, 갓 태어난 강아지의 껍질을 벗겨 낙태한 증거물로 만든다. 이후 황공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모두 바로 태워버린다.³⁶⁾ 그러므로 황공은 그 증거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진다. 계모의 모해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월생의 호소로 황공이 월선의 처분을 머뭇거릴 때마다 황공을 압박하여 월선을 죽이라고 강요한다.³⁷⁾ 기존의 논의들은 가족갈등의 원인을 황공의 무능을 지목³⁸⁾하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황공이 월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계모의 치밀한 모해와 황공에게 부여된 가부장으로서의 압박 때문이지 황공이 무능해서라고 볼 수는 없다.³⁹⁾

36) “상서 오시면 분명 계모 무함한다 할 거시니 이거실 상서 오시거든 드릴나 두엇 삼켜니 니거실 두워도 썰 디 업다 하고 처미의 싸고 후원으로 드러가 부리 노와 소화하고 나오니”(〈황월선전〉, 192면.)

37) 각주 28) 참조.

38) 기존 논의들은 이러한 계모의 모해에는 황공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아들은 딸보다 상속의 서열상 우위에 있기 때문”(김재용, 앞의 글, 183면.)에 더 많은 재산을 월생에게 주어야 하는데, 균분상속을 했으므로 계모가 불만을 갖게 되었다거나 “당시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가계를 이어갈 아들에게 더 많은 몫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황공은 딸인 전처 자식과 아들인 후처 자식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분배”(박인희, 앞의 글, 33~34면.)한 것이 화가 되었다는 해석, “부당한 분재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조작된 증거들에 속아 딸을 죽이려 했던”(김민조, 앞의 글, 233면.) 것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다.

39) 계모형소설의 가부장들은 부정의 누명을 쓴 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가부장들이 무능해서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윤정

다른 계모형소설의 모해 장면에 비해 계모의 모해 장면을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황공이 어쩔 수 없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황월선전>의 가부장인 황공의 형상은 가족 비극의 책임에서 더욱 멀게 만들려는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가부장이 무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려 한다.

더구나 계모 박씨가 월선에게 누명을 씌운 때는 황공이 부득이 왕명에 따라 사신으로 중국에 가 있을 당시였다. 이는 황공은 계모의 모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황공은 자신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을 미리 나눠주었는데, 당대의 관행과는 매우 동떨어진 균분상속을 하였다. 심지어 똑같이 나누고 남은 재산은 계모 박씨에게 주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월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황공의 처사는 황공이 월생을 더 편애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재했을 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즉, 당시의 상속 관행보다 더 많은 재산을 월생에게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집안의 어른이 되는 계모 박씨가 월선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인 것이다. 더불어 황공이 사신으로 떠나갈 당시 16세였던 월선이 혼인을 할 때 수월하게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인다.

그렇다면 황공은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황공은 <장화홍련전>의 일방적으로 전처의 딸들만을 편애하고 심지어 장화와 홍련이 시집을 가면 계

안,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174~180면 참조).

40) 김재용 역시 “월선과 전실 자식 간의 불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자신이 강남으로 떠날 때, 월선과 계모 및 계모의 아들인 월생에게 고루 재산을 분배함으로써, 자신이 죽은 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재산 다툼을 미리 방지하려 했다”(김재용, 앞의 글, 141면.)고 지적한 바 있다.

모를 ‘처치’하겠다고 갈등을 만든 가부장 배좌수와는 다르다.⁴¹⁾ 문제는 계모 박씨이다. 월생이 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양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월선을 구박했으며, 심지어는 누명을 씌워 죽이려 했으니 가족 갈등의 책임은 오롯이 계모 박씨의 몫이 된다.

이처럼 <황월선전>은 모계가 아닌 부계를 중시하여 친밀한 이복남매의 사이를 보여줌으로써 부계 혈통을 강조함과 동시에 가부장이 가족 갈등에서 빚겨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가부장의 권위가 허물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계모형소설에서보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는 더욱 강조된다.

한편, 월선과 월생의 친밀한 관계는 서사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다른 계모형소설들보다 현실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서사로 변모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김재용은 이러한 <황월선전>의 변화에 대하여 “변모의 방향은 합리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서사 진행의 경우, 신이성이 개입하는 정도를 대폭 축소시키고, 그것이 개입하더라도, 꿈의 기제를 통해 제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여, 초자연적 경이를 현실적 맥락과 배치되지 않도록 수용”⁴²⁾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평가가 가능한 것은 <황월선전>이 다른 계모형소설과 달리 원귀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귀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서사의 주요한 맥락이 바뀌는 것이고, 원귀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원귀라는 비현실적인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황월선전>은 현실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월생은 아버지 황공을 설득하여 처녀가 낙태를 했다는 누명을 쓴 누

41) 윤정안, 「계모를 위한 변명 - <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참조. <장화홍련전>의 죽고 죽이는 갈등에는 계모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무능한 가부장, 계모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전처의 딸들, 재산 욕심으로 전처의 딸들을 죽인 계모 모두의 잘못임을 지적하였다.

42) 김재용, 앞의 글, 142~143면.

나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월선과 월생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이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유교적 올바름을 넘어서 아버지의 피를 함께 이어받은 혈육의 정으로 누나를 살려야 한다는 부계적 혈통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복동생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다행히 월선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황월선전>에는 비현실적인 존재인 원귀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숙향전>의 숙향처럼 여성이 겪는 고난과 극복이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원귀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황월선전>에 비현실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월선의 탄생은 천상계와 관련된다. 월선이 혈혈 단신으로 세상에 버려져 겪는 사건들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비록 원귀가 되지는 않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험한 세상에서 신이한 존재들의 도움으로 살아남고, 선의를 가진 장진사의 도움을 받아 그 집으로 들어가며, 월선이 장애를 가진 것처럼 꾸미고 있음에도 장위가 월선과 결혼을 결심한다는 것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는 월선과 월생이 친밀한 사이로 등장하여 월생의 조력으로 월선이 죽음을 모면했기에 원귀가 등장하지 않아 변화한 서사의 방향일 뿐, 이것이 <황월선전>이 현실적인 서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월선과 월생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월선이 원귀가 되지 않아 전개된 서사는 오히려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모형소설의 계모들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이후 그 죄를 물어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 계모형소설의 문법이다. 그런데 <황월선전>의 어떤 이본들에서는 계모가 죽지 않고 천수를 누리기도 한다. 이러한 계모의 처분은 월생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선과 월생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황월선전>은 아무도 죽지 않는 계모형소설이 될 수 있었다. <장화홍련전>은 가부장을 제외한 모든 가

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잔혹한 서사였다. <김인향전>이나 <정을선전> 역시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황월선전>에서만큼은 이복남매를 친밀하게 설정함으로써 아무도 죽지 않는 이본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재혼가정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계모를 악인으로 규정하고 모든 책임을 계모 한 사람에게 전가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⁴³⁾ 새로이 모색된 이복남매의 친밀한 관계는 아무도 죽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계모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여전히 계모를 희생양 삼아 가족의 평화는 지켜지고 있다. 계모는 재산을 탐내 전처의 딸을 죽일 수 있는 가정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인데, 그 아들이 가부장적 질서에 따르면 서 부계에 따라 이복누나를 친누나와 같이 아끼고 따른다면 일시적인 고난은 있을지언정 다시 가족은 평화를 찾는 서사가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본은 계모는 그 아들의 효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며,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복무하는 이복남동생의 헌신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지켜진다는 논리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황월선전>은 다른 계모형소설들처럼 가족 갈등의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

4. 결론

이 글은 <황월선전>의 친밀한 이복남매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황월

43) 더불어 대부분의 이본에서는 계모는 친벌을 받아 죽는다는 점도 특기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다른 계모형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누명을 쓴 경우 모두 죽었던 것과 달리 <황월선전>에서는 이복동생의 도움으로 죽지 않았다는 점 역시 특이한 면모이다. 다른 계모형소설들과 달리 <황월선전>에서는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로 인해 월선은 누명을 쓰고도 죽지 않았다.

선전>의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황월선전>의 이복남매 사이가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 있으며, 그것이 서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황월선전>은 계모형소설의 문법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기존의 소설들을 합성하여 만들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모형소설에 묘사되는 대립적인 이복남매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이복남매를 통해 차이를 만들어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전처와 후처의 자녀들은 차별을 받았다. 돌림자도 다르게 사용하여 서로 구별했으며, 재산분배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따라서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려웠다. <장화홍련전>에서 후처의 아들인 장쇠가 전처의 딸이자 자신의 이복누나를 죽이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데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황월선전>의 이복남매인 월선과 월생은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매우 친밀하게 묘사된다.

계모 박씨가 전처의 딸인 월선을 핍박하자 이복남동생인 월생은 월선을 보호하고자 한다. 계모의 방해로 월선이 농사를 망치자 월생은 양식을 보내주는 등 이복남매 사이는 친밀하게 묘사된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인 월생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었던 계모 박씨는 월선이 부정한 여성이라는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한다. 그러자 월생은 누나가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 앞에서도 황공을 설득하여 월선을 살려낸다. 그러나 부정한 이복누나가 집에 있을 수는 없었기에 죽은 것으로 위장하여 집 밖으로 내보낸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전처의 딸인 월선은 죽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귀는 등장하지 않는다. 전처의 딸이 원귀가 되어 신원과 복수를 하는 자리에는 <숙향전>의 숙향처럼 월선의 고난과 이를 극복하는 서사로 채워진다. 이는 친밀한 이복남매 사이라는 설정으로 인한 서사의 변화이다. 또한 월생은 잠깐 등장하였다가 사라지는 <장화홍련전>의 장쇠와 달리 지속적으로 작품에 등장하면서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친밀한 이복남매의 사이는 계모가 천수를 누리는 이본의 등장도 불러온다. 대체로 계모형소설의 계모들은 진실이 밝혀진 이후 그 죄를 물어 극형을 당한다. <김취경전>과 같은 일부 작품들의 경우 계모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받기도 하지만, <황월선전>의 일부 이본에서 계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는데도 천수를 누린다. 이는 월생이 이복누나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집에서 축출된 누나를 찾아 나서 결국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에 월생은 아버지 황공을 기쁘게 했으니, 그 효 덕분에 월생의 생모 박씨가 죽지 않아야 한다는 독자의 요구로 인해 계모가 천수를 누리는 이본이 생길 수 있었다.

이러한 <황월선전>의 친밀한 이복남매는 월생이 모계가 아닌 부계적 혈통에 따라 이복누나인 월선을 자신의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같다면 같은 혈육이라는 인식은 부계적 혈통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강조한다. 더불어 황공의 형상 역시 가족 비극에서 최대한 책임이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 고귀한 가문의 능력 있는 황공은 사신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우게 되자 미리 재산을 분배하되 월생에게 유리하게 하여 혹시 모를 집안의 불화를 막으려 했다. 또한 황공이 없는 사이에 계모의 모해는 시도되는데, 이는 가부장인 황공을 현명하게 그림과 동시에 가족 비극의 책임을 모두 계모에게만 있다고 함으로써 가부장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조치이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친밀한 이복남매의 사이는 월선의 죽음을 막음으로써 원귀 서사로 작품이 진행되는 것을 막았는데,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점을 들어 <황월선전>이 현실적으로 변모하였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여전히 <황월선전>은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고 해결된다는 점에서 단지 원귀라는 초현실적인 존재가 나오지 않는 점을 들어 현실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월선이 죽지 않는 서사, 나아가 계모가 죽지 않는 서사는 가족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비극적인 서사가 아니라 화해의 서사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화해는 계모가 악독하다는 편견을 전제하는바, 여전히 계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족 갈등의 원인을 은폐한다는 점에서 다른 계모형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황월선전>의 친밀한 이복남매의 형상에도 여전히 계모형소설이 가진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계모에 대한 편견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서사였는지, 그래서 계모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뿌리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순 편, <황월선전이라>, 『韓國古小說全集 : 金光淳所藏 筆寫本』 18, 경인문화사, 1993.
- 권순궁, 「<콩쥐팥쥐전>의 형성과정 재고찰」, 『고소설연구』 34, 한국고소설학회, 2012, 251~283면
- 김민조, 「<황월선전> 이본 연구」,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215~249면.
- 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 박인희, 「계모형 가정소설의 후대적 변모 양상 연구 - <황월선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 오윤선, 「콩쥐 팥쥐 이야기에 대한 고찰 - 당대 연구자들의 국어관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2, 민족어문학회, 2000, 25~48면.
- 윤국일 편, 『경국대전』, 여강출판사, 1991,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673&tabNodeId=NODE04241654#none>
- 윤정안, 「<장화홍련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윤정안, 「계모를 위한 변명 - <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63~86면.
- 윤정안,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163~184면.

이성권, 『한국 가정소설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 경남대학교출판부, 1997.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 케케묵은 고문서 한 장으로 추적하는 조선의 일상사』, 휴머니스트, 2013.

정상진, 「계모형 고전소설의 후대적 변모와 <황월선전>」, 『우암어문논집』 9,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9, 203~235면.

정지영, 「<장화홍련전> - 조선후기 재혼가족 구성원의 지위」, 『역사비평』 61, 역사문제연구소, 2002, 422~441면

한기범, 「사계 김장생의 가정관과 아홉 아들」, 『한국사상과 문화』 80,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15, 109~141면.

■ Abstract

**‘Intimate’ Half-Siblings in Stepmother-Type Story
- Wol-Seon and Wol-Saeng in Hwangwolseonjeon**

Yoon, Jeong Ahn

This study looked at *Hwangwolseonjeon*(황월선전) focusing on intimate half-siblings. *Hwangwolseonjeon*(황월선전) is based on the grammar of stepmother-type story, and is composed of various novels. And unlike ordinary stepmother-type story, it was made into a new work through intimate half-sibling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children of the ex-wife and the children of the latter were discriminated against, and for that reason, half-siblings were hostile like the Jang-Hwa(장화) and Jang-Shoi(장쇠) in the *JanghwaHongryeonjeon*(장화홍련전). However, Wol-Seon(월선) and Wol-Saeng(월생) in *Hwangwolseonjeon*(황월선전) are intimately described. Wolsaeng tries to help his half-sister Wolseon in crisis, and helps his half-sister Wolseon, who is falsely accused, survive. Therefore, ghosts do not appear in *Hwangwolseonjeon*(황월선전). Instead, like Sook-Hyang(숙향) in the *Sookhyangjeon*(숙향전), the hardships and overcoming of women who were kicked out of the house are depicted. Wol-Saeng(월생) goes on a road without any promise for his father who misses Wolseon, who was kicked out of the house. In the process, by meeting Wol-Seon(월선)’s husband Jangwi(장위), Wol-Seon(월선) provides an opportunity for her to return to her family. In addition, due to this behavior of Wol-Saeng(월생), in some different version, the stepmother is set to live long.

Wol-Saeng(월생)’s care for his half-sister emphasized patriarchal family order because of his paternal lineage. In addition, the birth and behavior of Hwang-Gong(황공), and the setting such as the occurrence of a family tragedy in the absence of Hwang-Gong(황공), are measures not to undermin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Hwang-Gong(황공), who is a patriarchal family order was also emphasized.

Existing discussions on the absence of ghosts because Wol-Seon(월선) do not die interpret this as a reinforcement of reality, but only ghosts did not appear, and unrealistic elements still exist. Rather, the narrative in which Wol-Seon(월선) does

not die and the narrative in which the stepmother does not die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reate a narrative of reconciliation in which no one dies. However, in that the stepmother is still a scapegoat, like the existing stepmother novel, *Hwangwolseonjeon*(*황월선전*) also conceals the cause of family conflict.

Key words: *Hwangwolseonjeon*, half-siblings, fraternal love, a change in narrative, paternal lineage, patriarchal family order

이 논문은 2022년 8월 6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구비설화에 나타난 돌봄정서의 아버지

한양하*

— 목차 —

1. 머리말
2. 돌봄정서의 ‘아버지-딸’ 관계 서사의 양상
3. ‘아버지-딸’ 관계 서사의 돌봄정서와 돌봄실천
4. 아버지의 돌봄정서와 돌봄 실천의 의미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구비설화에 내재한 돌봄정서의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신화의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역할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실제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지위와 역할을 배우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거친 젊은 아버지들은 실제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의 부재’는 정신분석학 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또한 현대사회의 문화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문학의 보고인 구비설화에서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를 탐색, 세대 간 단절된 아버지상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정서를 지닌 아버지상을 얻고자 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 경상국립대학교 강사.

아버지상에 대해 근원적이고 근본적 아버지의 정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비문학은 가부장적 봉건시대의 산물이라는 면에서 아버지의 권위 의식과 가문의식이 두드러진 이야기들이 많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전승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구비설화에서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 이야기에 대한 탐색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재고할 수 있으며 구비설화의 현대적 전승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비설화에서 돌봄윤리를 체현하는 아버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가족을 기본 돌봄의 단위로 축소하려는 의도, 가족에서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돌봄실천의 방안으로 가족 단위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윤리는 모든 인간은 의존을 경험하며 취약한 의존인으로 간주하며, 돌봄은 도덕적 의무이며, 공감, 민감성, 응답성 같은 감정을 유의미한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경제적 부양자, 돌봄 제공자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규정해 온 것과 달리 아버지 역시 돌봄 대상이며, 아버지에 내재한 돌봄정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돌봄정서와 돌봄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자녀’의 관계를 중심에 두고 ‘아버지-딸’의 관계에 해당하는 설화를 추출하였다. ‘아버지-아들’의 서사는 혈연중심의 가부장적 사고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딸’의 서사에서 <아버지 찾기>, <지혜로 구하기>, <항변하기>의 소재는 연민, 보살핌, 욕망의 표현, 웃음이라는 돌봄정서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식과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상화와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라는 양가성을 가진 전승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자기돌봄에 필요한 성찰적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구비설화에서 돌봄정서를 가지고 돌봄실천을 하는 아버지의 발견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돌봄정서, 돌봄실천, ‘아버지-딸’, 연민, 보살핌, 웃음, 욕망 표현

1. 머리말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다. 친구 같은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가족적 요구가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는 아버지, 사회적으로 리더십을 갖춘 관계 지향적인 아버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인류애를 가진 아버지, 사회문화와 환경 등 국가를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아버지 등 ‘좋은 아버지상’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버지들¹⁾ 또한 많다.

가족적 사회적 요구에 충실한 현대사회의 ‘슈퍼 대디’는 신화시대의 ‘영웅적 아버지’²⁾에 비해 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또한 근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업역군이었던 이전 아버지 세대와 4차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아버지 세대의 문화는 단절적이어서 권위 의식, 가사노동 분담, 자녀 양육 참여 등에서 확연한 차이³⁾가 있다. 아버지의 부부친밀감, 자녀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 등을 가진 아버지 신념⁴⁾은 기성세대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아버지 되어가기⁵⁾를 통해 현대

-
- 1) 최근의 가족관계에서는 친밀성이 보다 중시되고 아버지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자상하고 친근한 아버지상과 결합하면서 남성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친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하는 중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및 가족 구성의 변화와 맞물려 오늘날 아버지들은 돌보는 아버지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나성은, 「부성 실천을 통해 본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중간 계층 아버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173-191면)
 - 2) 배선윤, 「아버지의 이름 고찰 - 단군신화와 주몽 신화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30,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60-103면.
 - 3) 아버지 연구는 어머니 연구보다 적은 편이지만 최근 국내외 연구 모두 아버지 애착과 관련한 심리학적, 의학적, 철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정원, 「아버지 애착에 대한 국내외 학술지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12권 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2520-2529면.)

사회의 아버지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아버지상에 주목하여 구비설화에 내재한 돌봄 정서의 아버지상을 발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신화 시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역할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현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지위와 역할을 배우지 못한 채 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거친 젊은 아버지들은 현실 아버지를 반면 교사 삼을 수밖에 없었으며, ‘아버지의 부재’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정신분석학뿐만 아니라 문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문학의 보고인 구비설화에서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의 탐색, 세대 간 단절된 아버지상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돌봄정서를 지닌 아버지상을 얻고자 하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아버지상에 대한 근원적인 아버지의 정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비설화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과 감정들이 인물과 서사에 녹아 있으며, 서사 속 인물의 정서과 감정이 구연자를 통해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닐 나딩스가 말한 돌봄의 특성, 돌보는 사람의 수용적 직관성이 돌봄대상자의 필요를 느끼고 알아채는 감정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특성⁶⁾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이다.

-
- 4) 안수영, 「부부친밀감과 직장의 가족 친화성이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버지 신념 매개 효과-」, 『인문사회 21』30,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815-829면.
- 5) 존재론적 가치의 회복과 타자의 윤리적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들뢰즈의 ‘되어가기’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재인과 재현의 삶을 넘어 생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의 나를 돌아보게 한다.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의 가치나 일반적인 아버지를 향해가는 것이 아니다. 되어가는 것은 편안한 과정도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와 사회적 아버지 담론 등 무수한 관계 내에서 갈등하며,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고뇌와 선택으로 각자가 되어간다.” (서미정·이연선, 「들뢰즈 관점에서 본 영유아기 자녀양육 경험을 통한 아버지-되어가기의 의미」, 『교육혁신연구』31,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1, 270면)
- 6) Virginia Held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윤리: 대안의 도덕이론』, 『돌봄: 돌봄

구비설화에서 돌봄윤리를 체현하는 아버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가족을 기본 돌봄의 단위로 축소하려는 의도, 가족에서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벗어나 돌봄실천의 방안으로 가족 단위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또한 돌봄윤리는 모든 인간은 의존을 경험하며 취약한 의존인으로 간주하며, 돌봄은 도덕적 의무이며, 공감, 민감성, 응답성 같은 감정을 유의미한 것으로 고려하였다. 가정에서 경제적 부양자, 돌봄 제공자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규정해 온 것과 달리 아버지 역시 돌봄 대상이며, 아버지에 내재한 돌봄정서를 발견하여 전승하고자 함이다.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사회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어른으로서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를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 ‘돌봄윤리’를 실천⁷⁾하는 아버지로 보았다. 신화시대의 영웅 아버지, 봉건시대의 가부장적 아버지, 자본주의 시대 경쟁적 능력을 획득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아버지⁸⁾,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아버지 등 다양한 아버지상이 존재하였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철학으로 돌봄윤리를 실천하는 아버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본 연구는 ‘아버지’ 서사 이면에서 말해지지 않은 아버지 존재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프로이트의 ‘조상신으로 아버지’와 라캉의 ‘실재 아버지’, ‘상상적 아버지’, ‘상징적 아버지’의 이론에 기대었다. 오랜 전

윤리』, 박영사, 2021, 69면.

- 7) 돌봄윤리는 돌봄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과 돌봄의 가치에 근거한 도덕이론으로 인간을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이론이다. (Virginia Held 저, 김희강·나상원 역, 위의 책, 2-3면.)
- 8) 코넬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수용하고 고정되지 않고 관계의 변화 안에서 구성되는 남성성을 개념화시켰다. 특정 시기에 다양한 남성성 중에서 가장 구속력이 강하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국가나 사회 조직에서 힘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기본 요소가 되는 남성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고 규정했다. (R.W. 코넬 지음,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17-130면.)

승의 역사를 지닌 구비설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이미 실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상상적 아버지이며, 근원적 아버지 이마고(imago)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증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아버지’ 관련 서사 가운데 ‘아버지-딸’의 관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아버지’만 등장하는 단독 서사도 대상으로 하였다. ‘아버지-딸’과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준 구술자들이 대부분 여성들⁹⁾이었으며, 이는 실제 여성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투사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비문학은 가부장적 봉건시대의 산물이라는 면에서 아버지의 권위 의식과 가문 의식이 두드러진 이야기들이 많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승들이 많다. 특히 ‘아버지-아들’의 경우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가 아들에게 대물림되며,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버지의 가부장적 권위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구성원에서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며, 시집가지 않은 딸의 경우도 서사에서 역할이 미미하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시집간 딸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고 보았다. 구비설화에서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 이야기에 주목한 이유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 부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재고할 수 있으며 구비설화의 현대적 전승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구비문학대계는 1980년부터 전국에서 채록된 이야기를 담아 85권의 책으로 출판, 이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하였다. 이후 개정 및 증보 사업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¹⁰⁾하였는데 본 연구는 증보판을 대

9) ‘아버지-딸’의 항변 서사와 ‘아버지’의 이인성 서사 구술자는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10) 증보 사업 후 설화 자료를 분석한 결과 5항목의 지명 전설, 6항목의 혼령, 귀신, 도깨비 제사에 관한 설화들이 많았는데 생활 주변의 증거물과 민간신앙과 관련된 것이 다수였다. 전제왕권 국가, 신분제 사회 등을 배경으로 한 서사는 줄어들었고, 4항목의 충, 효, 열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유교적 이념과 덕목이

상으로 하였다. 증보 사업에서 채록된 ‘아버지’ 관련 구술 내용¹¹⁾은 이전 시기의 채록된 내용과 유사하며, ‘효’와 관련한 소재는 주요 서사가 거의 동일하였다. 변화된 부분으로 아버지 관련 ‘이인’ 소재가 많았고 부분적 서사의 변개는 변화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증보 판 자료가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2. 돌봄정서의 ‘아버지-딸’ 관계 서사의 양상

‘아버지-딸’ 관계 서사는 대부분 시집간 딸과 친정아버지의 이야기가 다수이며, 시집가기 전 ‘아버지-딸’의 단독 서사는 드물다. 딸의 출생과 성장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미미하지만 딸의 혼례, 신행, 사돈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역할 크기 때문에 ‘아버지-딸’의 서사에서 시집간 딸과 관계를 담은 서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딸’ 서사는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딸의 아버지 찾기과 아버지의 딸 찾기, 딸의 지혜로 아버지 구하기, 아버지의 지혜로 딸 구하기, 딸의 욕망 표출과 아버지의 욕망 표출, 딸의 횡포와 아버지의 횡포 등 대립쌍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가부장적이며 권위적인 방식으로 강제되지 않는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딸’ 관련 서사는 모두 80편으로 소재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여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혜정,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설화 유형에 대한 통계적 고찰」, 『민속연구』 제38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9, 29-55면.)

11) 2000년대 이후 채록된 자료는 <http://gubi.aks.ac.kr/web/>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까지 구전된 아버지 서사를 알아보기 위해 증보 사업에서 채록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 1) 찾기 서사: 거지 잔치(4편), 귀신의 택시비를 내준 아버지(1편)
- 2) 지혜 서사: 딸의 지혜로 아버지 구하기(22편)와 아버지 지혜로 딸 구하기(8편)
- 3) 항변 서사: 거짓 장례 치른 아버지에 대한 딸의 항변(22편)과 양반 찾다가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의 항변(8편)
- 4) 횡포 서사: 딸의 횡포(14편)와 아버지의 횡포(1편)

1) ‘아버지-딸’의 서사의 분류와 양상

① 찾기 서사

‘아버지-딸’의 관계에서 딸의 아버지 찾기는 효와 관련한 이야기로 ‘거지 잔치’를 들 수 있으며, 아버지의 딸 찾기는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귀신의 택시비를 내준 아버지’를 들 수 있다. ‘거지 잔치’는 무속신화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가 거지 잔치를 열어 부모님을 만나는 화소, <심청전>에서 심청이 거지 잔치를 열어 심 봉사를 재회하는 화소와 일치하여 오랜 연원을 지닌 이야기이다. ‘귀신의 택시비를 내준 아버지’는 현대 구전으로 딸의 기일에 귀신이 되어서라도 찾아온 딸을 반겨 흔쾌히 길값을 지불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므로 아버지의 딸 찾기로 보았다.

찾기 서사는 신화나 구비설화에서 딸보다 아들의 아버지 찾기 화소가 널리 알려져 있다. 무속신화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아버지 찾기, ‘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아버지 찾기가 있으며 구비설화에서 소박맞은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들이 있다. 아들의 아버지 찾기는 아버지의 권위와 권력을 이어받아 자신의 가부장적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쓰이지만 딸의 아버지 찾기는 화목한 가정의 회복으로 끝난다.

또 아들의 아버지 찾기는 아들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집을 떠나지만 딸의 아버지 찾기는 아버지를 자신의 공간으로 불러들인다. 딸의 공간에서 친정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서사라는 점에서 딸의 공간 주도성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거지 잔치 벌여 아버지 찾은 딸」¹²⁾

- ①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 ② 딸은 아버지를 찾으려고 아침이면 술국을 끓여 몇 달을 잔치를 했으나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
- ③ 딸은 아버지를 찾으면 목욕시켜 옷을 입히려고 좋은 옷도 준비해 놓았다.
- ④ 그러다 딸이 저승을 갔는데 손바닥에 글씨를 써 주며 아직 올 때가 아니라고 돌려보냈다.
- ⑤ 잔치 마지막 날에 비슷한 사람이 와서 성도 물어보고 이름도 알아보니 아버지였다.
- ⑥ 옷을 입혀 놓으니 아버지가 선비같았다.
- ⑦ 딸 덕에 아버지도 잘살았다.

‘아버지-딸’ 관계 서사에서 ‘거지 잔치’ 화소가 아버지의 개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형 서사도 나타나는데 이는 딸의 희생적 효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적 치료가 아닌 정성만으로 개안할 수 없다는 현대적 해석이 가미되어 있으며, 딸의 희생적 효가 아버지의 개안이라는 결과보다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딸의 애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하게 한다.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이 드러난 ‘아버지의 딸 찾기’ 이야기는 「귀신의 택시비를 내준 아버지」¹³⁾ 이야기다. 소복 입은 여자가 택시를 타서

12) 윤희중 구술, 충남예산군 대술면, 2013.03.02. 「거지 잔치 벌여 아버지 찾은 딸」, (GUBI+08_11_FOT_20130302_HID_YHJ_0003)

가자고 하는 데로 갔으나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자 택시비를 받기 위해 문을 두드리니 딸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가 딸이 온 줄 알고 택시비를 치른다는 이야기이다.

죽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는 현대 전승 설화로 택시비를 지불한 데서 죽은 영혼이라도 만나고 싶은 아버지의 애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죽은 딸의 영혼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길값을 치른 아버지의 행위를 아버지의 딸 찾기라고 보았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 거지 신세의 아버지를 염려하여 거지 잔치를 여는 딸과 죽은 딸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서로를 애뜻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딸’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② 지혜 서사

‘딸의 지혜로 아버지 구하기’는 아버지의 망신을 딸의 재치로 해결하는 이야기이고 ‘아버지의 지혜로 딸 구하기’는 딸을 괴롭히는 이들을 아버지의 재치로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도 양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딸의 지혜는 아버지의 잘못을 감싸주고 주변의 비난으로부터 아버지를 보호하는 데 쓰이며, 아버지의 지혜는 시댁에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딸을 감싸고 보호하는 데 쓰인다.

‘딸의 지혜로 아버지 구하기’는 아버지가 시집간 딸 집에 찾아가거나 딸이 시집갈 때 상객으로 가서 실수하는 이야기이다.

13) 안수선 구술,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015.10.30. 「귀신의 택시비를 내준 아버지」, (GUBI+02_29_MPN_20150130_KJO_ASS_0002)

「망신당한 친정아버지와 지혜로운 딸」¹⁴⁾

- ① 친정아버지가 시집간 딸 집에 방문하였더니 잣죽을 쑤어 주었다.
- ② 저녁이 되어 잣죽이 더 먹고 싶어 찾으니 뒤꼍 장독대에 올려둔 게 있었다.
- ③ 잣죽을 들고나오다가 갈고리에 상투가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었다.
- ④ 다음 날 아침 안사돈이 발견을 하고 며느리에게 알려주었다.
- ⑤ 딸은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해야 오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다.

딸 집을 방문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고 실수를 하거나 평소 잘 먹지 못하는 음식 대접을 받고 더 먹고 싶은 식탐으로 밤중에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먹는다. 결국 친정아버지는 밤새 꿈쩍 못 한 채 있다가 다음 날 아침 사돈에게 발각된다. 이와 유사한 망신 당한 친정아버지 이야기에서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바지를 잃어버린 채 밥상을 받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급히 말에 올라타다가 아랫도리를 보여 망신을 당한다. 이 순간 딸은 재치 있게 아버지가 망신을 당해야 딸이 잘 산다고 하니 이리하셨다고 하거나 아버지가 망신을 당해야 죽을 고비를 넘겨 장수한다고 돌려댄다.

‘아버지의 지혜로 딸 구하기’ 유형에서 가장 많은 편수는 아버지가 시집간 딸의 가정형편을 살피는 이야기이다.¹⁵⁾ 가난한 시집살이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친정에 온 딸들을 지혜로 돌려보내거나 딸의 혼처를 잘

14) 이희순 구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2011.01.23. 「망신당한 친정아버지와 지혜로운 딸」, (GUBI+02_24_FOT_20110123_SDH_LHS_0001)

15) 시집간 딸의 형편을 살피는 이야기가 가장 많으나 그 외 질투 많은 부인을 닮은 딸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딸의 혼기를 놓치게 하여 딸을 순종적으로 만들거나 딸을 괴롭히는 못된 시어머니를 꿈쩍 못하게 하기 위해 안사돈과 잠자리를 하는 가부장적 권위의식과 봉건적 사고가 나타난 이야기가 한 편씩 있다.

못 소개한 증매쟁이를 따끔하게 혼낸다.

「시집에서 쫓겨온 딸을 돌려보낸 지혜로운 아버지」¹⁶⁾

- ① 시집간 딸 둘이 친정으로 쫓겨왔다.
- ② 아버지가 하루에 똥을 몇 번 누는지 물었더니 하나는 세 번 눕다하고, 하나는 사흘에 한 번 누다고 했다.
- ③ 하루 한 번 똥을 누는 딸은 굶지 않고 사니 살만하다며 돌려보낸다.
- ④ 사흘에 한 번 똥을 누는 딸은 평생 아버지가 먹여 살린다고 했다.
- ⑤ 시집으로 돌아간 딸이 무가 귀한 골짜기로 갔는데 무를 쓱쓱 깎다가 시어머니가 통이 커서 안 되겠다며 며느리를 쫓아냈다.
- ⑥ 아버지가 쫓겨난 딸을 데리고 소에 질매를 걸고 무를 가득 담아 신고 사돈댁으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무를 쓱쓱 잘라 버리고 가운데만 먹도록 나눠주었다.
- ⑦ 딸이 이렇게 먹는 건 어려서 봐 온 데로 해서 시집가서도 그렇다고 했다.
- ⑧ 사돈이 무로 며느리 구박을 하지 않으며 잘 데리고 살겠다고 했다.

시집가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집으로 온 딸들을 화장실에 몇 번 가느냐고 물어 화장실에 거의 가지 못한다는 가난한 딸만 돕고 나머지 딸은 시집으로 돌려보낸다. 또 시집으로 보낸 딸이 다시 쫓겨오자 아버지는 딸의 부족함은 자라온 환경 탓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사돈댁과 마을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한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을 돌려보낼지 남길지 판단하는 잣대는 굶지 않는 것이다. 굶고 산다면 시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시집간 딸의 잘못된 자라면서 보아온 환경 탓이라는 것을 자신이 실제 무를 깎아 보임으로 사돈과 마을 사람들을 설득한다. 시집간 딸을 출가

16) 양전숙 구술, 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면, 2015.01.28. 「시집에서 쫓겨온 딸을 돌려보낸 지혜로운 아버지」, (GUBI+04_13_FOT_20150128_PKS_YJS_0004)

외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집간 딸이지만 사람으로 대우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우선하며, 딸이 저지르는 잘못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지혜로 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야기에서 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③ 항변 서사

‘거짓 장례 치른 아버지에 대한 딸의 항변’은 친정아버지를 푸대접한 딸에게 아버지의 거짓 장례를 알려 딸의 위선을 드러나게 하는 이야기이다.

「거짓 장례한 아버지에게 한 딸의 거짓말」¹⁷⁾

- ① 친정아버지가 딸 집에 갔다.
- ② 딸은 달걀비를 훑으며 말려서 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 그 풀을 언제 말려 밥을 해 주느냐고 하며 집으로 왔다.
- ③ 거짓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다고 알리니 딸이 왔다.
- ④ 딸은 아버지 오셔서 씨암탉 잡아 절을 하니 잘 드시고 텃밭도 준다고 하셨다며 슬피 울었다.
- ⑤ 아버지가 별떡 일어나 내가 언제 그랬냐고 했다.
- ⑥ 딸이 “아버지 죽음이 진짜 죽음인가, 내 울음이 진짜 울음인가?” 했다.

욕심 많은 딸은 친정아버지가 집에 왔을 때 대접은커녕 아버지의 재산에만 욕심을 낸다. 또 자신의 위선이 탄로 난 마당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아버지 장례도 거짓이었으니 자신의 울음이 거짓인

17) 이순자 구술, 충남 서산시 운산면, 2015.02.03. 「거짓 장례한 아버지에게 한 딸의 거짓말」, (GUBI+08_07_FOT_20150203_HID_LSJ_0001)

것은 피장파장이라고 항변한다. 이 이야기에서 구술자들은 딸은 대를 잇는 아들과 달리 친정에 오면 가져가기만 한다는 ‘딸은 도둑’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는데 서사의 결말에서 딸의 당당한 변명에 웃음을 터뜨린다.

‘양반 찾다가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의 항변’은 양반 가문에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결국 양반이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간 딸의 항변을 담고 있다. 아버지가 시집간 딸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딸이 친정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께 도마와 칼만 내놓고 양반을 썰어 드시라고 하거나 물만 내놓으며 양반 삶은 물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양반 의식, 가문 의식에 대한 딸의 항변으로 마무리되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인식을 양반을 썰어 먹는 도마와 칼, 양반 삶은 물이라는 은유로 항변한다.

「근본만 찾은 친정아버지」¹⁸⁾

- ① 아버지가 지체 낮은 집에는 딸을 시집보내지 않겠다고 했다.
- ② 맞춤형 양반집이 나타나 딸을 시집보냈는데 가난한 집이었다.
- ③ 딸이 친정에 와서 칼과 도마를 갖다 놓으며 근본이 뭔가 썰어 먹자고 한다.

항변하는 ‘아버지-딸’ 유형은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딸의 욕망, 양반 가문과 결연을 맺고 싶은 아버지의 욕망이 이야기의 출발이나 결국 아버지에게 따질 것은 따지는 딸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이 유형에서 ‘아버지-딸’은 서로의 욕망을 걸어로 드러내고 있으며, 딸은 아버지의 욕망에 대립적이고 도전적이다. 딸은 양반 가문을 찾는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도전하고 항변한다.

18) 김채순 구술, 충남 예산군 덕산면, 2013.03.27. 「근본만 찾은 친정아버지」, (GUBI +08_11_FOT_20130317_HID_KCS_0002)

현대 구전에서 항변 서사가 30편을 차지하는데 많은 구술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전승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의 거짓 장례에서 항변하는 이야기는 ‘시집간 딸은 도둑’이라는 결혼한 딸에 대한 편견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항변하는 딸의 모습은 아들에 비해 독립적인 딸의 지위를 보여준다.

④ 횡포 서사

‘딸의 횡포’는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갈취하거나 아버지의 재물을 뺏고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횡포’는 아버지가 딸을 겁탈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딸과 아버지의 욕망 표출이 직접적이며 해결 방법 또한 극단적이다.

‘딸의 횡포’ 유형에는 아버지의 재물을 탐내는 유형¹⁹⁾과 아버지의 못자리를 탐내는 유형²⁰⁾으로 나뉜다. 아버지의 재물을 탐내는 유형에는 시집간 딸이 아버지를 오라고 해서 하루에 알을 열 개 낳는 닭이 있다고 하거나 떡이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하여 아버지를 속인다. 단 조건이 있는데 닭에게 “휘이”하고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거나 나무를 땅에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딸의 재물에 대한 욕망은 아버지의 재물을 탐내 아버지를 살해하여 헛간에 숨겼다가 발각되거나 아버지의 소 판 돈을 빼앗고 아버지의 시신을 숨겨 놓는다. 또 아버지 못자리를 두고 저지르는 딸의 횡포도 있다. 아버지 못자리가 정승이 날 자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중에 빠져나와 아버지 못자리에 물을 붓고 묘터를 옮기게 한 뒤 그 자리에 자신의 남편이나 시아버지 묘를 쓰게 한다.

19) 이선영 구술, 충남군 예산군 광시면, 2013.03.10. 「친정아버지에게 나무 팔아먹은 딸」, (GUBI+08_11_FOT_20130310_HID_LSY_0014)

20) 남선휘 구술, 경기도 양주시 운현면, 「친정아버지의 좋은 산소자리를 빼앗은 딸」, (GUBI+02_18_FOT_20120310_KHS_NSH_0011)

아버지의 횡포 유형에는 ‘옥녀봉 전설’²¹⁾이 대표적이다. 아버지가 딸을 겁탈하려고 하자 딸이 산에서 자결하여 그 핏자국이 산에서 흘러내린다는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 딸로 향한 근친상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화소이다.

딸의 아버지 살해나 아버지의 딸 겁탈 소재는 전통적 금기를 깨고 도덕적 인간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을 저지른다. 자식의 아버지 살해 화소는 우리나라 신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인데 구비설화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여우 누이’의 경우 딸의 횡포를 드러내는 극단적인 내용인데 소의 간을 파먹어 집안의 재산인 소를 죽이다가 결국 오빠들을 죽이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죽인다. 왕권 찬탈과 아버지 자리의 계승이라는 부계 전통 신화에서 아들의 아버지 살해와 달리 딸의 아버지 살해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욕망, 가문 해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맞는다. 딸의 부친 살해와 아버지의 딸 겁탈은 도덕적인 양심, 이성적 판단에서 벗어나 동물적 본능으로의 살해와 동물적 본능의 근친상간에 이르는 원초적 본능에 휘둘리는 극단적 형태를 보여준다.

2) ‘아버지’ 서사의 분류와 양상

① ‘아버지’의 이인성

아버지의 이인성은 대부분 구술자들이 경험한 실재 아버지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아버지가 도깨비를 보았다는 류가 가장 많은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으로 오는 길에 도깨비와 씨름을 하다가 물에 빠져 옷이 젖어 왔거나 도깨비에 홀려 산을 헤매다가 도깨비를 따돌리고 온 이야기들이다. 그다음 둔갑한 여우, 호랑이를 만나 살아난 아버지 등이

21) 김갑용 구술, 경남 거제시 마을회관, 2012.01.19. 「아버지가 딸을, 옥녀봉」, (GUBI+04_02_FOT_20120119_SSG_KKY_0002)

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나, 아버지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현대 구전에서 아버지의 이인성 소재가 많은 이유는 현실에서 보고 겪은 권위를 상실한 실재 아버지에 대한 상상들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이인성이 성품과 능력, 업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입증 불가능한 도깨비와 여우, 늑대, 호랑이와 대면에서 살아난 아버지로 귀결되는데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는 도깨비를 알아봄, 도깨비와 대적, 도깨비를 물리치는 서사로 ‘영웅 아버지’를 상상하게 한다.

현실에 실재하는 아버지는 농촌에서 농사지을 땅을 잃고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낸 무능한 아버지이지만 서사 주인공으로 아버지는 도깨비나 여우를 물리친 영웅이다. 이는 아버지의 허세와 변명을 상상, 이상화하여 이인 아버지 이야기로 구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서사에서 결말만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객귀 붙어 돌아가신 아버지²²⁾, 도깨비에게 놀림당한 아버지²³⁾ 등 아버지의 어리석음을 간과한 이야기가 바로 실재 아버지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구전 설화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해방 시기의 아버지, 60-70년대 근대화 시기의 아버지 이미지가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사회적으로 목소리 낼 수 없는 아버지, 농촌 빈민에서 도시 빈민으로 이어지는 무능한 아버지, 자본주의 경쟁 구도에서 하층민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은 저렴한 대폿집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들은 집으로 오는 길에 술에 취해 냇가에 쓰러지기도 하고 길가

22) 김정희 구술, 대전시 중구 모암로 호동모암경로당, 2016.02.13. 「객귀붙은 아버지」, (GUBI+08_16_MPN_20160213_HID_KJH_0002)

23) 손난옥 구술,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2011.03.06. 「도깨비 만난 친구 아버지」, (GUBI+03_08_MPN_20110306_HRS_SNO_0001)

에서 잠들었을 수도 있다. 실제 아버지의 무능력은 여성 구술자들에게 이상화된 아버지로 그려지고 있어 ‘아버지’의 이인성은 현실의 아버지와 자녀가 바라는 아버지상의 대립적 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② ‘아버지’의 성적 욕망

아버지의 욕망을 다루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인성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과 달리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식이 많은 집에 단칸방에 사는 아버지가 밤중에 어머니를 찾아 방을 기어가자 아들들은 아버지가 밤에 기어 다니면서 잔다고 한 이야기²⁴⁾, 밤에 아내를 찾다가 술독을 켜 이야기²⁵⁾, 자식들이 아버지는 어머니 배 위에서 잔다고 한 이야기²⁶⁾가 있다. 이야기 속 자녀들이 묘사한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의 성적 욕망을 알고도 모르는 체하여 아버지의 성적 욕망을 희화화하고 있다. 아버지가 어머니 쪽으로 기어가다가 눈 뜬 아들을 보고 왜 눈을 뜨고 자느냐고 하니 아들은 아버지는 왜 기어다니면서 자느냐고 한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다가 술독이 깨지자 아들이 그놈의 잔치가 크다고 하거나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방이 좁아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 자니 고구마 자루를 치워달라고 한다.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 ‘아버지-자녀’ 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혼인시키고 상객으로 가서 안사돈과 눈이 맞아 자식을 이혼시키거나 며느리를 탐해 아들을 죽인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자녀’ 안에서 아버지의 성적 욕망은 우스개로 여겨지지만 ‘아버지-

24) 고희상 구술,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1979.08.13., 「기어다니면서 자는 아버지」, (G002+AKS-UR20_Q_0061_1_F_002)

25) 김양순 구술, 경남 창원시 의창구, 2014.01.16. 「밤중에 술독을 켜 아버지」, (GUBI+04_14_FOT_20140116_PKS_KYS1_0002)

26) 백남순 구술,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2010. 01.22. 「아버지가 어머니 배 위에서 자요」, (GUBI+04_21_FOT_20100122_PKS_BNS_0001)

자녀' 밖의 관계에서는 표출된 성적 욕망은 아들의 혼인 관계 파탄으로 몰고 가거나 자식을 살해하는 극단에 이른다. 자제되지 않는 아버지의 성욕은 동물 수컷의 성욕이며, 인간으로 금기를 해제시키는 욕망이다.

3. '아버지-딸' 관계 서사의 돌봄 정서와 돌봄실천

돌봄정서와 돌봄실천을 보편타당한 도덕적 원리로 세우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돌봄윤리를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범주의 가치로 한정짓는 것에 반대하여, 객관적으로 보편타당한 윤리원칙으로 돌봄을 설명하고자 했다. 연구자들이 돌봄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돌봄제공자와 수혜자의 관계에서 배려와 신뢰, 요구 혹은 욕망에 대한 관심, 요구 혹은 욕망을 실패는 응답성²⁷⁾으로 보았다. 이 장에서는 돌봄제공자와 돌봄수혜자의 돌봄정서를 읽기 위해 감정과 욕망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한다.

돌봄정서와 돌봄실천을 구비설화에서 가족 안의 서사로 한정하게 될 경우 개인적 정서로 치환하게 될 우려가 있지만 구비설화의 서사는 인간 삶의 서사와 맞닿아 있고, 개인의 정서는 가족과 사회적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이아나 메이어스는 “서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맥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스스로 결정하는 도

27) 버지니아 헬드는 돌봄윤리를 인간 개인의 품성에서 비롯된 미덕윤리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배려, 신뢰, 필요에 대한 응답성, 서사적 어감, 돌봄관계 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Virginia Held 저, 김희강·나상원 역, 앞의 책, 39-40면.) 닐 나딩스(Nel Noddings)는 돌봄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 필요, 욕망에 대한 관심, 돌봄 대상자에 대한 생각,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위의 책, 69면.) 셀마 세븐후이젠(Selma Sevenhuijsen)은 배려, 책임성, 응답성, 다른 시각에서도 문제를 이해하는 헌신으로 취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돌봄노동은 필요를 경청하고 필요충족의 책임을 맡을 능력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위의 책, 74면)

덕적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가치 부여와 재평가 그리고 삶의 궤도 수정과 사회적 규범의 재설정이라는 가능성을 유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²⁸⁾고 하였다. 즉 구비서사에서 ‘아버지-딸’의 돌봄정서를 발견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아버지의 정체성 발견과 딸의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 연민과 보살핌

‘아버지-딸’ 관계에서 찾기 서사의 출발 동인은 연민이다. 딸이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공양미 삼 백석에 자신을 팔았던 이유도, 거지로 떠돌아다니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거지 잔치를 열었던 이유도 모두 아버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아버지 또한 죽은 딸의 제사를 지내며 귀신으로라도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죽은 딸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절실했다. 연민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며 돌봄인과 돌봄수혜자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며, 인간이 인간에 대해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동포애, 인류애로 나아갈 수 있는 돌봄의 동인이 된다.

연민은 돌봄 실천으로 보살핌을 이끌어낸다. 딸의 지혜로 아버지가 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하는 것과 아버지의 지혜로 딸의 위기를 해결하는 실천이 수반된다. 시집간 딸을 찾아온 아버지가 사돈댁에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딸이 나서서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였다고 하거나 아버지가 망신을 당하면 딸이 잘 잘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을 한다. 딸의 재치로 아버지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가 딸이 처한 위기를 지혜로 풀어나간다.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온 딸에게 화장실에 몇 번 가는지 물어보고 딸이 생존의

28) 위의 책, 93-96면.

위협을 받는지를 판단한다. 사흘에 한 번 화장실에 간다는 딸은 시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거두며, 시댁에서 쫓겨온 딸의 사연을 듣고 딸과 함께 직접 사돈댁을 찾아가 딸의 자라온 환경이 그러하였음을 보여주고 이해를 요구한다. 결국 딸의 지혜는 아버지를 보살필 수 있었으며, 아버지의 지혜는 딸을 보살필 수 있었다.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관심이 실천과 결부되지 않는다면 사적 영역에만 머물 수 있는 개인의 품성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실천과 결부되었을 때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가 된다. 보살핌의 역할이 여성의 역할에 한정되어 모성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여겨졌지만 이미 구비설화에서 시집간 딸에 대한 아버지의 연민과 보살핌의 발견은 돌봄이 모성으로 한정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욕망의 표출과 웃음

‘아버지-딸’의 관계 서사에서 연민, 보살핌뿐만 아니라 딸의 욕망과 아버지의 욕망이 표출되는 지점도 의미가 있다. ‘아버지-딸’의 관계에서 가부장적 권위가 관계의 중심에 있었다면 딸의 욕망은 표출되지 않았을 것이며, 딸의 항변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 장례한 아버지에게 한 딸의 거짓말」에서 딸은 자신을 찾아온 아버지의 방문을 환대하지 않았고 점심도 대접하지 않았으면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나타나 아버지 점심 대접을 잘 해드렸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아버지 대접은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재산은 갖겠다는 딸의 욕망은 장례의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아버지가 논과 밭을 준다고 했다거나 집 앞의 텃밭을 준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질세라 아버지의 반격은 관 뚜껑 열고 일어나 언제 그랬냐며 호통을 친다. 이쯤 되면 기세가 죽을 법도 하건만 딸은 자신의 울임이 가짜인 것과 아버지의 죽음이 가짜인 것이 진배없

음을 당당하게 말한다.

아버지의 욕망은 딸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내는 것이다. 고르고 골라 좋은 가문에 시집을 보내지만 가난한 집에 시집을 보내자 딸은 친정을 찾아와 ‘칼과 도마’를 꺼내 놓고 아버지가 중시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꺼내 놓고 썰라고 한다. 딸을 찾아온 아버지에게 ‘양반’ 삶은 물이라고 내 놓는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문의식이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이며,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것인지 따진다.

딸의 항변은 웃음을 자아낸다.

0' 46" "아버지 죽음이 진짜 죽음인가. 내 울음이 진짜 울음인가" [일동 웃음]

0' 57" 딸년이 그랬대유.²⁹⁾

‘아버지-딸’의 대립은 딸의 ‘항변’이라는 표현방식으로 웃음을 자아낸다. 아버지는 거짓 장례를 열어 딸의 위선을 폭로하고, 딸은 아버지에게 양반 썰어 먹는 도마와 칼, 양반 삶은 물을 내놓아 아버지의 위선을 폭로한다. 구술자와 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는 항변의 서사는 웃음의 본질을 떠올리게 한다. 베르그송은 “웃음이란 실제적거나 또는 상상적이거나 같이 웃는 다른 사람과의 일치, 말하자면 공범의식 같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³⁰⁾이라고 하였다. 서사의 상황이 구술자와 청자에게 공범의식을 갖게 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여성구술자들의 욕망이 딸의 항변과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 구술자들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불안감에서 이탈하여 긴장을 풀고 유연함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베르그송은 웃음의 미적 요소가 사

29) 이순자 구술, 충남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경로당, 2015년 2월, 「거짓 장례한 아버지에게 한 딸의 거짓말」, (GUBI+08_07_FOT_20150203_HID_LSJ_0001)

30) 앙리 베르그송 지음 김진성 옮김, 『웃음-희극의 의미에 관한 시론』, 종로서적, 1993. 6면.

회의 경직성, 개인의 경직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서사에서 웃음의 유발은 반복과 역전이다. 반복은 서사 구조의 반복이며 역전은 인물의 성격 변화가 일으키는 상황의 전도이다.

딸의 공간에 아버지의 방문은 장례를 계기로 아버지의 공간에 딸의 방문을 반복하며, 딸의 공간에서 아버지의 푸대접은 아버지의 공간에서 딸에 대한 면박으로 반복된다. 딸의 성격 변화가 일으키는 상황의 전도는 시집가기 전과 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시집가기 전 딸은 아버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순종적인 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집간 후 아버지가 찾아오자 점심 대접도 하지 않는다. 달개비를 널면서 달개비가 마르면 찌개를 끓여주겠다고 한다. 순종적인 딸이 매몰찬 딸로 변화한 것이다. 아버지는 딸의 공간과 장례의 공간에서 변화한다. 딸의 공간에서는 푸대접의 수모를 당했지만 따지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장례의 공간에서는 슬퍼하며 곡을 하는 딸의 위선과 땅을 주기로 했다는 거짓말에 관에서 뚜껑을 열고 일어나 화를 낸다. 인물의 변화로 전도된 상황은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나 이를 웃음으로 넘기는 것은 부조리를 꿰뚫고 있는 딸의 항변이다.

‘아버지-딸’ 서사에서 딸의 재산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의 가문에 대한 욕망은 가두어지거나 억제되지 않고 표출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딸의 욕망과 아버지의 욕망이 금기시 되었다거나 억제되었다면 서사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며, 은폐된 채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로 표출된 욕망은 갈등을 일으켰고 해결의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3) 이상과 현실의 양가성

‘아버지’ 서사에서 아버지의 이인성과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라는 분명한 대립쌍은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에 대한 이상화와 아버지 개인

의 무의식에 충만한 성적 욕망이라는 점에서 이상과 현실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현실’이라는 대립쌍의 저변에는 서사 속 아버지와 자녀의 양가감정³¹⁾, 실재하는 아버지와 욕망하는 아버지의 양가감정이 기저에 있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프로이트와 라캉은 ‘양가성’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드러난 불안, 죄책감³²⁾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프로이트는 『종교의 기원』에서 죽은 조상에 대한 두려움은 터부로 드러나며 이는 조상숭배로 연결된다고 보았다. 사자에 대한 두려움과 조상숭배라는 양가성은 터부와 양심, 터부를 범한 이후 죄의식으로 가장 오랜 양가성을 지닌 의미³³⁾이다.

‘아버지’ 서사에서 아버지의 이인성과 아버지의 성적 욕망 또한 양가적 의미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성적 욕망의 표출은 일상에서 「기어나니면서 자는 아버지」와 「밤중에 술독을 깬 아버지」 정도이지만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딸을, 옥녀봉」에서는 딸을 겁탈하려고 했다가 딸이 옥녀봉에 올라가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성욕 표출은 딸에게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러나 많은 여성 구술자들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상화되어 있다.

31) 원초적 충동들은 성년기에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오랜 발달 과정을 거친다. 이런 충동들은 억제되고, 서로 뒤섞이고 추구하는 대상을 바꾸고 어느 정도는 소유자한테 되돌려진다. 일부 본능적 충동들은 거의 처음부터 정반대의 충동과 짝을 이루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반동 형성이 더욱 쉬워진다. 이 상황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 일반 대중한테는 낯설겠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양가감정(兩價感情, Ambivalenz)>라고 부른다.(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석희 역,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16, 35-70면.)

32) “성적 욕망이라는 내부적 공격성을 회피하기 위해 사랑과 미움의 양가감정처럼 상징적 표상체의 중개로 대상에 대한 욕망과 두려움의 감정을 투사한 것이다. 이 역설적 사고는 근친상간 욕망/근친상간 두려움, 쾌/불쾌라는 대립쌍을 내포한다.”(이유섭, 앞의 논문, 208면.)

3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이윤기 옮김,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13, 125-130면.

여성 구술자들이 말하는 아버지는 늦은 귀갓길에 도깨비를 물리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온다. 도깨비뿐만 아니라 여우, 호랑이, 귀신까지 물리치는 아버지는 상상 속에 이상화된 인물들이 지닌 지인지감, 도술의 능력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 ‘아버지-자녀’ 바깥에서 표출될 때 관계의 파탄, 가족의 해체를 일으킨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성장하지 못한 아버지를 보여준다. 딸은 아버지에 대한 양가감정, 사랑과 미움, 긍정과 부정, 욕망과 두려움이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아버지의 돌봄정서와 돌봄실천 의미

현대사회에서도 아버지 권위, 아버지의 재산을 세습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풍토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구비설화에서 ‘아버지-딸’의 관계를 보면 이미 가부장적 아버지상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딸’은 연민과 보살핌으로, 욕망의 표출과 웃음으로 양방향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상화된 아버지와 현실적 아버지의 균열이 자명했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사회문화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지위와 역할을 변형시켰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되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가부장적 지배권을 국가가 국가에 행사한 것으로 더 이상 가부장적 권위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³⁴⁾

34) 초등학교 교과서에 어머니상과 아버지상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분법적 성역할 분업이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 지지자, 교육자로서의 역할 등에 한계를 갖고 혼재된 모습도 있다고 보았다.(윤혜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어머니상과 아버지상 분석」, 『학부모연구』8, 한국학부모학회, 2021, 57-74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

1) 양방향적 소통의 확대

현대사회에서 ‘아버지-딸’ 관계 서사는 연민과 보호, 욕망의 표출과 웃음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의 원만한 과정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돌봄정서로 갖추어야 할 공감, 민감성, 응답성과 같은 감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아버지-딸’의 돌봄정서는 돌보는 이와 돌봄 대상의 관계를 중시하며, 관계 속에서 돌봄정서를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딸’의 서사에서 정서와 감정이 매개하는 데는 딸의 주체적인 역할이 크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 망신을 당한 아버지를 감싸는 따뜻한 마음, 아들과 달리 재산을 나눠 받지 못한 딸의 서운함, 서운함의 항변과 위선의 폭로는 웃음을 만들어낸다. 또한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서사에서 죽은 딸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 시집가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딸을 보살핌, 재물만 탐하는 딸에 대한 서운함, 딸의 위선을 폭로하여 웃음을 만들어낸다. 즉 ‘아버지-딸’ 서사에서 연민과 보호, 욕망의 표출과 웃음의 정서와 감정의 교감은 돌보는 이와 돌봄 대상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관계이다.

‘아버지-딸’의 서사는 다양한 감정 표현들이 양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돌봄정서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딸이 아버지에게 갖는 연민을 아버지 또한 딸에게 느끼고 있으며,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딸의 지혜는 아버지를 보살피는 실천으로 이

타난 아버지상을 교육과정별로 분석 교수요목기부터 3차까지는 문명과 지식의 중개자, 3차부터 5차는 덕의 구현자로 규명, 6차 7차는 인간적 한계를 가진 실패하고 사실적인 아버지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서명희, 「초등 국어과 교과서 체제에 드러난 아버지상의 변천: 건국기-제7차 교육과정기 초등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린정신인문학연구』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127-153면.)

어진다.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는 아버지의 지혜는 딸을 보살피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딸의 항변에 맞선 아버지의 폭로는 웃음을 자아낸다.

돌보는 이와 돌봄 대상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가며 감정을 드러내고, 서로의 욕망과 위선이 탄로 나며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계는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소통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다. 보살핌은 표현을 하는 사람과 표현 받는 사람 모두의 감정과 인식에 관계되며, 이런 태도와 공유된 인식은 돌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2) 자기돌봄의 실천

‘아버지’ 서사에서 이상화된 아버지의 이인성과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양가적 아버지를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구비설화에서 이상화된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성적 욕망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교묘해지고 거대화된 신자유주의 영향과 무연고적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면서 성적 욕망에 잠식당하는 아버지 형상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루이지 조야는 현대사회에서 아버지의 문제를 이상화된 아버지와 현실 아버지의 격차로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고착되어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린 소년들은 자신의 사고 확장을 통해 아버지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가난한 시골 경제는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것은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아버지의 집(patrilocal), 아버지의 혈통(partilinear), 아버지의 원칙(partriarchal)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발견”³⁵⁾ 할 수 있었던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와 달리 가난한 도시 빈민으로, 생산의 주체이나 소유의 주체가 아닌 노동자로서 소외감, 교

35) 루이지 조야 지음, 이은경 옮김,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296면.

육의 기회는 학교에게 빼앗긴 박탈감으로 가정에서 비가시적 존재가 되었다고 현대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아버지가 외부 세계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상을 요구하는 ‘부성 패러독스’³⁶⁾라는 말로 현대사회의 아버지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루이지 조야는 이상화된 아버지에 대한 망상이 부성의 몰락을 부추겼으며 이를 역사적 사건과 연관하여 더 강한 아버지가 더 약한 아버지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식민지 약탈, 부성 패러독스의 지지로 탄생했던 나치즘은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부성의 퇴행이며, 부성의 몰락이었다고 평가한다. 현대사회에서 상징적 제의는 사라지고 아버지는 권위를 잃고 동물적인 남성만 남게 되었는데 남성들의 정체성이 부성을 잃고 남성성으로 역행³⁷⁾했다고 보았다. 루이지 조야가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 발견한 부성의 패러독스와 부성의 몰락이라는 점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루이지 조야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과거의 복원을 꿈꾼다.

루이지 조야는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로 자식들의 개성화로 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행했던 제의성을 회복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식들에 대한 개성화 이전에 아버지 자신의 개성화(individualisation)가 우선이며, 아버지로서의 제의성은 아버지 권위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대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 아버지 또한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돌봄 제공자의 위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 수혜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버지의 돌봄 의식에 대한 성찰과 자기돌봄에 대한 이해로 정립될 수 있다.

36) 부성의 패러독스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들의 모순된 기대 심리로, 아버지가 한편으로 공평함과 정의를 베풀면서도 동시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식들의 요구이다.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스탈린적 공산주의는 이런 부성 패러독스를 공식적 영역으로 옮겨놓은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루이지 조야, 위의 책, 333면.)

37) 루이지 조야, 앞의 책, <부성을 거부하는 동물적인 남성성> 389-400면.

아버지의 자기돌봄은 우선 스스로를 관계적 자아³⁸⁾로 보아야 한다. 관계적 자아란 상호유대관계로 결합된 자아이며 관계적 인간을 형성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버지-아들’, ‘아버지-딸’의 관계를 형성하며, 자녀들의 어머니와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아버지는 아버지 존재와 역할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많은 아버지들과 유대하고 관계 맺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구비설화에서 아버지를 이상화된 이인성으로 기억하는 구술자들에게 아버지의 정체성은 현실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상화된 아버지의 형상이며 왜곡된 아버지의 형상이다.

관계적 자아는 돌봄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자아이며, 반성적 사고와 상호존중, 상호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 가부장적 사고에서 아버지의 반성적 사고나 반성적 성찰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이 법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은 죽어서도 유지되는 관계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버지-딸’의 서사는 가부장적 아버지상에 균열을 일으키고 아버지의 연민과 보살핌, 욕망의 표출과 웃음이라는 방법을 알게 하였다. 시집간 딸들의 항변은 상호존중과 상호민감성의 요구를 일으켰으며 아버지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자율성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도 돌봄 수혜자이며 제공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간의 취약성은 인간 존재 모두의 근원적 존재 방식이며, 이런 취약한 존재들이 주위 세계와 맺는 관계에서 상호성을 인식³⁹⁾해야 한다. 아버지가 가족

38) 다이나나 메이어스(Daina Meyers)는 관계적 자아란 상호유대관계로 결합된 자아라고 하였으며, 자아를 관계적으로 보는 개념은 타인과 다른 집단에 대한 유대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런 자아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삶, 행동을 만들어가는 도덕적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Virginia Held 저, 김희강·나상원 역, 앞의 책, 97-100면.)

39) 김정미·김은주, 앞의 논문, 21-26면: 조선 후기 자녀들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의 돌봄을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책임지는 관계로 보는 나딩스(Noddings)의 견해에 따라 아버지의 돌봄을 자녀의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아버지의 돌봄은 자녀에게 믿음직한 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수렁하고 실천하는

관계에서 어머니의 돌봄과 아버지의 돌봄을 분리하여 인식하거나 아버지가 자녀와 맺는 관계에서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 충동에 몰두하게 되면 구비설화의 ‘아버지’ 서사에서 나타난 극단적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성적 욕망에 잠식당하여 자식의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자식 살해에 이르기까지 한다. 베너는 자기돌봄 능력을 옹호해주고 촉진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이라며, 자기돌봄 속에서 자신의 실존 가능성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⁴⁰⁾하다고 하였다.

5. 나오며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⁴¹⁾의 아버지들은 ‘보호’와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기에 돌봄 책임에서 무임승차권을 받는다⁴²⁾고 조안 C. 트론토는 지적한다. 보호와 생산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지만 보호와 생산은 돌봄의 다른 요소들과 균형적이지 않는 것이다. 보호를 하면서도 보호적이지 않는 방식, 은밀하고 친밀한 상황에서 가해지는 폭력이 존재하며, 물질적 필요를 제공함으로써 성별

과정임을 깨달아야 하며, 자녀 돌봄이라는 가족주의를 넘어 사회구성원으로 돌봄 책임을 나누는 돌봄공동체 정신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0)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9면.

41) 코넬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다양한 남성성이 규정될 수 있으며, 권력 관계, 생산관계, 감정적 애착관계의 삼중 모형을 가지고 지배적인 지위를 가진 헤게모니적 남성성, 종속적 남성성, 공모적 남성성,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구분하였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집합적인 것으로 문화적 이상과 제도 권력이 부합할 때 남성성을 전시하여 어떤 반대에도 꿈쩍하지 않는 성공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R.W. 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0, 117-130면.)

42)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21(2판), 145-191면.

화된 차별적 인식을 한다. 돌봄실천이 가정 내에서 또다른 차별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돌봄이 정의의 원칙과 어긋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하며 자기 성찰적 돌봄수행을 해야 한다.

‘아버지의 부재’라는 현대사회의 진단은 오래 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고찰은 부족했으며 해결 모색도 어려웠다. 자녀 세대의 방황과 방종, 패륜 등 사회적 문제를 ‘아버지의 부재’ 탓으로 돌리는 현실에 의문을 품고 현대사회에서 유의미한 ‘아버지’상을 찾기 위함이 본 연구의 출발이었다. 구비설화는 가부장적 권위와 질서를 내재화한 옛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 삶의 서사가 반영된 이야기라면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한 돌봄정서를 가진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아버지-딸’, ‘아버지’ 서사를 고찰하였다.

‘아버지-딸’ 관계에서 찾기, 지혜, 항변, 횡포 서사, ‘아버지’ 서사에서 이상화된 아버지와 현실 아버지의 성적 욕망을 읽어낼 수 있었다. ‘아버지-딸’ 관계 서사는 연민과 보살핌, 욕망의 표출과 웃음이라는 다양한 돌봄 정서를 양방향으로 주고 받았으며, ‘아버지’서사의 양가성은 아버지의 자기돌봄 실천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성적 욕망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 아버지의 자기돌봄은 성찰적이며, 돌봄실천에서 상호존중과 상호민감성을 길러야 한다. ‘아버지-딸’ 관계 서사는 이후 ‘아버지-아들’의 관계 서사에 대한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자료>

『한국구비문학대계』

<http://gubi.aks.ac.kr/web/>(검색일: 2022.06.20.-07.15)

<논저>

- 강정원, 「아버지 애착에 대한 국내외 학술지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 12권 4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공병혜, 『돌봄의 철학과 미학적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권정생, 『한티재 하늘 1·2』, 지식산업사, 2005.
- 김대숙, 「구비 효행 설화의 거시적 조망」, 『구비문학연구』 제3집, 한국구비문학회, 1996, 177~201면.
- 김수연, 「18세기 고소설의 속물형 아버지와 효 윤리의 재설계」, 『한국고전연구(韓國古典研究)』 5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57~91면.
- 김석, 「아버지의 위상 - 금지와 향유의 기원」, 『기호학 연구』 제51집, 한국기호학회, 2017, 29~57면.
- 김정미·김은주, 「조선 후기 아버지의 자녀양육과정을 통해 본 돌봄 담론 분석」, 『교육사상연구』 34.3, 한국교육사상학회 (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20, 1~26면.
- 김혜정, 「‘한국구비문학대계 개정·증보사업’ 설화 유형에 대한 통계적 고찰」, 『민속연구』 제38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2019, 29~55면.
- 나성은, 「부성 실천을 통해 본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중간 계층 아버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173~212면.
- 남기민, 「돌봄윤리로 읽는 <심청전>」, 『고소설연구』 53권, 한국고소설학회, 2022, 137~166면.
- 배선윤, 「아버지의 이름 고찰 - 단군신화와 주몽 신화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30, 한국문학치료학회, 2021, 103~130면.
- 배재훈, 「LDA를 활용한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옛이야기 주제 비교 연구 - 제6차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청람어문교육』 69권, 청람어문교육학회, 2019, 299~330면.
- 안수영, 「부부친밀감과 직장의 가족 친화성이 양육 참여와 양육책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아버지 신념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30,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815~829면.
- 윤정안, 「계모형 소설의 ‘아버지’ 재론」, 『배달말』 66, 배달말학회, 2020,

163~184면.

- 윤혜순, 「초등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어머니상과 아버지상 분석」, 『학부모 연구』8, 한국학부모학회, 2021, 57~74면.
- 이유섭, 「프로이트·라깅으로 읽는 아버지-조상신」, 『코리안이마고』, 한국현대정신분석학회, 1998, 193~220면.
- 이인경, 「구비설화에 나타난 가계 계승과 혈연의식」, 『고전문학연구』제2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5~34면.
- 이재석, 「문무왕의 삼국통일전쟁과 해양·호국·동해구 장례의 사적 전개」, 『신라문화』59,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1, 137~158면.
- 임치균 외2인 옮김, 『보은기우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 서명희, 「초등 국어과 교과서 제재에 드러난 아버지상의 변천:건국기-제7차 교육과정기 초등 국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열린정신인문학연구』7,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127~153면.
- 서미정·이연선, 「들뢰즈 관점에서 본 영유아기 자녀양육경험을 통한 아버지-되어가기의 의미」, 『교육혁신연구』31,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21, 267~295면.
- 탁원정, 「국문 장편소설 <완월회맹연> 속 아버지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韓國古典研究)』4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 5~32면.
- 더 케어 컬렉티브, 정소영 옮김, 『돌봄선언-상호의존 정치학』, 니케북스, 2021.
- 루이지 조야 지음, 이은경 옮김, 『아버지란 무엇인가』, 르네상스, 2009.
-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민주주의』, 박영사, 2021(2판).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이윤기 옮김, 「모세 및 모세의 백성과 유일신교」, 『종교의 기원』, 열린책들, 2013.
-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김석희 역, 「전쟁과 죽음에 대한 고찰」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16.
- R.W. 코넬 지음,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 Virginia Held 저,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윤리: 대안의 도덕이론」,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21.

■ Abstract

Fathers with a Care Sentiment in Oral Folk Tales

Han, Yang H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aspects of fathers with a care sentiment inherent in oral folk tales. From the ages of myths to the modern times, the roles of a father have varied according to social and cultural changes. Young fathers undergoing a process of becoming a father without learning about the status and roles of a father from their real fathers have no other choices but to get lessons about what not to do from their real fathers. The “absence of father” is an important topic in literature research as well as psychoanalysis, being regarded as one of the cultural phenomena in the modern society.

Oral literature is filled with stories in which the sense of authority and the consciousness of family held by fathers are prominent and transmissions in which discriminating perceptions against women are deep-rooted in that it is a product of the patriarchal feudal age. In this sense, an inquiry into the stories of fathers with the caring sentiment in oral folktales will help to change the perceptions of father’s absence in the modern society and discover the modern transmission value of oral folktales.

This study focuses on fathers embodying the caring ethics in oral folktales because of attention to the roles of fathers in the family unit as a plan of practicing caring to escape from the intention of reducing family into the basic caring unit and passing caring duties in the family onto women under the neo-liberal economic system. In caring ethics, all human being experience dependence and are considered as vulnerable dependents. Caring is a moral duty and considers sympathy,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as meaningful emotions. Unlike the old definition of fathers in family as economic supporters and care providers, fathers are also the object of caring. The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caring sentiment in fathers and transmit it.

The study identified tales of “father-daughter” relations with a focus on

“father-child” relations in the aspect of the caring sentiment and the practice of caring. The blood-based patriarchal thinking dominates the “father-son” narratives. In “father-daughter” narrativ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ring sentiment including compassion, taking care of, and expression of desire in three materials including “finding the father,” “saving the father with wisdom” and “protesting.” Stories of “fathers” whose relations with their children are not revealed transmit the ambivalent images between ideal fathers and fathers with sexual desire, thus inducing reflective thinking needed for fathers’ self-care.

The discovery of fathers that have the caring sentiment and practice caring in oral folktales will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father’s identity in the modern society.

Key Word: caring sentiment, practice of caring, “father-daughter,” flexible, compassion, taking care of, laughter, expression of desire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하여

성민경*

목차

1. 들어가며
2.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성격
3.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
4.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는 가족의 화목과 관련하여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 내의 관계 중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척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 가족의 화목이 갖는 허구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교 가부장제 가족이 ‘종법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조선후기 종법의 고도화에 따른 부계 계승 강화 현상이 가족 내 젠더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남성들이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이

* 부산대 여성연구소 전임연구원.

인척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중심에는 인륜의 필연과 가도 융성의 당위에 의한 화목이 자리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로 관계에 대응해야 했던 여성에게는 인륜에 기초한 본연의 애정이라든가 가도의 융성과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는 공허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여성들이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신의 영욕과 자기 수양을 매개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척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 가족의 화목이 갖는 허구성을 내보인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교 가부장제 가족체도에서 유래하는 관념과 유습(遺習)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고찰을 통해 인척 관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현재 관계가 화목하게 보일지라도 혹시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유교 가부장제, 인척 관계, 반소, 김원행, 김호연재, 권구, 한원진

1. 들어가며

대체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 실질적인 생존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제공 받고,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관계 맺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가족이 화목해야 가족의 일,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 타당하게 보인다. 한편 이해타산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을 나누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흔히 “가족 같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맹목적인 사랑을 나누는 화목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어떤 가족이 화목한 가족인지, 가족의 화목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에 대한 문제는 가족의 화목이라는 당위의 무게에 밀려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가족의 형태는 시대별, 지역별로 다르고 그에 따른 가족의 구성 및 가족의 역할이 상이함에 따라 화목한 가족의 모습 역시 천차만별일 것이다. 사실 동시기,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화목한 가족에 대한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최소한 나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는 가족의 화목과 관련하여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 내의 관계 중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에 주목한다. 특히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통해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척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 가족의 화목이 갖는 허구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우선 남성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조선후기에 남성 작가들에 의해 지어진 여훈서(女訓書)¹⁾가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성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남성에 비해 극히 적어서 후한(後漢) 반소(班昭, 45(?)~117(?))의 『여계(女誡)』와 조선후기 김호연재(金浩然齋, 1681~1722)의 『자경편(自警編)』 두 작품에 불과하다. 두 작품을 같이 다루기에는 두 여성이 살았던 나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층차도 크지만, 유교 사상에 기반한 정치제도와 그것을 기저에 둔 유교 가부장제 가족 제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한국 사회의 가족은 ‘핵가족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족을 이루는 근간인 혼인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율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근대의

1) 여훈서는 성리학에 기반하여 여성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나 행위의 규범을 체계적으로 담은 책이다.(성민경, 「女訓書の 편찬과 역사적 전개 :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9, 16면.)

대가족 시스템은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구시대의 유물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거와 생활을 함께하지는 않더라도 인척간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는 명절이 되면 잠복했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본고의 내용은 현재 우리의 가족 갈등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인척 관계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에 대한 정보가 현대 가족의 인척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말의 시사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성격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유교 가부장제 가족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일단 유교 가부장제란 유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의 가족제도의 성격을 범범하게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미와 형태는 각 나라의 정치·경제체제나 신분제도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특성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낱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초기 가부장제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주요 분석 대상 자료들이 분포해 있는 조선의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아봄으로써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아시아 고대의 가부장제는 서주(西周-B.C. 11)의 성립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후 근 10세기에 걸쳐 여러 국가들이 흥망을 거듭한 끝에 고대 가부장제는 한초(漢初-B.C. 2) 통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전유되어 확립되기에 이른다. 주 왕조의 대두와 함께 시작된 남성 중심의 문화가 점점 제도와 관념이 되었고, 한초에 추진된 사상 통일로 ‘유교(儒敎)’와 ‘오경(五經)’으로 확립되어 이론적 체계를 갖춘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

올로기로 자리 잡은 것이다. 가족 윤리를 강조하는 선진(先秦) 유가(儒家)의 학설이 전제 권력과 결합하여 ‘유교’로 전환됨에 따라 강력한 예치(禮治)의 통치원리로 발전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예기(禮記)』이다.²⁾

『예기』는 공자의 제자와 후학들이 기록한 것으로 전국시대와 진한(秦漢)의 유가들의 언설을 집대성한 것으로, 한초에 대성(戴聖)과 대덕(戴德)이 수집·편찬하여 현전하게 되었다. 『예기』의 성립은 전통적인 제도나 습속으로 전해오던 가부장제를 종법주의로 이론화하여 가족 구성원과 신민(臣民)을 통치하는 원리로 재구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기』 「대전(大傳)」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저울과 도량(度量)을 제정하며, 문장을 생각하고, 책력을 고치고, 복색을 바꾸고, 휘호를 다르게 하고, 기계를 다르게 하고, 의복을 구별되게 하는 것은 그 백성과 변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혁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친한 사람을 친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고, 남녀 간에 구별이 있는 것은 그 백성과 변혁할 수 없는 것이다.³⁾

즉 각종 문물과 제도는 현실에 맞게 고칠 수 있지만 전통적 가족 윤리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기』는 남녀유별(男女有別)에 근거하여 성장 과정에서부터 남녀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체계화했고, 음양론에 기반한 가족 윤리 및 가족 내에서의 성 역할론을 집대성하였다. 『예기』에서 논의된 젠더에 관련된 지식은 『예기』가 오경의 하나로

2)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 여이연, 2005, 399~404면 참조.

3) 『禮記』, 「大傳」, “立權度量, 考文章, 改正朔, 易服色, 殊徽號, 異器械, 別衣服, 此其所得與民變革者也. 其不可得變革者則有矣. 親親也, 尊尊也, 長長也, 男女有別, 此其不可得與民變革者也.”(『禮記』의 번역은 『(譯註)禮記集說大全』 시리즈(정병석 역, 學古房, 2017 완역)를 참조하였다. 이하 동일.)

자리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뒷받침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로 재구성되어 동아시아에서 2천 년 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⁴⁾

가족 윤리 및 가족 내에서의 성 역할론과 관련된 『예기』의 젠더 지식은 남녀의 분별과 부부의 도(道), 혼인의 예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전근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전반의 가족 이념 및 가족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⁵⁾ 『예기』의 관련 조목은 『소학(小學)』에 그대로 수용되어 그 영향력을 증폭시켰는데, 방대한 분량의 『예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젠더 지식이 『소학』에 모이면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되었다. 17세기 이후 『소학』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조선의 경우, 대체로 『소학』을 통해 『예기』에서 이론화된 유교적 젠더 지식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⁶⁾

한편 역시 시대별, 국가별로 그 세부에는 차이가 있지만 동아시아 가부장제는 대체로 종법주의를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 고도로 구조화된 부계출계집단을 기초로 한 친족제도를 특징으로 한다.⁷⁾ 즉 조선시대 가부장제는 ‘종법제를 모형으로 한 가부장제’라고 특정할 수 있다. ‘부계적(父系的) 장자상속주의(長子相續主義)’⁸⁾라고 할 수 있는 종법제는 그 자체로 강력한 가부장성을 수반하며, 그 중심에 있는 가족은 부계친을 중심으로 하는 문중 조직으로까지 확대된다. 이 가족의 구성 및 운용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유교주의(성리학)를 원칙으로 한다. 이 유교주의는 국가의 기초를 가(家)에 두어 국가를 확

4) 이숙인, 앞의 책, 407면 참조.

5) 『예기』의 관련 조목에 대한 목록은 성민경, 앞의 논문, 23~29면 참조.

6) 『소학』의 『예기』 인용이 갖는 의미와 주요 대목에 대한 목록은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114~119면 참조.

7)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23면.

8) 이순구, 「朝鮮初期 宗法の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논문, 1994, 17면.

대된 가족으로 여긴다. 그리고 자연 질서와의 유사성으로써 그 질서의 우주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성리학의 정치이념이 가족을 매개로 종법 가부장제의 윤리를 확대하고 상호 보강하는 순환 체계를 성립한다.⁹⁾ 이 순환 체계는 남성이 관직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고 그것에서 주요한 동력을 획득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작동되는 조선시대 가부장제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언급했듯이 그 가족을 운용하는 규칙은 장자를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며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종법’이다. 종법제도는 새롭게 중국을 통일한 주나라에서 전통적인 씨족 제도를 변형시켜 의지와 권력의 조직체인 국가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이다.¹⁰⁾ 『예기』에 그 기본 성격이 제시되어 있다.

별자(別子)가 조(祖)가 되고, 별자를 계승하는 이가 종(宗-大宗)이 되며, 아버지[禰]를 계승하는 이는 소종(小宗)이 된다. 백세(百世)토록 옮기지 않는 宗(大宗)이 있고 오세(五世)가 되면 옮기는 宗(小宗)이 있다. 백세 토록 옮기지 않는 宗은 별자의 후손으로 별자의 출계한 자를 계승하여 宗으로 삼아 백세토록 옮기지 않는 것이며, 고조(高祖)를 계승하여 宗으로 삼는 경우는 五世가 되면 옮기는 것이다. 高祖를 높이기 때문에 宗을 공경하는 것이니, 宗을 공경하는 것은 조상을 높이는 의(義)이다.¹¹⁾

제후의 아들들 중 적장자를 제외한 아들이 별자(別子)이다. 적장자는 제후를 계승하고 별자들은 각각 하나의 대종(大宗)의 시조가 된다. 그리고 그 시조의 적장자들은 시조를 잇는 자들로서 대종이 되며, 이 경우에

9)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禮治'개념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한국여성학회, 1993, 31~35면 참조.

10) 이숙인, 앞의 책, 43~52면 참조.

11) 『禮記』, 「大傳」, “別子爲祖, 繼別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則遷之宗.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別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高祖者, 五世則遷者也. 尊祖故敬宗, 敬宗尊祖之義也.”

는 백세가 지나도록 그 묘를 옮기지 않는다. 소종은 별자의 증자(衆子)로서 아버지를 잇는 종이다. 즉 별자의 적장자는 별자를 계승하여 대종이 되고, 별자의 증자는 대종에서 갈라져 나와 새로 하나의 시조가 되고, 그 적장자가 시조를 계승하여 소종(小宗)을 이룬다. 보통 대종이라고 할 때 시조를 잇는 아들을 가리키거나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친족집단 전체를 뜻하고, 소종은 본인을 포함하여 5대까지의 친족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종법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법의 기본 특징은 강력한 장자상속의 친족체계라고 할 수 있다.¹²⁾ 『예기』 「곡종(曲禮)」에서는 “지자(支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종자(宗子)에게 알린다.”¹³⁾라고 하여 장자의 배타적인 제례 독점권을 분명히 하여 그 권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유교사회에서 제례는 부계계승의 지속성과 신성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재산의 상속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막대하다.

이러한 종법은 주대에 성립된 이후로 진·한 제국에서 군현제가 성립됨에 따라 점차 사라졌다. 한대 이후에도 가계의 계승은 중시되었지만 고대 종법제에서와 같이 사회 체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¹⁴⁾ 그런데 송대(宋代)에 성리학자들이 종법에 기초한 새로운 가족모델을 제시하면서 종법은 다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송대 종법제도의 특징은 소종을 중심으로 운용되었다는 것이다.¹⁵⁾ 고대의 종법은 제후의 분봉(分封)과 관련해서 발달되었으므로 대종이 중심이 되는데, 이미 봉건제도가 소멸된 송대에는 사대부들이 동고조소종집단(同高祖小宗集團)을 중심으로 정치·사회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고자

12) 이순구, 앞의 논문, 12~13면 참조.

13) 『禮記』, 「曲禮」, “支子不祭, 祭必告于宗子.”

14) 이순구, 앞의 논문, 18면.

15) 박연호, 「朝鮮前期 士大夫禮의 변화양상」, 『청계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회, 1990, 182면 참조.

했으므로 종법이 소종을 중심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고대 종법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소종의 입후(立後)’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은 종법이 보다 명분을 중시하며 의리론적으로 되어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¹⁶⁾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종법제도를 모형으로 한 가부장제적 가족-친족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한 것은 고려 성종(成宗) 4년(985)에 오복제도(五服制度)를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고려의 가족-친족 제도에 대해서는 쌍계적(雙系的),¹⁷⁾ 양측적(兩側的),¹⁸⁾ 비부계적(非父系的) 혹은 비가부장제적(非家父長制的)¹⁹⁾인 성격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라시대에 이미 부계제도로서 기틀을 잡은 우리의 친족제도는 고려조에서는 이미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출발하였고, 유교적 친족제도를 모형으로 채택한 후에는 가부장제를 점차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만 고려 말까지도 조선중기 이후의 것과 같은 부계 편중적인 가부장제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이다.²⁰⁾ 즉 우리나라의 종법 가부장제는 고려 이래로 꾸준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조선 건국 이후 일어난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가 친족제도의 유교화와 가계 계승의 부계 편중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종법이 고도화되고 그에 따라 부계 계승이 강화되었던 현상은 당대 가족 내 젠더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가계 계승이 부계로 일원화된 단계적(單系的) 부계친족제도가 완성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시가의 대를 이어 줄 아들을 낳는 수단으로서의

16) 이순구, 앞의 논문, 20~26면 참조.

17) 이수진,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역사학보』 129, 역사학회, 1991.

18) 노명호,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88.

19)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20) 최홍기, 「친족제도의 유교화 과정」,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19~21면 참조.

의미가 보다 강화된다.²¹⁾ 이러한 변화는 조선중기 이후의 족보에 나타나는 여성 배제, 재산상속에서 여성의 권리 약화, 여성의 제례 참여 배제, 상례에서 모계 친족의 복상 등급 격하 등의 양태로 드러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격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여성 인식 또한 변화됨에 따라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유교 가부장제 가족의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

앞서 유교 가부장제 가족이 ‘종법주의’를 특징으로 하며, 조선후기 종법의 고도화에 따른 부계 계승 강화 현상이 가족 내 젠더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주로 조선후기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었는지, 그리고 성별에 따라 어떤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는지 본격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이러한 인간 생산 관계의 위계화는 가부장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 생산된 인간은 남성에게 귀속된다. 이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의 위계화에서 비롯된다. 담론 투쟁의 경우 남자는 씨를, 여자는 밭을 제공하는 것으로 말해져 왔는데, 양쪽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예를 들어 『성경』의 시작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이다. 남성이 성적 권력을 차지함으로써, 인간생산의 결과인 아이는 남성 소유 혹은 남성에 속하는 것이 된다. 즉 남편의 가계로 편입되는 것이다. 여성은 인간생산노동을 하지만 그 생산의 결과는 여성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에게 소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출가의인이 되는 여성들이 그 이전 가족 관계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하게 취급당하거나 많은 기회로부터 소외된다.(고정갑희, 『성이론 : 성관계, 성노동, 성장치』, 도서출판 여이언, 2011, 128~129면 참조.)

1) 남성의 시각 : 인륜과 가도(家道) 융성의 당위에 의한 화목

먼저 조선후기 남성들이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살펴보자. 우선 살필 자료는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서조대가여계후(書曹大家女誡後)」로, 반소의 『여계』에 붙인 발문(跋文)이다. 이 글에서 김원행은 “내가 그 글을 읽어 보니, 의미가 정미하고 내용이 간략하며, 인정과 사태를 살핀 것이 또 매우 분명하고 지극히 꿰뚫히다”²²⁾고 『여계』를 평가하고, “가령 세상의 부녀자들이 정말 잘 배운다면 몸을 정숙하게 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²³⁾이라고 책의 효용을 밝히고 있다. 김원행은 이렇게 『여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글을 시작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여계』에서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몇 가지 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이다.

그렇긴 하지만 내가 그 몇 가지 설에 대해 나름대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 인륜이란 것은 모두 천명의 올바름과 인성의 떳떳함에 뿌리박아 자연스레 그렇게 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버가 자애하는 것과 자식이 효도하는 것과 형이 우애하는 것과 아우가 공손한 것과 남편이 온화하고 부인이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고유한 데 뿌리박아 그 은혜와 의리의 독실함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니, 어찌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는가.²⁴⁾

22)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溪湖集』 권13, “余讀其文焉, 其爲義精爲言約, 其察於人情物態, 又甚明而至切.”(한국고전번역DB의 원문과 번역을 토대로 수정하여 인용. 이하 동일.)

23)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溪湖集』 권13, “使世之爲婦人者, 苟善學焉, 其亦足以淑身宜家, 而有餘裕者矣.”

24)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溪湖集』 권13, “雖然, 余於其數說者, 獨疑焉. 夫人倫者, 皆根於天命之正人性之常, 而自然而然, 非有所私之者也. 故夫父之爲慈, 子之爲孝, 兄之爲友, 弟之爲恭, 夫婦之爲和且順, 是亦根於吾心之固有, 而其恩義之篤, 油然

김원행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인륜의 자연스러움이다. 아버가 자애하고 자식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손한 것, 그리고 남편이 온화하고 부인이 순종하는 ‘인륜’은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그만둘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천명의 올바름과 인성의 떳떳함에 뿌리박아 자연스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원행의 관점에서라면 인간은 누구나 당연히 인륜을 실천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원행은 『여계』의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부분에 의혹을 제기한다.

지금 이 책의 내용에 “남편이 비록 사랑한다고 해도 시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는 이른바 의리가 스스로 깨지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시부모의 마음에 대해 어찌해야겠는가. 실로 자신의 의견을 굽혀 따르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²⁵⁾ 하였고, 또 이르기를, “부인이 남편에게 마음을 얻는 것은 시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시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시동생과 시누이가 자신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말하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 칭찬받고 욕먹는 것이 한결같이 시동생과 시누이에게서 말미암으니, 시동생·시누이의 마음을 더욱 잃어서는 안된다. 만일 정숙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의리에 의거해 우호를 돈독하게 하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후원을 맺어야 할 것이다.”²⁶⁾ 하였다.²⁷⁾

『여계』 자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

生於其中而不能已，豈有所爲而爲哉。”

25) 남편이 …… 없다 : 『여계』 6장 「곡종(曲從)」에 보인다. 이 내용 바로 앞에 “만물이 은혜가 스스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의리가 스스로 깨지는 경우도 있다 (物有以恩自離者，亦有以義自破者也).”라는 구절이 있다.

26) 부인이 …… 것이다 : 『여계』 7장 「화숙매(和叔妹)」에 보인다.

27)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漢湖集』 권13, “今此書之言曰, ‘夫雖云愛, 舅姑云非, 此所謂以義自破者也. 然則舅姑之心奈何. 固莫尙於曲從矣.’ 又曰, ‘婦人之得意於夫主, 由舅姑之愛己也, 舅姑之愛己, 由叔妹之譽己也. 由此言之, 我之臧否毀譽, 一由叔妹, 叔妹之心, 復不可失也. 若淑媛謙順之人, 能依義以篤好, 崇恩以結援.’”

하겠지만, 김원행이 문제시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계』에서 전제하고 있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계』는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듯이, 남편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²⁸⁾라고 하여, 남편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여성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 존재인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시집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이 바로 김원행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

아, 실로 이 말대로라면 이는 사람이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시동생·시누이와 화락하게 지내는 것이 내 마음의 본연의 애정에 근원하여 자신의 직분의 해야 할 바를 다해서가 아니라, 장차 그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본심을 굽히고 따라주어 후원을 맺는다는 것인가. 가령 남편이 자신을 대우하는 데 있어 그 애증(愛憎)이나 후박(厚薄)이 시부모나 시동생·시누이와 상관이 없다면, 이는 시부모에 대해 순종할 필요가 없고 시동생·시누이와 화락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불행히도 가령 그 남편이 또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해 애정이 없다면 자신도 장차 따라서 박하게 대하여 남편의 잘못을 조장하며 남편에게 잘 보이기를 구할 것인가. 아, 어찌면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인가.²⁹⁾

인륜의 보편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김원행에게 떠느
리로서의 여성이 시부모에게 순종하고 시동생·시누이와 화락하게 지내

28) 班昭, 「專心第五」, 『女誡』, “夫者天也. 天固不可逃, 夫固不可離也.”(『여계』의 번역은 王相 編, 이숙인 역주, 『여사서』, 도서출판 여이연, 2003 참조하고 수정하여 인용. 이하 동일.)

29)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溪湖集』 권13, “嗚呼, 誠如是言, 則是人之所以順舅姑和叔妹, 未嘗原吾心本然之愛, 以盡其職之當爲, 而將爲悅其夫之心, 而姑爲是曲從而結援耶. 如使其夫之遇己者, 其愛憎厚薄, 無所與於舅姑叔妹, 則是舅姑不必順, 而叔妹不必和歟. 不幸而使其夫又至無恩於其父母兄弟姊妹, 則吾將從而薄之, 以助其惡而求相媚歟. 嗚呼何其繆也.”

는 일은 마음의 본연한 애정에서 근원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계』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여성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남편과의 의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시동생·시누이와 화락하게 지내는 일 역시 시동생·시누이에게 잘 보여서 칭찬을 얻음으로써 시부모의 사랑을 받아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귀결된다. 김원행은 이러한 논리에 대해 남편의 애정이 매개가 되지 않는다면 시부모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고, 시동생·시누이와 화락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반문한다. 불행히 남편이 그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해 애정이 없다면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똑같이 박하게 대함으로써 남편의 잘못을 조장할 것인지 반문하며 그 어그러진 인식을 개탄한다. 사실 남편이 부모나 형제자매에 대해 애정이 없다면 그 자체로 먼저 인류에 위배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지만 일단 그것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무릇 부인이 남편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출가해서 부부가 되는 의리와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다. 따라서 「내칙(內則)」에서 아들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 섬기는 것을 논하면서, 최선을 다해 효도와 공경을 지극히 하고 최고로 알맞게 봉양하는 데 있어 친부모와 시부모를 모두 똑같이 보고 차이를 두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의 부모가 나의 부모이고 남편의 형제자매가 나의 형제자매이기도 하니, 아껴 주고 측은해하는 것이 분명히 저절로 그러하여 그만둘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이다.³⁰⁾

30) 金元行, <書曹大家女誡後>, 『溪湖集』 권13, “夫婦人之從於夫也, 有外成之義同體之恩. 故內則論子事父母婦事舅姑, 其盡孝敬之至, 極奉養之宜, 皆一視而無所異. 然則夫之父母, 亦我之父母也, 夫之兄弟姊妹, 亦我之兄弟姊妹也, 其恩愛惻怛, 蓋亦必有自然而不容已者也.”

김원행은 최종적으로 경전의 권위를 빌어 주장에 쐐기를 박는다.³¹⁾ “친부모와 시부모를 모두 똑같이 보고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예기』의 내용은 남편의 형제자매와 나의 형제자매가 같다는 것으로까지 확장된다. 그러므로 그들을 아껴 주고 측은해하는 것은 분명 “저절로 그러하여 그만둘 수 없는” 인륜의 자연스러움으로 귀착된다.

이렇듯 김원행은 시부모, 시동생·시누이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근거로 인륜의 당위를 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원행은 조선후기 낙론(洛論)계를 대표하는 산림(山林)으로, 그의 문하에서 많은 성리학자들이 배출되었다. 김원행이라는 인물이 갖는 이러한 배경으로 미루어 볼 때, 「서조대가여계후」에서 드러나는 김원행의 시각은 당대 학술과 문화를 주도하던 남성 지도층의 시각을 어느 정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배 학자들을 통해 그 영향력을 더해 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 작가들에 의해 지어진 여훈서에서 드러나는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겠다.

[1] 형제는 부모의 혈육을 한가지로 나눠 세상에 낳는지라,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오. 부녀의 시동생도 또 내 동생에서 다르지 아니하니 그 사랑

31) 김원행이 근거로 하는 「내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되 새벽에 닭이 처음 울거든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를 빗고 치포건을 쓰고 비녀를 꽂고 상투를 하며, 뺨에 먼지를 털며, 관을 쓰고, 갓끈을 매어 남은 끝을 늘어뜨리며, 현단복을 입고 슬갑을 차고 띠를 매며, 홀을 꽂으며, 좌우에 소용품을 차며, 행전을 매고 신을 신고 끈을 맨다. 머느리가 시부모를 섬기되 친정부모 섬기듯이 하여 닭이 처음 울거든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하며, 머리 빗고 치포건을 쓰고 비녀를 꽂고 상투하며, 옷을 입고 띠를 매며, 좌우에 소용품을 차며, 향주머니를 매고 신에 끈을 맨다(子事父母, 雞初鳴, 咸盥漱, 櫛縱笄總, 拂髦冠綉纓, 端鞞紳, 搢笏. 左右佩用, 左佩紛帨、刀、礪、小觶、金燧, 右佩玦、捍、管、遘、大觶、木燧, 偃, 屨著綦. 婦事舅姑, 如事父母. 雞初鳴, 咸盥漱, 櫛縱, 笄總, 衣紳. 左佩紛帨、刀、礪、小觶、金燧, 右佩箴、管、線、纈, 施鞶帑, 大觶、木燧、衿纓, 綦屨.)”

하기를 내 동생에서 못하게 말지니, 의복을 나눠 입고, 음식을 나눠 먹고, 희로애락을 반드시 한가지로 할지이다. 하물며 시누이는 시부모의 사랑하시는 바라, 만일 화동(和同)치 못하면 나의 미진한 말을 시부모에게 전하나니, 시부모 들으시면 서로 내 자식의 말을 옹계 들으시고 불편한 마음이 나시나니, 만일 그리하면 점점 시부모 날 사랑하시는 마음이 소활(疎闊)하여 내종(乃終)은 정이 상하고 가도(家道)가 그릇되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중략) 또한 동서는 피차 서로 모르던 사람으로 한 집에 들어와 동생지의(同生之誼)를 맺어 한 부모를 섬기고 백 년을 한 집에 있어 우환을 당하여도 한가지로 근심하고, 상척을 당하여도 한가지로 슬퍼하고, 시부모 상고(喪故) 당하여 삼년지상을 한가지로 입는지라. 일로보면 내 동생은 한번 떠나면 피차 일생을 노하여 길흉(吉凶)을 서로 남의 말 듣는 듯하거나와 동서지간은 이렇듯 친밀한지라, 어찌 서로 사랑하며 화목치 아니하리오. 슬프다 세상에 혹 폐악한 부녀는 동서 사이에 서로 시기하여 혹 시부모 저를 더 사랑하는가 의심하고, 혹 분재(分財)할 제 저를 더 주는가 의심하여 없는 흉도 잡아내고 소소한 일도 괴격(乖隔)하여 날마다 싸우기를 일삼고, 각각 가장에게 흉만 전하니 용렬한 가장은 그 말을 옹계 듣고 서로 탄하여 형제간에 불화되어 사사(事事)에 시비(是非)하고 언언(言言)이 괴격하면 집이 망하나니 그 근본을 생각하면 전혀 부녀의 동생불화(同生不和)한 탓이라. 이 어이 남의 동서되는 부녀 더욱 척염(惕念)치 아니하며 조심치 아니하리오.³²⁾

[2] 인가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다들 서로 사랑하다가 나중에 의가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모두 시집온 부인이 집안에 들어와 다른 성(姓)이 서로 모여서 동서지간에 정이 별로 없고 세력에 쫓기는 데서 연유한다. 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줄을 모르고, 세력에 쫓기기 때문에 오로지 서로 이기려고만 힘쓴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기려

32) 權渠, 『言行錄·和兄弟』, 『내정편』(成炳禧 編著, 『民間誠女書』, 형설출판사, 1980, 24-26면에서 인용). 성병희가 편집한 『民間誠女書』는 사대부가에서 한글로 필사되어 전하는 『내정편』, 『여자초학』, 『여계약언』 및 저자 미상의 『규범』과 『여자계행편』을 현대어로 입력한 자료집이다.

고 힘쓰는 뜻을 지니고 있으니,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찌 다시 보살피 줄이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길고 짧음을 다투며 착한 사람을 해치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니, 근거 없는 말이 일어나고 참소와 비방이 은밀함을 좇아 나타나 마침내 미워하는 틈이 생긴다. 미워하여 틈이 벌어진 사람이 형제의 은혜를 재단한다. 형제는 각각 사랑하는 이를 편애하고 각기 들은 바에 빠져서 다시 그 근원을 살피지 않고 그 흐름을 막을 줄 모른다. 그리하여 부부가 한 편이 되어 형제를 서로 미워하여 집안을 분할하고 원수나 적과 같이 미워하는데, 이 모두가 부인들이 한 것이다. 세간의 남자 중에 마음이 강직한 자 몇이나 부인의 미혹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세간에 형제간의 다툼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중략)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집안의 도가 융성하고, 집안의 도가 융성하면 부인들 역시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다. 형제 사이가 어긋나면 집안의 도가 사라지고, 집안의 도가 사라지는데 어찌 부인들만 이익을 보겠는가. 부인들의 영예와 수치는 집안의 도가 융성한가 상실되는가에 달렸고, 집안의 도가 융성한가 상실되는가는 형제간의 화목 여부에 달렸고, 형제간의 화목 여부는 부인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여부에 달렸다. 부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만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중략) 일단 동서지간이 화목하면 형제가 서로 화합하니, 그러면 집안의 도가 융성하고 내 일신 또한 영화로울 것이다. 내가 한번 나를 굽혀서 이를 행하고 성취한 바가 이처럼 대단하다면, 한때 나를 굽힘에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나를 굽힘이 곧 천리와 인사에 당연하고 지극히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찌 진짜 굽히는 것이겠는가.³³⁾

33) 韓元震, <韓氏婦訓·接兄弟姊妹章>, 『南塘集』 권26, “人家兄弟, 其初無不相愛, 其終多有不義者, 皆緣娶婦入門, 異姓相聚, 而姊妹之間, 情踈勢逼. 情踈故不知相愛, 勢逼故專務相勝. 以不愛之情, 挾務勝之志, 則其所相加者, 豈復有所顧藉哉. 是以爭長競短, 伎善侮弱, 造言飛語胥興, 讒謗從微至著, 遂成嫌隙. 以其嫌隙之人, 裁其兄弟之恩. 故爲兄弟者, 各私所愛, 各溺所聞, 不復究察其源, 不知遏塞其流. 而夫婦相右, 兄弟交惡, 分門割戶, 患若賊讐, 此皆婦人之所爲也. 世間男子剛腸者幾人, 能不爲婦人所惑乎. 此其鬩牆之行, 多聞於世也. (중략) 兄弟和則家道隆, 家道隆則婦人亦能同享其福矣. 兄弟乖則家道喪, 家道喪則婦人安得獨蒙其利乎. 婦人之榮辱, 係於家道之隆喪,

[1]은 병곡(屏谷) 권구(權渠, 1627~1749)의 『내정편(內政篇)』이다. 『내정편』은 권구가 안동에서 우거하던 1716~172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후손들 사이에 필사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병곡선조내정편’, ‘병곡선생내정편’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저작이다. 20세기에도 영남 지방에 상당수가 전파되어 있었고 대전 등 기호지방까지 퍼져 있었다고 한다.³⁴⁾ 『내정편』은 집안의 부녀들을 대상으로 지어졌으며, 언해되어 유통되었다.³⁵⁾ 『내정편』 중 <언행록(言行錄)>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우암선생계녀서』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인용한 부분은 <언행록>에서 형제 사이의 화목을 다룬 부분으로, 며느리로서의 여성이 시동생·시누이와 잘 지내야 하며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 동서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권구는 김원행과 마찬가지로 시동생은 나의 동생과 다르지 않음을 당연시하며 내 동생 못지않게 사랑할 것을 주장한다. 시누이에 대해서는 시부모에게 말을 전함으로써 시부모와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잘 지내야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김원행이 『여계』에서 비판했던 내용이다. 『내정편』은 여성을 직접적인 독자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륜의 보편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권구가 보기에 시누이와 잘 지내지 못해서 시누이가 시부모에게 나에 대한 나쁜 말을 전함으로써 시부모의 애정이 소멸해지는 것은 결국 가도가 그릇

家道之隆喪，係於兄弟之和乖，而兄弟之和乖，又繫於婦人之相愛與不愛者。則婦人之相愛，非適愛人也，乃所以自愛也。(중략) 娣姒既睦，兄弟相和，則家道隆而吾身亦有榮矣。我一屈己爲此，而所就若是其盛，則其屈於一時者，何足恤乎。而其屈也，乃天理人事之所當然而至善者，則又豈眞爲屈哉。”

34) 권寧徹, 『閨房歌詞研究』, 二友出版社, 1980, 215면 참조.

35) 권縵, <詳記謹書>, 『屏谷集』 권9, “又述婦人奉率治家之法, 翻譯作書, 節目詳備, 以授家中婦女, 名曰『內政篇』.”

되는 두려운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시가의 형제로 매개되는 동서와도 화목하게 지낼 것을 강조하는데, 그 근거로 한집에 들어와 한 부모를 섬기고 우환을 함께하며 시부모의 상고에 있어 삼 년 동안 상복을 함께 입는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각자 다른 배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출가로 인해 한 집안에 모이게 된 며느리들의 사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삼 년 동안 상복을 함께 입기 때문에 친밀하며 화목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계친을 기준으로 상복의 등급을 정함으로써 종법적 가부장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오복제에 의해 관념적으로 규정된 친소관계를 통해 거꾸로 실제 친소를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지간의 불화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당대의 실상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며 권구가 제시하는 동서 간의 화목은 이상적 지향일 뿐일 수도 있음을 추정케 한다.

시동생과 시누이, 그리고 동서들과의 불화의 귀결은 가도를 그르쳐서 집이 망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역할 이외에 어떠한 사회적 지위도 갖기 어려웠고 가정의 태두리를 벗어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심했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집이 망한다는 것은 여성에게 보다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권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부녀가 동생불화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가정의 화목에 대한 책임을 부녀들에게 온전히 지우고 있다. 인척간의 화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인척간의 불화로 인해 집이 망하게 되는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부녀가 어떤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주장은 더욱 문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가도가 융성해야 한다는 것, 적어도 집안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의 당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도 마찬가지로이다. [2]는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한씨부훈(韓氏婦訓)』으로, 한원진이 시집간 누이의 부탁에 의해 1712년에

지는 여훈서이다.³⁶⁾ 『한씨부훈』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용문은 「접형제제사장(接兄弟娣姒章)」으로, 형제와 동서를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다. 『한씨부훈』은 일상적 의무의 세세한 실천방식을 제시하는 대신 자신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무 이행의 당위에 대한 관념적인 설득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원진은 동서지간에 화목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로 인해 형제간의 의가 상하게 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분석한다. 다른 성이 모였다는 것은 각기 다른 집안에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였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로 정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동서지간의 불화가 형제지간의 불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한원진의 분석인데, 그러나 애초에 형제간의 의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모를 일이기에 “이 모두가 부인들이 한 짓”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원인을 부인들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원진은 일단 이러한 자신의 분석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동서지간이 화목하면 형제지간도 화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본디 의가 굳건한 형제 사이라면 동서지간의 화목 여부가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

36) 한원진이 “이 책은 이미 누이에게 보여주었고, 나도 이로써 스스로 경계할 것이며, 일가친척과 자손들에게도 장차 나누어주려고 한다. 장독 덮개로 쓰는 헌 종이 신세를 면하고 삼가 보존될 수 있다면, 실로 백 세대가 지나도록 우리 집안의 다행이겠다(余亦因以自警, 而又將廣之一家, 垂之子孫. 如得免爲覆甌之故紙而謹守之, 則實吾家百世之幸也).”(『韓氏婦訓并序』, 『南塘集』 권26)라고 했듯이 『한씨부훈』은 일차적으로 누이를 대상으로 했고, 나아가 집안 여성들을 염두에 둔 저작이었다. 그런데 1874년에 金平默(1819~1891)이 쓴 발문이 붙어 있는 軌印寫本 『한씨부훈』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 20761] 발문에서 김평묵은 이 책이 閨房의 經으로서 어려서 어머니가 『한씨부훈』의 언해본을 誦服하시던 것을 기억하는데, 『남당집』의 것과 비교해보니 선생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했다. 또 친구 申聖澹이 精譯하여 그 뜻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이 책이 집안의 경계를 넘어 언해되고 유포되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규장각 해제 참조.)

위와 같은 논리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한원진이 동서지간의 화목을 형제간의 화목과 직결시키고 있는 기저에는 역시 가도 용성의 당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자리한다.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로 이어지는 유교적 보편론의 자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선후기 사대부에게 가도의 용성은 가장(家長)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에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원진이 주장하는 가도의 용성을 위한 형제간의 화목과 그것을 좌우하는 동서지간의 화목은 기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한원진은 집안의 도가 용성하면 부인들 역시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말로 부인들을 회유하고 있다. 『한씨부훈』은 『내정편』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직접적인 독자로 상정하고 있는 여훈서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과 가도의 용성을 위해 여성이 복무하도록 직접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굽혀서” 가능한 동서지간의 화목과 그것을 통한 가도의 용성은 “천리와 인사에 당연하고 지극히 선한 것”으로서 여성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사대부 남성이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중심에는 인륜의 필연과 가도 용성의 당위에 의한 화목이 자리하고 있었다. 김원행은 당대 여성 교육에 널리 사용되었던 텍스트에서 우려되는 부분에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인척 관계에 있어 가족 내 여성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을 표명했고, 권구와 한원진은 직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훈서를 통해 가도의 용성이라는 당위를 위해 여성들이 마땅히 인척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함을 역설했다. 조선후기 남성들의 이러한 시각은 17세기 중엽 이후 결혼 후 거주지 형태가 부처제(婦處制)에서 부처제(夫處制)로 바뀌면서 시집살이가 본격화된 현실을 반영하며,³⁷⁾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도록 기대되었던 역할의

37) 사실 여훈서 자체가 시집살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민경, 앞의 논문, 103~111면 참조.

일면을 보여준다.

2) 여성의 시각 : 일신의 영욕과 자기 수양의 매개

이제 절을 바꾸어서 여성들이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살펴보자. 먼저 살펴볼 자료는 앞서 김원행의 비판을 받았던 반소의 『여계』이다. 『여계』는 전한(前漢)에 편찬된 유향(劉向, B.C. 77(?)~B.C. 6(?))의 『열녀전(列女傳)』과 함께 2000여 년 동안 여성의 삶을 다룬 책 중 이 두 책의 체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없다는 평가³⁸⁾를 받을 정도로 동아시아 여훈서의 시원이 되는 저작이다.³⁹⁾ 『여계』는 반소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여러 딸들이 시집가서 부인이 지켜야 할 예를 몰라 다른 가문의 체면을 잃게 하고, 자기 집안을 수치스럽게 할까 두려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저술한 것이다.

『여계』는 「비약(卑弱)」, 「부부(夫婦)」, 「경순(敬順)」, 「부행(婦行)」, 「전심(專心)」, 「곡종(曲從)」, 「화숙매(和叔妹)」의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약」은 낮고 유약한 존재라는 여성에 대한 정의, 「부부」·「경순」·「부행」·「전심」은 여성으로서 기본적으로 견지해야 할 태도와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행동 지침, 「곡종」은 시부모를 모시는 도리, 「화숙매」는 남편의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이미 서문에서 밝힌 바 있고, 구성과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여계』는 일종의

38) 진동원, 송정화·최수경 역,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박이정, 2005, 79면.

39) 『열녀전』이 전기체(傳記體) 여훈서의 전범이라면 반소의 『여계』는 고계체(告誡體) 여훈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다.

강현경은 여훈서의 표현형식을 ‘傳記體 女性教誡’, ‘告誡體 女性教誡’, ‘告誡와 傳記 병용의 女性教誡’, ‘詩歌體 女性教誡’, ‘書簡體 女性教誡’로 분류했다.(姜賢敬, 『中韓女誡文學之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博士論文, 1990.) 가케히쿠미코(筧久美子)는 ‘덕목설교형’, ‘인물설화형’으로 대별하였다.(『中國の女訓と日本の女訓』, 『日本女性史 3 近世』, 東京大學出版會, 1982.)

시집살이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계』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종속된 존재로 여성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절대적 존재인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부모를 잘 봉양해야 하며 시집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에 앞서 각종 집안일과 제사 모시기는 당연히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할 의무로 자리한다. 즉 『여계』는 반소의 의도가 어떠한 간에, 유교 가부장제가 짜 놓은 가족구조 속에 여성을 복무시키고 그러한 구조를 효과적으로 재생산해나가기 위한 여성의 역할을 관철시키는 일종의 성장치⁴⁰⁾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계』에서 가족 내 인척 관계에 대한 반소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화숙매」이다.

부인이 남편의 뜻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시부모가 나를 아끼기 때문이다. 시부모가 나를 아끼는 것은 시동생과 시누이가 나를 칭찬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볼 때, 나의 선악이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것은 오로지 시동생과 시누이에게서 연유하기 때문에 거듭 시동생과 시누이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시동생과 시누이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들과 사이 좋게 지냄으로써 부모의 마음을 얻는 것에 실패하니, 그 어리석음이여!⁴¹⁾

김원행의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부분이다. 앞서 인용한 “남편은 하늘이다. 하늘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듯이, 남편을 절대로 떠날 수

40) 고정갑희가 제안한 개념이다. 성적 위계, 성적 억압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기존의 여성/남성 주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동원되는 장치를 이른다.(고정갑희, 「성장치와 여성주의 문화론-구분하기, 가로지르지, 바꾸어내기」, 『여/성이론』 2, 도서출판 여이연, 2000, 16면.)

41) 班昭, 「和叔妹第七」, 『女誡』, “婦人之得意於夫主, 由舅姑之愛已也. 舅姑之愛已, 由叔妹之譽已也. 由此言之, 我臧否譽毀, 一由叔妹, 叔妹之心, 復不可失也. 皆莫知叔妹之不可失, 而不能和之以求親, 其蔽也哉!”

없다.”에 이어지는 말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여헌』에 이르기를, ‘남편 한 사람의 뜻을 얻으면 종신토록 화합할 수 있고, 남편 한 사람의 뜻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은 반드시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⁴²⁾ 『여사서(女四書)』를 편찬한 청(淸) 왕상(王相, 1662~1772)의 주석에 의하면, 『여헌』은 왕상 당대에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문헌이었다. 반소는 『여헌』의 말을 인용하여 반드시 남편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반소의 전제는 명확하다. 그것은 시집살이의 성패가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부모의 마음을 얻고, 시부모가 나를 아끼게 하기 위해 시동생·시누이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일련의 주장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여 시동생·시누이와 잘 지내지 못함으로써 시부모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시동생과 시누이는 나와 같은 항렬이지만 남편의 동기이므로 신분은 더 높고, 정은 멀지만 도리로 보아 친해야 한다. 현명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도리를 명분으로 삼아 좋아하는 감정을 두텁게 쌓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감정을 키워 원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널리 드러내고 결점을 숨겨주어 시부모는 며느리의 착함을 자랑하며, 남편은 좋은 점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게 된다. 소문이 인근에 퍼지고 그 영광이 친정 부모에게까지 전달된다.⁴³⁾

이어서 반소는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서술한다. 시동생·시누이와 맺는 관계의 본질은 정은 멀지만 도리상으로는 친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42) 班昭, 「專心第五」, 『女誡』, “故女憲曰, ‘得意一人, 是謂永畢, 失意一人, 是謂永訖.’ 由斯言之, 夫不可不求其心.”

43) 班昭, 「和叔妹第七」, 『女誡』, “夫叔妹者, 體敵而尊, 恩疏而義親. 若淑媛謙順之人, 則能依義以篤好, 崇恩以結援. 使徽美顯章, 而瑕過隱塞, 舅姑矜善, 而夫主嘉美, 聲譽曜于邑鄰, 休光延於父母.”

다. 정이 멀기 때문에 ‘도리’를 명분으로 삼지 않으면 좋아하는 감정을 도탑게 쌓기 어려운 관계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원조’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나의 아름다움을 널리 드러내 주고 결점을 숨겨줌으로써 시부모에게 잘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시부모는 며느리의 선함을 자랑하게 되고, 남편은 좋은 점을 아름답게 여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가 시집살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에 퍼져 그것이 친정 부모에게까지 전달되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인 경우에는 시동생에게 자신이 형수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높이고, 시누이에게는 남편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힘으로 여겨 교만하게 군다.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굴면서 어떻게 서로 화합할 수 있겠는가? 정과 의리가 이미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칭찬이 이르겠는가? 때문에 좋은 점은 숨기고 허물은 드러낼 것이며, 시어머니는 화내고 남편은 분노하여 험뜯는 소리가 안팎으로 퍼지게 되어, 욕됨이 그 자신에게 모이게 된다. 나아가서는 친정 부모에게 치욕을 가중시키고, 들어와서는 남편에게 누를 끼친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나 치욕이나를 결정하는 근본이고, 칭찬받느냐 비난받느냐를 결정하는 기초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시동생과 시누이의 마음을 얻는 데는 진실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⁴⁴⁾

시동생·시누이와 잘 지냄으로써 시부모의 칭찬을 받아 남편의 마음을 얻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형수라는 지위와 남편의 총애를 믿고 그들에게 교만하게 구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나의 선악이 어떠한지 간에 그들은 좋은 점을 숨기고 허물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면

44) 班昭, 『和叔妹第七』, 『女誡』, “若夫愆愚之人, 於叔則託名以自高, 於妹則因寵以驕盈. 驕盈既施, 何和之有? 恩義既乖, 何譽之臻? 是以美隱而過宣, 姑忿而夫慍, 毀譽布於中外, 恥辱集于厥身. 進增父母之羞, 退益君子之累. 斯乃榮辱之本, 而顯否之基也, 可不慎哉? 然則求叔妹之心, 固莫尚於謙順矣.”

실질과는 상관없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안 좋은 소문이 안팎으로 퍼져서 나의 욕됨은 물론 밖으로는 친정 부모에게 까지 치욕을 더하고, 안으로는 남편에게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만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내부적으로 시부모·남편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외부적으로 친정의 명예를 좌우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일신의 영욕에 다름 아니다. 시동생·시누이와의 원만한 관계는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이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반소가 『여계』 첫머리에서부터 강조했던 겸양과 공경, 그리고 순종이다.⁴⁵⁾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반소는 가족 내의 인척 관계, 특히 시동생·시누이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관계는 일차적으로 좋고 나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욕을 판가름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것이다. 반소는 그 관계에서 본연의 애정은 애초에 생겨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결국 그것이 일신의 영욕을 결정 짓는 매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남성의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보여주며, 관계에 실제로 임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침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이어서 김호연재의 『자경편』에 드러나는 인척 관계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자. 『자경편』은 조선후기에 민간에서 여성에 의해 지어진 최초의 여훈서이다. 『자경편』은 사대부가의 여성이 경전이나 역사서의 인용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한 여훈서라는 점에서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저작이다.

45) 班昭, 「卑弱第一」, 『女誡』, “謙讓恭敬, 先人後己, 有善莫名, 有惡莫辭, 忍辱含垢, 常若畏懼, 是謂卑弱下人也。”; 「敬順第三」, “然則修身莫若敬, 避彊莫若順. 故曰敬順之道, 婦人之大禮也.”

김호연재는 김성달(金盛達, 1642~1696)의 딸이고, 소대헌(小大軒) 송요화(宋堯和, 1682~1764)의 부인이다. 호연재의 친가는 우의정을 지낸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이며 시가 역시 좌참찬을 역임한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의 후손으로 친가와 시가 모두 당대 손꼽히는 명문이었다. 『자경편』이 지어진 것은 1710년 무렵으로⁴⁶⁾ 사대부 여훈서⁴⁷⁾의 발생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18세기 초, 호연재의 주변에서 당시 발생 초기에 있던 사대부 여훈서가 활발하게 지어진다.⁴⁸⁾ 『자경편』은 성리학적 여성규범이 여성의 일상을 체계적이고 미시적으로 규제해나가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규범을 수용하고 일상에서 실천해야 했던 여성의 입장에서 저술된 여훈서인 것이다.

『자경편』은 이름에서 ‘스스로 경계함[自警]’을 표방하고 있지만 애초에 지배문자인 한문으로 지어졌고, 이후의 유통과정으로 볼 때 저자가 유통의 가능성을 암암리에 의도하거나 적어도 의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최초의 한문본은 일실되고 언해본만 전해지던 상태에서

46) 金浩然齋, 『自警編』, “여러 형들이 외람되게 내 몸을 명문 귀족에게 부탁하여 출가한 후로 지금까지 십여 년에 이르렀다(諸兄猥托其身于名門貴宅, 自于歸今至十餘年).”(송창준 譯, 『浩然齋遺稿』, 향지문화사, 1995, 163면 참조.) 『自警編』의 인용은 이 책에 실린 영인본을 대본으로 했고, 번역을 참조하여 수정했다. 김호연재가 시집간 해가 1700년이므로 『자경편』은 출가한 지 십여 년이 지난 1710년경에 저술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김호연재의 생애에 대해서는 박무영, 「김호연재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참조.

47) 사대부 여훈서란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주로 양반 사대부인 작자가 집안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여훈서를 지칭한다.(성민경, 앞의 논문, 60면.)

48) 시집인 은진 송씨 집안은 17세기에 이미 『우암계녀서』가 지어지고 유통되었던 집안이며, 호연재의 시당질인 송명흠은 한글 여훈서 『閨鑑』을 저술했다. 친정과 가까운 교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인물들에 의해서도 각종 여훈서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한원진의 『한씨부훈』(1712), 魚有鳳의 『風雅閨誦』(1737)을 들 수 있다.

49) 박무영, 「호연재 『자경편』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학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211~212면 참조.

외손자 김종걸(金鐘杰)이 언해본을 다시 한역한 것이 현전하는 『자경편』이다.⁵⁰⁾ 이렇듯 『자경편』은 자신에 대한 경계를 바탕으로 두고 타인을 향한 규범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부 여훈서와 달리 그 성격이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일반적인 부훈(婦訓)과 독자적인 시각의 두 가지 관점을 교묘하게 교직하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⁵¹⁾ 그래서 『자경편』의 내용은 각 장의 이름으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층위를 포함하고 있다.⁵²⁾

『자경편』의 구성은 「정심(正心)」, 「부부(夫婦)」, 「효친(孝親)」, 「자수(自修)」, 「신언(慎言)」, 「계투(戒妬)」로 목차 상으로는 통상의 여훈서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자경편』의 이러한 구성은 사대부 여훈서에 비해 소략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대부 여훈서에서 절대 빠뜨리지 않고 다루는 여성의 덕과 의무인 유순정정(柔順貞靜)한 태도, 사부모 구고(事父母舅姑), 신언(慎言), 봉제사(奉祭祀), 사부(事夫), 돈목(敦睦), 화형제(和兄弟), 교자(教子), 어비복(御婢僕), 접빈객(接賓客), 길쌈 등은 「정심」에서 간단히 언급하고,⁵³⁾ ‘부부관계’, ‘부모 모시기’, ‘인척들 과

50) 金鍾杰, 『自警編跋』, 『浩然齋遺稿』, “또 이 편의 말은 유독 부녀에게만 법도가 될 바가 아니라, 곧 마음을 침착하게 생각하여 깊이 찾으면 또한 장부에게도 경계가 될 것이 많을 것이므로, 종걸이 삼가 그 말을 번역하고 기록해서 내외 자제들로 하여금 다 상세히 보게 하였다. 자구의 사이에 제멋대로 말을 부연하거나 축약해서 넣지 않은 이유는 혹 문장을 숭상하다가 본뜻에 어긋나게 되는 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抑此篇之言, 不獨婦女之所可儀, 則潛心玩索, 亦多爲戒於丈夫者, 鐘杰謹爲繅錄其辭, 欲令內外子姓咸得詳觀. 而字句之間不敢妄有增損者, 懼或尚詞藻而違失本旨也.)” 이러한 언급을 통해 볼 때, 현전하는 『자경편』은 호연재의 원의를 충실히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51) 박무영, 앞의 논문, 219면 참조.

52) 자세한 내용은 성민경, 앞의 논문, 172~173면 참조.

53) 「正心章第一」, 『自警編』, “凡女子之德, 以清靜柔順貞肅爲貴. 顏色宜溫和, 執志宜清快, 持身宜莊嚴, 出言宜忠信, 孝以事親, 悌以事長, 誠懿以奉祭祀, 順貞以事丈夫, 化洽以待宗黨, 仁愛以友兄弟, 教子以義方, 御下以恩惠, 潔飲食以待賓客, 勤織紉, 無怠其職, 身之所處, 必令蠲潔, 不視邪色, 不聽淫聲, 但以仁義爲德, 禮樂修行, 令聞于隣

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룸으로써 혼인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문제에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장의 구성은 “규훈서의 외피를 유지하면서도 서언에서 표명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저술 동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식”⁵⁴⁾이다. 그리고 『자경편』의 서술은 그 비중을 따진다면 규훈서의 외피에 걸맞는 규범적 진술들이 위주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호연재는 개인의 개성적 목소리를 규범적 진술 사이에 교직시켜 놓아 “마치 씨줄과 날줄을 다른 색의 실로 짠 천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이는 효과”⁵⁵⁾를 불러일으킨다.

『자경편』의 서두는 시집살이로 인한 내면의 고통을 진술하게 보여준다.

자모(慈母)의 어루만져 가르쳐주심을 받지 못하여 부인의 행실을 대강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 형들이 외람되게 내 몸을 명문 귀족에게 부탁하여 출가한 것이 지금 십여 년에 이르렀다. 시부모를 봉양하되 성효가 천박하였고, 남편을 대우하되 예모가 어긋났고, 자식을 가르치되 교화가 서지 않았으며, 종들을 부리되 상벌이 분명치 못하였고, 진퇴와 주선의 모든 행실이 규범에 어긋났고, 사람과 사물을 대할 때에도 예의를 알지 못하여 사람들의 원망이 나에게 몰렸다. 과실을 자초한 것으로 인하여 아래로는 그 몸이 위태로워졌고, 위로는 부모에게 욕을 끼쳐드려서 자나 깨나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 능히 하루도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잠시 이것을 기록하여 스스로 ~하고자 한다.⁵⁶⁾

里，則雖曰女子，不亦美乎?”

54) 박무영, 앞의 논문, 218면.

55) 박무영, 앞의 논문, 223면. 『자경편』의 교직적 서술방식이 갖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는 박무영의 논문 219~224면에 자세하다.

56) 『自警編』 서두, “曾未承慈母之撫教，不能略知婦人之行。諸兄猥托其身于名門貴宅，自于歸今至十餘年。奉舅姑而誠孝淺薄，待君子而禮貌齟齬，誨子而教化不立，御僕而賞罰不明，進退周旋，違越規矩，待人接物，不知禮義，人怨歸于身。過失由於自取，下而其身危殆，上而貽羞于父母，夙夜憂懼，不能一日而安。遂暫記此，欲以自□□□□

호연재 자신이 평가하는 지난 십 년간의 시집살이는 결코 성공적이지 못했다. 사우고, 경군자(敬君子), 교자녀, 어비복 등 조선 후기 사대 부가(士大夫家) 안방마님에게 기대할 법한 모든 덕목들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스스로가 느끼는 그러한 역부족은 시집에 거처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친정 부모에게까지 욕을 끼치는 것으로, 자나 깨나 걱정되어 두렵고 단 하루도 편안히 지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문헌이 훼손되어 『자경편』 저술의 의도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시집살이의 간난신고가 저술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시집살이의 고통을 불러오는 주요한 한 요인은 바로 인척 관계이다. 호연재는 인척 관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부인은 도(道)가 좁아 봉우의 사귀이 있지 않다. 그런데 남편의 친척은 명목상으로는 ‘친(親)’이나 정은 소원하고, 은혜는 박하고 의리는 두터워 대략 봉우의 도와 비슷하다. 그러나 봉우는 선하면 오래토록 그 믿음을 지키고, 불선하면 하루아침에 끊어버려 스스로 욕되지 말게 하여야 한다. 하지만 부인의 도는 그렇지 않아서, 착한 사람을 만나면 의기투합하고 친하게 지내며 충신토록 화목해야 하고, 혹 불선하더라도 또한 버리고 끊는 의가 없어, 다만 마땅히 그 덕의를 펴고 은혜와 사랑을 돈독히 하여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아야 할 따름이다.⁵⁷⁾

남편의 친척은 이름만 ‘친’일 뿐 정은 소원하고, 은혜는 박하지만 의리는 두터운 봉우와 비슷한 관계이다. 봉우의 도는 그가 불선하다면 끊어버릴 수 있지만 부인의 도는 그렇지 않다. 운 좋게 착한 사람을 만나

也.”(“□”는 원본이 훼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57) 『自修章第四』, 『自警編』, “婦人狹道, 未有朋友之交. 而其於夫家親戚, 名親而情疎, 恩薄而義重, 略似乎朋友之道. 然而朋友, 善則長守其信, 不善則一朝絕之, 毋自辱焉. 婦道則不然, 遇人之善, 固當志合情親, 終身和睦, 雖或不善, 亦無棄絕之義, 只當布其德意, 篤其恩愛, 不露其中情而已.”

면 의기투합해서 종신토록 화목할 수 있지만 불선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덕의를 펴고 은혜와 사랑을 돈독히 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혼인과 동시에 이질적인 공간으로 편입되어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당연하며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당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사대부 여훈서들은 대체로 며느리가 시댁의 가족 구성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여성의 편협한 성정 탓으로 돌리면서, 시댁의 규칙에 대한 여성의 무조건적인 순응을 중용했다.⁵⁸⁾ 호연재는 친해야 하는 당위와 친해지기 어려운 현실 간의 괴리를 직면하며, 강요된 친목이 인척 관계에 내재한 고통의 본질임을 드러낸다.

위와 같이 호연재는 인척 관계에 대해 억지로라도 화합해야 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늘은 오행이 없으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오상(五常)을 잃으면 자립하지 못한다. 여자는 비록 시서(詩書)에 능통할 수는 없지만, 부녀의 맑은 규범의 일단이 있다면, 그 일용 백사에 한갓 이욕을 위주로 하는 것을 비록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태연히 여러 사람들을 대하여 어짊을 자처하니, 이것은 금수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부모가 낳아 길러 주신 은혜를 입고 명문에서 성장하였으니, 어찌 변변찮게 금수의 무리와 더불어 장단을 다투겠는가? 다만 몸을 닦고 덕을 길러 오로지 그 행실을 다스려야 하니, 비록 짝 막히고 아는 것이 없는 류가 끝내 깨닫지 못하는 바가 있더라도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마땅히 스스로 그 도리를 다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비록 나를 저버린다고 해도 내가

58) 자세한 내용은 성민경, 앞의 논문, 148~149면 참조.

차마 그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고 의롭지 못한 금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이 다섯 가지를 힘써 행하더라도 혹 혈기의 분함을 참지 못하여 불신한 사람들과 똑같아질까 두려울 따름이다. 진실로 자신에게 허물이 없으면 비록 남에게 모함을 받아서 거함이 항상 편하지 않더라도, 우러러 푸른 하늘을 보더라도 병통이 없을 터이니, 참으로 즐겁지 않겠는가? 삼가고 삼가 남이 저버림을 한하지 말고 자나 깨나 나의 덕이 미진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라⁵⁹⁾

호연재는 “모함을 받아 거함이 항상 편하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직접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용문의 행간에 드러나는 호연재의 솔직한 심정은 자신에게 모함을 가하는 인척들을 ‘금수’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호연재는 시집살이를 잘 수행해내야만 하는 당대의 현실에서 자신을 둘러싼 이러한 적대적인 무리들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에 대한 인정과 수용은 그것을 자기 수양의 발판으로 삼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들과 나를 철저히 분리하고, 그들이 나를 저버리더라도 나는 차마 그들을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금수처럼 되지 않기를 도모한다. 중국에는 자신에게 허물이 없게 하고, 자나 깨나 나의 덕이 미진함을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자기 수양의 매개로 인척 관계를 전환시키고 있다. 그래서 호연재는 인척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장의 이름이 “자수

59) 『自修章第四』, 『自警編』, “天無五行, 則不能成化, 人無五常, 則不能自立. 女子雖不能通曉詩書, 苟有一端婦女之清範, 則其於日用百事, 徒以利慾爲主者, 人雖不知, 能不愧於天日, 而晏然對衆, 自以爲賢, 是則與禽獸無異矣. 雖是女子之身, 蒙父母生長之恩, 而生長於名門, 寧可碌碌與禽獸之徒爭長競短乎? 但當修身養德, 專治其行, 雖有不通無識之類, 終不覺悟, 非吾所知, 惟當自盡其道而已. 人雖負我, 我不忍負人者, 誠非爲人而然, 不欲吾之無信不義, 與禽獸爲一故也. …(중략)… 力行此五者, 懼或不忍血氣之忿, 而與不善之人同歸而已. 苟能身無愆尤, 則雖或爲人所陷, 居常不安, 仰視蒼天而不疚, 則不亦樂乎? 愼之愼之, 毋恨人之有負, 而夙夜憂懼於己德之未盡也.”

(自修)”로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시각에서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토록 남성과는 다른 것이었다. 시집살이는 시가의 가풍을 배워서 가족 성원으로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시원적(始原的)인 종속의 요인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인척들과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기란 난망한 일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인류에 기초한 본연의 애정이라든가 가도의 용성과 같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가치는 실제로 관계에 대응해야 했던 여성에게는 공허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여성들에게 인척 관계가 갖는 의미는 일신의 영욕을 매개하는 아주 실질적인 무엇이거나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어떻게든 포용하기 위해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을 수양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무엇이었던 것이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척 관계를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인류의 보편성과 가도 용성의 당위라는 조선후기 사대부로서 절실했을 가치의 실현을 기반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실제 이 관계에서 남성들이 설정한 위계와 배치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기도했던 바의 ‘화목’은 염두에 둘 여지가 없었고, 일신의 영욕과 자기 수양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의미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차이는 전근대 유교 가부장제 가족에서 인척간의 화합을 전제로 한 가족의 화목이 갖는 허구성을 내보인다. 특히 김호연재의 진술한 서술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모르는 가족의 이면에 누군가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

본고의 고찰은 주로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유교 가부장제 가족제도에서 유래하는 관념과 유습(遺習)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측면에서 현재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인척 관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현재 관계가 화목하게 보일지라도 혹시 그것이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자료>

『禮記』(<https://ctext.org/zh>).

權榘, 『내정편』(成炳禧 編著, 『民間誠女書』, 형설출판사, 1980).

權榘, 『屏谷集』.

金元行, 『溪湖集』(<https://db.itkc.or.kr/>).

金浩然齋, 『自警編』(송창준 譯, 『浩然齋遺稿』, 향지문화사, 1995).

班昭, 『女誡』(<https://ctext.org/zh>).

韓元震, 『南塘集』(<https://db.itkc.or.kr/>).

<논저>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고정갑희, 「성장치와 여성주의 문화론-구분하기, 가로지르지, 바꾸어내기」, 『여/성이론』 2, 도서출판 여이연, 2000, 8~31면.

權寧徹, 『閨房歌詞研究』, 二友出版社, 1980.

김혜숙, 「조선시대의 권력과 성-『禮治』개념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9, 한국여성학회, 1993, 30~51면.

박무영, 「호연재 「자경편」의 서술방식과 여성문학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1, 209~250면.

- 박연호, 「朝鮮前期 士大夫禮의 변화양상」, 『청계사학』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학회, 1990, 171~221면.
- 성민경, 「女訓書의 편찬과 역사적 전개 : 조선시대~근대전환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도서출판 여이연, 2005.
- 이순구,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女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최홍기, 「친족제도의 유교화 과정」,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19~21면.
-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한국의 유교화 과정』, 너머북스, 2013.
- 진동원, 송정화·최수경 역,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도서출판 박이정, 2005.

■ Abstract

On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perspectives on relatives by marriage in Confucian patriarchal families

Sung, Min Kyung

In relation to family reconcili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relationship established through marriage among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based on the pre-modern Confucian patriarchy. In particular, through the differences in the perspectives of men and women who view in-laws, I would like to evoke the awareness of the falsehood of family reconcili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reconciliation between relatives by marriage in pre-modern Confucian patriarchal families. Firs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iscussion, it was examined that the Confucian patriarchal family was characterized by ‘clan rules’, and that the strengthening of paternal succession following the advancement of the clan rul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ynamics of gender within the family. Based on this background knowledg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thoughts men had about relatives by marriage within the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at the center of their notions about relatives by marriage, the necessity of humanity and the right to prosperity in the consciousness of the family were reconciled. On the other hand, for women who had to actually deal with relationships, ideological and abstract values such as natural affection based on humanity and the prosperity of the family were nothing more than an empty cause. The women’s view of relatives by marriage had practical meanings as mediating the lust of self and self-discipline. This stark difference reveals the fictional nature of family reconciliation based on the premise of reconciliation between relatives by marriage in pre-modern Confucian patriarchal families. Through the review of this paper, we can recognize the essence of relatives by marriage and acknowledge each other’s differences based on it,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back at whether the current relationship is based on someone’s sacrifice, even if it looks harmonious.

Key Ward : Confucian patriarchal, relatives by marriage, Ban Zhao(班昭), Kim Wonhaeng(金元行), Kim Ho-yeon-jae(金浩然齋), Gwongu(權渠), Han Won-jin(韓元震)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世居)와 문학적 전승

이재숙*

목차

1. 서론
2. 면천 덕수 이씨 세거지의 연원
3. 가족의 문학적 전승과 영향
4. 결론

■ 국문초록

한 가족이 오랜 세월 한 지역을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자손을 위해서 신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대대로 세거한 집안의 인물과 그 지역 연고를 들여다보면 이는 한 가문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지역 학맥과 문화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충남 당진은 우리 문학사에서 조선 당대 명망 있는 문인들이 꽤 많이 배출된 곳이다. 본고는 당진 면천지역을 터전으로 덕수 이씨 가문이 이곳에 대대로 거주하며 20대 500여 년의 세거지로 정착한 연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덕수 이씨 일족의 터전을 정한 이는 성종조의 문인 연현공 이의무이며 이후, 용재 이행, 동악 이안눌과 택당 이식, 목곡 이기진까지 면천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루어진 가족의 공감과 문학적 전승에 대한 회포 등을 살펴 보았다. 15세기 성종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시문을 통해 살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해보면 덕수 이씨 가문은 당진 면천에 세거지가 있었으므로 홍주 목사로 나아가 역임한 인연이 많았고, 2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포 지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남겨놓은 작품에는 선조에 대한 가문의 자긍심과 존모의 정을 표현한 것 이외에도 가문의 훌륭한 유풍과 전통을 계승하려했던 후손들의 의지와 경외심이 여실히 표출되어 있다.

문학적 명망을 계승하려는 의지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불우·곤경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부지할 수 있는 안분지족과 초연한 삶의 자세를 계승하려는 정신적 가치의 전승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화, 탈가족화 되는 현대 사회에 가족과 가문에 대한 긍정적 가치 전승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이의무(李宜茂), 이행(李荇), 연현공(蓮軒公), 용재(容齋), 덕수 이씨, 당진, 면천, 택당(澤堂) 이식(李植), 목곡(牧谷) 이기진(李箕鎭)

1. 머리말

한 가족이 오랜 세월 한 지역을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자손을 위해서 신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대대로 세거한 집안의 인물과 그 지역 연고를 들여다보면 이는 한 가문의 가족사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맥과 문화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충남 당진은 우리 문학사에서 조선의 명망 있는 문인들이 꽤 많이 배출된 곳이다. 특히 당진의 면천은 조선시대 여러 문인들이 많은 문헌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서해안 일대의 명승과 특별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지은 것들이 많다. 당진은 조선 선조대의 성리학자 송익필, 이지함 등의 학자가 거주하였고 조선 후기 연암 박지원이 면천 군수로 근무하며 『면양잡록(沔陽雜錄)』을 남겼으며,

김윤식은 1887년부터 1894년까지 면천으로 유배 와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를 남겼다. 면천은 충청도 홍주목에 속한 현으로서 걸출한 문인과 시인들이 홍주 목사로 나아갈 것을 자청하여 때로는 혼란한 정치 현실과 시끄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비교적 한가한 관직에 머물며 바다의 절경을 즐기고 산수 유람을 꿈꾸는 지역이기도 하였다.¹⁾

본고는 당진 면천지역을 터전으로 덕수 이씨 일족과 후손들이 이곳에 대대로 거주하며 20대 500여 년의 세거지로 정착한 연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 집성촌과 세거지를 형성한 경우 각 지역마다 특별한 배경과 연고가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본고에서 살펴보는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의 의미는 한문학의 사적 전개에 있어서 문학적 전승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에 이를 작품의 실제와 함께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대 문학 작품을 통해 표출되는 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존모의 정, 가족의 훌륭한 문학적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지와 고민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탈전통화, 초개인화 되어가는 현대 가족의 모습과 대비해 고전 속에 드러나는 가족의 의미와 문학적 전승의 가치를 되새김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 면천 덕수 이씨 세거지의 연원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 산79-1에는 덕수 이씨 가문 묘역으로 이의무 및 용재 이행을 비롯하여 약 13기의 가족묘가 있는데, 한 가문의 묘역으로는 제법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곳 당진 면천 일대에 덕수 이씨 일족의 터전을 정한 이는 성종 조의 문인 연헌공 이의

1) 줄고, 「漢文學에 투영된 洪州의 문화적 위상 고찰」, 『한문학논집』 36집, 2013. 131~152면.

무이다. 이의무(1449~1507)의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형지(馨之), 호는 연현(蓮軒)이다. 이의무는 성종조에 문과에 세 차례나 장원을 차지하고, 홍문관교리 및 이조정랑을 거쳐 사가독서를 하고 사간원에 들어가 사간을 역임하였다.²⁾ 그가 맡은 직책을 살펴볼 때 문학과 언론의 일을 도맡았으며 성종조에서 그 문재가 출중하고 문학비평에도 뛰어났던 인물이다. 이는 그가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그밖에 『동문선』·『동국여지승람』·『동국통감』·『강목집람』 등의 편찬에 모두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성종대에 사람들이 종장(宗匠)으로 추앙했다고 한다.³⁾ 그는 성종조부터 연산군 초까지 순탄한 벼슬생활을 영위하였으나 연산군 2년부터 생애 말년까지 사화를 겪으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1498년(연산군4)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평안도(平安道) 어천역(魚川驛)에 유배되었고, 다시 1년 뒤에 풀려나 경기도 장단(長湍) 동강(東江)의 농막에 은거하였으며,⁴⁾ 1502년 이후 정치가 날로 혼란해지는 것을 보고 관료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외직을 자청하여 1504년에 홍주 목사로 나아갔다.

다음은 용재가 쓴 부친 이의무의 행장이다.

- 2) 주세붕, <大匡輔國崇祿大夫……世子傳李公行狀>, 《용재집》, 한국문집총간 20권, 291a면, …(전략)考諱宜茂, 字馨之, 號蓮軒, 天質醇正, 接物以誠, 無甚愛憎, 不妄言笑, 未有邊幅, 豁如也, 擢丁酉科, 成廟方銳意文治, 試文士于闕庭, 連居三魁, 特命授弘文館校理, 歷爲吏曹正郎, 躋憲府, 至執義, 躡玉堂, 至應教, 入薇垣, 爲司諫. …(후략)
- 3) 李植, <蓮軒公宜茂>, 『덕수이씨세계열전』, 덕수이씨 제9간 세보간행위원회, 2001. p.63, …爲文詞, 操紙立書, 略不經意而機杼自成, 又善品題, 士林推爲宗匠, 持卷軸取正者, 躡門而莫不如意, 朝廷有事文翰, 必屬公爲僚, 東文選·輿地勝覽·東國通鑑·綱目輯覽, 皆所預撰. …(후략)…
- 4) 이형, 《蓮軒雜稿》,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事, 行通訓大夫, 洪州牧使李府君行狀> 한국문집총간 15권, 350a면, …(전략)…戊午秋, 史獄起, 追論在諫院與同列上疏請復昭陵事, 杖配平安道魚川驛, 役一歲, 己未秋, 免放, 退居于長湍東江之田墅. …(후략)…

무오년(1498) 이래로 더욱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즐겨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또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가는 것을 보고 외직에 근무하기를 힘써 구하였다. 갑자년(1504) 가을 홍주 목사로 나아갔다. 당시 조정이 이미 문란하여 부세에 근거가 없이 문서 장부를 사방에서 모아, 여러 고을이 바람을 탄 듯 다투어 각박하게 하며 오직 뒤질까 두려워하였다. 선군께서는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내가 죄를 얻을지라도 백성을 가혹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로써 일을 아주 늦게 처리하는 일이 많아 기일에 맞추지 못하였다. 연산군이 노하여 불러들여 하옥하고 태장의 형벌을 내렸는데, 선군께서는 조금도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세금 거두는 것을 더욱 느슨하게 하여 온 고을이 평안히 생업할 수 있게 되었고 폐정은 심해지지 않았다.

...(중략)...선군께서 일찍이 면천군에 오셔서, 창택리 장자동을 보시고 좋아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서는 여기에서 늙고, 죽어서는 여기에 묻히리라”라고 하셨다. 이에 장자동 유좌 묘향의 언덕에 장사지냈다.⁵⁾

위 글에 의하면 연헌공 이의무는 무오사화 이후 중앙의 관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홍주 목사 외직을 자청하였다. 56세의 나이에 홍주 목사로 부임한 이의무는 연산군의 학정에 순응하지 않다가 형벌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홍주로 부임한 이후 여러 곳을 둘러보다가 당진의 면천 지역을 발견하고 자신이 은거할 곳으로 마음먹고 이곳에서 생을 마치려 했다. 여기에서 이의무가 면천 일대를 자신의 말년의 은거지로 택한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서해안 일대 내포(內浦)는 화려한 경관과 서울 경기와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으로 서울

5) 이행, 위의 글, …(전략)…自戊午年來, 益不樂京師, 又見國事日非, 力求補外, 甲子秋, 出爲洪州牧使, 時朝政已紊, 徭斂無藝, 簿責四集, 列郡承風, 競務刻剝, 惟恐後, 先君歎曰, 寧我得罪, 民不可虐, 以是, 事多稽緩不及期, 燕山主怒, 徵下獄罰答, 先君不少悔懟, 益緩之, 一境賴以安業, 弊政不加焉, 今上卽位之明年丁卯, 命問諸道牧民卓異者以聞, 忠清道觀察使孫公澍, 以狀白曰, 洪州牧使李宜茂, 廉平寬簡, 彫瘵之餘, 民賴蘇息, 上嘉之, 下書褒美, 賜表裏一襲以寵異之…(중략)…先君嘗至沔川郡, 觀倉澤里長者洞而樂之曰, 生吾老於斯, 死吾葬於斯, 至是, 葬于洞之西坐卯向之原.

의 권세가 집안들이 별서(別墅)를 두거나 전답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도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다.⁶⁾”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내포는 우선 가야산을 경계로 위치한 앞뒤 여러 고을을 지칭하는데, 이곳은 서해의 바다가 육지로 들어온 지형적 특성과 먹거리 등의 물산이 풍부하다. 이에 부유한 사람이 많고 사대부들 중에 대대로 세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의 군현 개념으로 보면 매우 넓은 지역에 해당하고 당시 홍주 진영에 속한 ‘서천.면천.서산.태안.온양.평택.홍산.덕산.청양.남포.비인.결성.보령.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등 18개 군현까지 넓은 의미에서 내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바닷가 인근 지역은 풍광이 좋아 많은 문인들이 유람하며 이 지역을 배경으로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⁷⁾

이러한 지역적 풍요로움과 특성을 살펴보면 이의무 역시 자신뿐 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한 세거지로서 면천의 창택촌을 둘러보고 “살아서는 여기에서 늙고, 죽어서는 여기에 묻히리라”라고 정한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서해안 내포 역시 우리에게 좋은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 열망을 갖게 하는 명승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덕수 이씨 세거지와 묘역은 송산면 도문리에 위치하는데, 이곳을 예로부터 ‘능안’이라고 지칭하였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담이 전한다.

예로부터 지금의 삼월리와 도문리 일대에는 왕릉 자리로 쓸 만한 명당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조정에서 이 소문을 듣고 풍수지리에 능한 명사를 파견해 왕릉 자리를 찾게 했다. 조정의 명을 받은 명사는 지금의 기지시리에 위치한 구릉에 올라 산세를 두루 살폈고 그 결과 명당인 지금의 능안을 발견했다. 풍수지리에 능한 명사가 명당 지금의 능안을

6) 이중환, 《택리지》, 팔도총론 충청도조, “忠淸則, 內浦爲上.”

7) 줄고, 「內浦지역 누정문학 연구-충청수영의 영보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34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285면~317면.

찾아왔으나 도착하고 나니 그제야 이곳은 이미 덕수 이씨 가문의 묘역으로 정해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덕수 이씨의 선조와 친분이 깊은 관계였던 명사는 지금의 능안이 명당임을 알면서도 산의 형세를 일부러 명당이 아닌 것처럼 그려 조정에 보고했고, 이곳은 그대로 덕수 이씨 가문의 묘역이 되었다. 이후 이곳의 지명을 ‘능[왕릉]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능안’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⁸⁾

위의 내용은 덕수 이씨 세거지의 묘역을 ‘능안’이라고 부르게 된 연원을 소개하고 있는 민간 전설이다. 원래 ‘능’은 왕릉뿐만 아니라 시골의 백성들이 높은 벼슬을 지낸 이의 묘를 일컫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우리나라의 지명 중에는 ‘능안’이라고 부르는 곳이 종종 있다. 위에서 말한 내용은 민간에 내려오는 전설에 해당하고, 사실상 ‘능안’의 명칭은 능의 안쪽 ‘능내(陵內)’를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실제 이름은 ‘도문리(道門里)’인데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친지(親知)들을 초청하여 베푸는 자축연(自祝宴)인 도문연(到門宴)의 ‘도문(到門)’에서 유래 된 것이다. 이곳을 예로부터 도문골, 도문(道門)으로 지칭하였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은 조선 전기의 이의무 이래 덕수 이씨 가문에서 훌륭한 인재가 지속해서 많이 나온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실제 이의무의 다섯 아들 중 첫째 아들 이권(李權, 1467~?)은 함경도 병마절도사를 지냈고, 둘째 이기(李芑, 1476~1553)는 영의정, 셋째 이행(李荇, 1478~1534)은 좌의정, 넷째 이영(李榮, 1481~1546)은 평해 군수, 다섯째 이미(李薇, 1484~?)는 예조 판서와 한성 판윤을 지냈다. 다섯 아들 모두 문과 또는 무과에 급제를 하였고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이의무가 터전을 잡은 당대뿐 만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 면천의 덕수 이씨의 후손들이 매우 번성하였다.

면천 일대의 덕수 이씨 세거지와 도문리 능안 마을은 이의무가 터를

8) 덕수이씨 용재공과 간행, 『능안 傳記』 참조, 디지털 당진문화대전 참조.

정한 이래로 “살아서는 여기에서 늙고, 죽어서는 여기에 묻히리라”라는 부친의 뜻을 받들어 용재 이행이 부친을 장사지낸 후 지금까지 덕수 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면천 송산면 일대에 덕수 이씨가 세거지를 정하게 된 연유와 관련하여 지역 백성들과의 일화가 전한다. 1507년(중종2)에 용재가 부친의 병환에 문후 차 갔었다. 당시 면천의 장자동은 노씨(盧氏)의 집성촌이었는데, 화재로 인해 온 마을이 타버린 상태였다. 생계가 막막해진 이재민들은 마침 그곳을 찾아온 용재에게 구원을 간청하였고, 용재가 이 일대를 후하게 값을 쳐주고 매입하여 송산면 일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⁹⁾ 그해 12월에 부친 이의무가 세상을 떠났는데 용재는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이곳에 장사지냈고, 3년 뒤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연달아 부모의 상이 있었으니 용재 이행은 5·6년 동안 면천 창택촌에 머물러 부모상에 예를 다하였다.

면천 창택촌에 은거하려 했던 이의무는 귀전원의 생활을 안타깝게도 오래 누리지 못했으나, “죽어서는 여기에 묻히리라”라고 했던 바람은 이룬 것이다. 아울러 이의무가 면천군 창택리를 보고 그곳에 터를 잡아 거주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들 이행은 이후에도 이곳에 오래 머물며 선영을 보살피며 보존하였고 걸출한 문장가였던 두 사람의 유허에 많은 문인들의 발자취가 이어졌다. 성종조의 뛰어난 문인으로서 추앙받던 이의무에서 비롯된 문학적 명맥은 덕수 이씨 가문의 용재 이행, 동악 이안눌, 택당 이식의 후손들이 계승하였고, 향토 문화뿐 만아니라 이 지역을 유람하는 후대 여러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다만 한 집안이 세거한 터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당진 면천 및 내포지역 문화의 형성과 사적 전승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덕수이씨 용재공과 간행, 『능안 傳記』 참조.

3. 가족의 문학적 전승과 영향

면천 지역 덕수 이씨 세거의 연원은 이의무로부터 비롯되었고, 이후 용재 이행이 가문의 터전을 공고히 했다. 이후 면천 근교에 동악 이안눌이 은거하였고 택당 이식과 조선 후기 목곡 이기진 역시 홍주에 목사로 역임하면서 가문의 터전에 대한 애착과 선조에 대한 존모의 마음을 한 시에 남겼다. 본 장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까지 한 가족의 세거지를 매개로 가문의 문학적 전승에 대한 흔적을 연결지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용재 이행은 부친 이의무와 마찬가지로, 연산·중종조에 사화를 세 번이나 겪고 여러 차례 유배를 겪으며 순탄치 않은 관료생활을 하였다. 1507년(중종2) 홍문관 응교 재직 시 12월에 부친상을 당해 사직하고 면천에 내려왔다. 용재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불우한 시대에 순탄치 않았던 삶이 부친과 닮은 점이 많다. 그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겪고 혹독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노비신분으로 격하되어 양을 치는 노역까지 겪었다. 18세에 과거에 급제한 이후 20여 년의 관료기는 용재에게 안정적이기보다는 굴곡 많고 시련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부친이 사화로 인해 멀리 북쪽 평안도에 유배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용재가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홍주관아에서 부친의 환갑연을 열었다. 1506년 겨울, 이의무가 홍주 목사를 맡고 있을 당시 환갑을 맞게 되었다. 이에 그의 다섯 아들이 홍주 관아에서 수연(壽宴)을 베푼 일¹⁰⁾이 있다. 곧 이의무의 환갑을 기념하여 홍주 관아에서 다섯 아들이 효도 잔치를 벌인 것이다. 다음은 환갑잔치의 주인공인 이의무가 당시 감회를 기록한 시이다. 이때 이의무는 홍주 목사였고, 충청도 관찰사 손주

10) 이안눌, 《東岳集》 권7, <八月初一日, 除洪州牧使, 五峯相公垂賀以詩, 次韻奉謝, 兼述感懷>, 한국문집총간 78권, 92b면. 원주, 高王父蓮軒先生, 弘治甲子秋, 出牧洪州. 正德丙寅冬, 曾祖五昆季設壽宴于州館, 記事有詩.

(孫澍)¹¹⁾도 손님으로 초대받아 자리를 빛냈다.

<병인년(1506, 중종1) 겨울에 아들 이행이 와서 홍주 임소에서 영친연을 열었다. 자리에서 관찰사 손주의 시의 운자를 사용하여 용재와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차운하게 하다[丙寅冬 子行來設榮親宴于洪州任所 席上用觀察使孫公澍韻 令子行輩次之]>

이의무

내 신세 영광과 오욕 함께 있어 자주 놀라	身世頻驚寵辱兼
흰 머리의 마음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 같구나	白頭心緒似風帟
오늘 축수의 술잔 은혜와 영화 겹쳤으니	壽觴今日恩榮重
취한 후 실컷 호탕함 스스로 싫지 않구나	醉後豪狂不自嫌 ¹²⁾

1506년 이의무의 셋째 아들인 용재 이행은 1월에 거제도에 유배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가을에 다시 끌려가 장형을 받았다. 희망이 없이 좌절하던 시련이 있었으나 그해 9월에 중종이 즉위하여 사면을 받고 풀려났다. 이행은 중종 즉위 후 곧바로 홍문관 교리로 소환되었고 이어 부응교가 되었으며, 문장의 명성이 뛰어났기에 사가독서를 하는 총애를 받았다. 사화로 인해 거듭된 유배와 고생이 심했던 몇 해를 보내고 12월 홍주 관아에서 부친의 환갑잔치를 열게 된 것이다. 위 시는 이의무가 평생 동안 영육이 함께 한 자신의 삶의 회고하며 자신의 환갑잔치에서의 감격을 읊은 것이다. 이의무 역시 연산조의 사화를 겪었고 아들의 생사고락을 곁에서 지켜본 뒤에 맞은 환갑이었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음을 짐작해볼 만하다. 또 아들 이행이 지은 다음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11) 손주(孫澍) : ?~1539. 조선 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기묘사화(己卯土禍) 때 남곤(南袞)·심정(沈貞) 등과 함께 조광조(趙光祖) 등 신진사류의 처벌에 가담하였으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을 지냈다.
12) 이의무, 《蓮軒雜稿》 권2, 한국문집총간 15권, 334c면.

<홍주에서 벼풀어진 수연에서 관찰사 손주의 시에 차운하다[洪州設壽筵 次觀察使孫公澗韻]>

이행

평생 하기 어려운 일 하루에 겹쳤나니	百年難必一朝兼
장막 밖에 푸른 깃발 주막집 깃발인 듯	帳外靑旗亦酒帘
비 올 듯 구름 짙으나 비는 오지 않으니	欲雨密雲族不雨
관찰사께선 잔치 마치도록 싫어하지 않으리	使華終宴未應嫌 ¹³⁾

이 시는 이행이 위에서 소개한 부친 이의무의 수연에서 함께 지은 것이다. 이의무의 시와 같은 운으로 지어 평생 하기 어려운 일을 했다고 표현하며 기쁨의 소회를 서술하였다. 연산조의 암울한 시대를 만나 자신들의 포부를 펴지 못하고 정치적 좌절을 겪었던 부자가 유배에서 풀려나 만났으니, 그들의 감격스러운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섯 아들이 모두 함께 참석한 수연이었으니 온갖 시련을 겪은 뒤 가족들의 감격스러운 만남이자 기쁨의 자리였다. 이에 이 잔치는 덕수 이씨 가문에 오랫동안 회자되는 특별한 행사로 기록된다.

이 일이 있던 1년 후 용재는 부친상을 당했고, 1511년(중종6) 9월에는 모친상을 당하였다. 부친의 삼년상이 끝날 무렵 다시 모친상을 당했으니 용재는 거의 5·6년 동안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결국 용재는 30세까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중종조 36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¹⁴⁾

그러던 중 용재는 1518년(중종 13) 1월에 병으로 사직하고 면천의 창택촌에 우거하면서 자호를 창택어수(滄澤漁叟)라고 하였다.¹⁵⁾ “창택촌의 늙은 어부”라고 자호한 용재는 이곳에서 속세를 벗어나 유유자적하

13) 이행, 《용재집》 권1, 340a면.

14) 줄고,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5) 주세붕, 《용재집》, <大匡輔國崇祿大夫……子傅李公行狀>, 한국문집총간 20권, 291a, 九月, 降授僉知中樞府事, 公怡然笑曰, 一身進退, 豈可苟乎, 歸守桑梓, 以終餘年, 是吾志也, 翌日, 匹馬南歸, 僑居于沔川之滄澤村, 自號滄澤漁叟.

며 곡절 많은 자신의 삶의 회고하고 관조적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 용재 이행은 부친이 면천 창택촌을 노년의 은거지로 선택한 이후부터 이곳 일대를 오갔기 때문에, 당진 면천과는 매우 인연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은 용재가 1515년 대사헌을 역임할 당시 면천 객사를 중수할 때 지은 것이다.

<면천객사중수기(泗川客舍 重修記)>

윤후(尹侯)가 면천(泗川)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군(郡)의 관사(官舍) 중 퇴락한 것을 중창하고는, 이윽고 나에게 그 기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이 군의 사람이라 사양하였으나 부득이하여 삼가 그 전말을 다음과 같이 쓰노라. 면천이란 고을은 백제 때 처음 세워져 혜군(攄郡)이라 불리다가 신라가 통일한 뒤에 혜성(攄城)이라 고쳐 불리웠으며, 고려 때에 이르러서는 면주(泗州)가 되었고, 본조(本朝)에 들어와서 비로소 지금 이름으로 정해졌다. 바닷가라 물산이 풍요하고 인구가 많아서 실로 한 도의 큰 고을이다. 그런데 관사를 지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어언 백여 년이 되어 위로는 물이 새고 아래로는 벽이 허물어져 좌로 우로 버팀목을 대어야 할 판국이라서, 사명(使命)을 받든 신하가 오면 거의 들어갈 곳이 없었으므로 온 군의 사람들이 큰 문제로 여겨왔다.

후(侯)가 처음 부임하여 군을 두루 둘러보고는 서글픈 어투로 “이 어찌 군을 다스리는 자의 수치가 아니리오.” 하였다. 이에 쓸데없는 경비를 없애고 관청의 비용을 줄여 바다로 목재를 수송하고 그 땅의 흙으로 기와를 구워 얼마간의 시일이 걸려서야 준비를 끝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퇴락한 관사에서 지붕과 대들보를 새로 바꾸니, 동헌(東軒)이 모두 10칸이고 중방(中房)이 모두 6칸이고 남헌(南軒) 또한 6칸이며, 주방·무기고(武器庫)·문루(門樓)·측간에 이르기까지 모두 보수하지 않은 것이 없되, 시기를 넘기지 않고 공사를 마쳐 백성들이 스스로 수고롭다 하지 않고 서로 객사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였다. ...중략...정덕(正德) 을해년(1515, 중종10) 6월 중순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지제교(知製敎) 이모(李某)는 기(記)하노라.¹⁶⁾

면천은 동쪽으로는 홍주와 17리이고, 남쪽으로는 덕산현 경계까지 12리이며, 서쪽으로는 당진현 경계까지 13리이다. 서울과의 거리는 3백 75리이다. 면천은 홍주목과 가까운 내포로서 홍주와 더불어 역사적인 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고장이다. 무엇보다 조선후기까지 문인들의 시문을 살펴보면, 사적 연원은 조선 전기 이의무를 빼놓을 수 없다. 아울러 용재가 부친의 옛집을 더 확장하여 선영을 살피고 은거한 것도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

용재는 면천의 창택촌으로 돌아와 은거를 결심하고 여러 정치적 시비와 부당한 현실에서 벗어나 자적함을 추구하였다. 1517년(중종12) 9월, 창택촌에 머물면서 주변의 일상을 기록하며 시를 짓고 《창택록(滄澤錄)》을 남겼다. 원래 삼월리 52번지에 용재 고택이 있었으나 이미 허물어졌고 용재가 이곳에 내려와 집을 지으며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하여 심었다고 전해지는 회화나무가 있다.¹⁷⁾

용재는 주로 창택촌의 집 뒷산 백주봉에 자주 올라 정쟁의 시비를 잊고 초연하게 지냈다. 창택촌에서 은거할 때 용재의 생활상을 살펴보면 검소하고 매우 소탈했던 모양이다. 당시 생계가 몹시 궁핍한 용재에게 백형(伯兄)이 곡식 200섬을 주자 용재는 “제가 만약 굶주린다면 형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곡식을 가져다 먹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끝내 한 섬도 받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다.¹⁸⁾ 또한 당시 이조판서였던 한세환(韓

16) 이행, 《용재집》 권9, <沔川客舍重修記> 513a면, 尹侯莅沔之越三歲, 乃重搆郡舍之頽毀者, 既而, 徵余文記之, 余, 郡人也, 辭不獲已, 謹敢識其顛末曰, 沔之爲邑, 自百濟始, 號曰樞郡, 新羅統合, 改稱樞城, 至高麗, 爲沔州, 入本朝, 始定今名, 瀕海之饒, 生齒之夥, 實一道鉅邑, 館舍之棚, 越今已百有餘年, 上漏下墜, 左支右撐, 使命之至, 殆無所容庇, 一郡以爲病, 侯始下車之初, 周視慨然曰, 此豈非爲郡者之恥乎, 於是, 去浮費, 節官用, 浮海輸材, 因土陶瓦, 積以日月, 事乃克集, 遂就其頽毀者, 乃易棟宇而新之, 東軒凡十楹, 中房凡六楹, 南軒亦六楹, 至於庖廡兵庫門樓溷舍, 靡不繕修, 役不踰時, 而工已斷手, 民不自爲勞, 而相與慶其成, …중략…正德乙亥六月中旬,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 知製教李某, 記.

17) 이 회화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世桓, 1470~1522)은 용재와 함께 연산조 별시에서 합격한 사이여서 친분이 있었다. 한세환의 전답이 면천 근처에 있어서 그의 노복으로 하여금 전답에서 수확하는 곡식 절반을 용재 집으로 보내게 하였다고 한다.¹⁹⁾ 그가 면천에서 은거하며 지은 시 17수가 《창택록》에 실려 있다. 대체로 이 시들은 세상의 시비를 잊고 자적하려는 뜻이 많이 보인다. 당시에 불안한 정치 현실과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 용재는 의연한 태도로서 홀로 자적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실에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처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안분(安分)하는 그의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은데 또한 사화를 겪은 부친 이의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동악 이안눌의 당진 지역 연고와 영향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안눌은 이행의 증손으로 예조 판서를 지냈으며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을 추증한 공으로 당진 정미면 사관리를 사패지(賜牌地)로 받았다. 이 때문에 묘소와 신도비가 사관리에 있다. 1706년 동악 이안눌을 배향한 동악 서원이 송산면 명산리[서원머리]에 세워졌고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에 의하여 폐쇄되었다.

이안눌은 37세인 1607년에 홍주 목사가 되었고 4개월여 역임하였다. 비교적 짧게 홍주 목사를 지냈으나 연헌공 이의무와 용재 이행의 세거지에 연원을 두고 자주 왕래하였다. 1620년에는 생모인 이씨 부인의 상을 당하여 3년간 면천에서 여묘 살이를 하였고, 1622년 6월 보름에는 면천에 새로 서재를 짓기도 하였다. 이때 지은 서재 이름이 곧 추설재(秋雪齋)이다. 새로 서재를 짓고 가을 한때를 머물렀다.²⁰⁾

18) 주세붕, 앞의 글 <행장>, 公不事生產, 初寓沔川也, 伯兄節度公, 聞公窘乏, 與之穀二百斛, 公曰, 我若飢, 不待兄之見許而取食, 終不取一斛.

19) 이행, <資憲大夫吏曹判書兼五衛都總府都總管 贈諡恭簡韓公碑銘>, 539a면, 김안로, 《龍泉談寂記》 참조. 용재는 한세환의 묘비명을 지었는데 용재의 아들이 한세환의 사위이다.

20) 이안눌, 《동악집》 권7, <六月十五日> 286a면, 소주에 “壬戌六月之望, 余與仲氏及諸姪, 聚飲於沔川鄉墅, 時余新構書齋, 駐過一秋故云.”라고 하였다.

이안눌은 20대를 전란 속에서 보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22세였고 7년 동안 가족과 함께 함경도 덕원, 이원, 홍원, 단천 등을 전전하며 피난을 다니기도 하였다. 1595년에야 한성에 돌아왔고, 1599년 과거 급제 후 평생 각 지방을 전전하며 외관직에 주로 머물렀다. 그가 각 지역을 전전하는 목민관을 지낸 것은 당대의 정치적 혼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²¹⁾ 그는 전란 중의 여러 고을을 지나며 피폐해진 참상을 읊기도 하면서 처참한 상황을 시편에 많이 남기고 있다. 이후 본격적인 관료생활을 한 1599년 이후에는 피난을 다녔던 북쪽 벼슬을 애써 구하고, 또 제주목사 등을 자청하기도 하였다. 젊은 시절 전쟁의 체험과 정치적으로 순탄치 못했던 삶은 그의 시세계에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세상의 공명과 벼슬에는 뜻이 없고, 공명을 배척하는 심경을 많은 시에 토로하기도 하였다. 1624년 3월에는 이괄의 난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하옥되었다가 특명으로 함경도 경성부(鏡城府)로 유배되었고, 1625년 3월, 홍천(洪川)으로 옮긴 뒤, 1627년 1월에야 사면되어 면천으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57세였다. 이후 1633년 63세 6월에 사직하고 다시 면천으로 돌아오게 된다. 1년 후 공청 감사(公淸監司) 겸 도순찰사(都巡察使)가 되었으나, 이후 벼슬에 뜻을 버리고 면천에 은거하였다.

이안눌은 증조인 이행, 외증조인 박은 등에 대해서 항상 집안 선조의 문장력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²²⁾ 특히 용재의 시에 차운한 시가 많고 덕수 이씨 가문의 시재와 문학적 역량을 이어받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문학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대업을 잇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였다. 1607년 홍주 목사로 임명된 후

21) 동악에 대한 연구로는 김상일, 「동악 이안눌의 시세계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8. 참조.

22) 이안눌, 《동악집》 권7, <題永保亭>, 95d면, 소주에 “高王父蓮軒公記枝, 揭在楣上外曾祖挹翠軒近體五首, 膾炙于世.”라고 하였다.

오봉 이호민이 축하의 시를 보내오자, 이에 감사하며 차운한 시에 “홍양은 선대가 물려주신 유물이거늘, 수연의 자리에 당시 다섯 형제 열지었다네[洪陽況是青氈物, 壽席當時列五常]”²³⁾라고 하며 앞에서 언급한 이의무의 수연을 떠올리며 선대에서부터 인연을 맺은 홍주 목사의 관직과 문학적 전승에 대해 읊었다. 동약은 이렇듯 여러 시에서 선조들이 제영한 시를 들어 선조의 문학적 역량을 자랑스러워하였다. 자신의 재주가 모자랄까 부끄럽다고 다음과 같이 자책하기도 하였다.

<동현에 제하다[題東軒]>

이안눌

높은 성곽의 사방으로 바위가 우뚝한데	高城四面石崔嵬
열아홉 관 가운데 큰 진영이 펼쳐졌네	十九官中大鎮開
금마천은 푸른 바다의 물굽이와 통하고	金馬川通滄海曲
가야산은 흰 구름 모퉁이에서 끊겼네	伽倻山斷白雲隈
강평공과 연현 고조가 부절 받고 다스렸던 곳	康翁蓮祖分符地
정사룡과 소세양이 발자취를 이어 왔지	鄭老蘇仙接踵來
칠 대에 한 집안에서 세 번 목사를 지냈으니	七世一家三作牧
짧은 글 훌륭한 재주 모자라 도리어 부끄럽네	短篇還愧乏雄才 ²⁴⁾

이 시는 1607년(선조40) 초가을에 지은 작품으로, 이안눌이 홍주 목사로 부임해 와서 이곳을 거쳐 간 역대의 시인들과 선조들의 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 그에 미치지 못하다는 겸양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위 5구에서 강평공은 덕수 이씨 6대조 이명신(李明晨, 1392~1459)을 가리킨다. 이명신은 1455년(세조1) 여름에 홍주 목사에 임명되었고 이의무는 1504년에 홍주 목사에 임명되었다. 6구는 1529년에 호음(湖陰) 정사룡(鄭士

23) 이안눌, 《동약집》 권7, <八月初一日, 除洪州牧使, 五峯相公垂賀以詩, 次韻奉謝, 兼述感懷>95d면.

24) 이안눌, 《동약집》 권7, <題東軒>, 93b면.

龍)이, 1532년 양곡(陽谷) 소세양(蘇世讓)이 홍주 목사가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여하튼 자신까지 7대를 거치는 동안 덕수 이씨 가문에서 세 명이 홍주 목사를 역임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피력하면서 지역과의 연고가 오래되었음을 상기하고 아울러 가문의 문학적인 명망과 이에 대한 전승의 의지를 겸양하며 읊은 시이다. 이러한 내용은 동악 이안눌의 다음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구월 초 칠일에 홍주에 도착하여 짓다[九月初七日 到洪州作]> 2수 중
첫째 수

사군은 37세이니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네
두 조상께서 부임하여 온 곳
백형은 관관이 되었지
부족한 재주로 외람되어 가업 이었고
다행히 부모님까지 모시게 되었네
청백리의 가풍이 전해지니
유풍에 혹 흠이 될까 걱정이네

이안눌
使君三十七
非早亦非遲
二祖專城地
元兄半刺時
不才叨世業
兼幸奉親慈
清白傳家在
遺風恐或隳²⁵⁾

이안눌의 백형은 이안겸(李安謙, 1563~?)으로 자는 희익(希益)이다. 《동악집》 원주에는 “만력(萬曆) 정유년(1597, 선조30)에 백형이 관관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에 충청 도사(忠淸都事)를 역임했다는 기록이 중형 이안인(李安訥, 1567~1639)의 묘갈명에 기록되어 있다.²⁶⁾ 이안눌은 1597년(선조30)에 큰 형인 이안겸을 따라 홍주에 왔었음을 떠올리고 1607년에 자신이 홍주 목사가 된 것에 대한 회포를 말하였다. 위 시의 7.8구에서 가문의 유풍(遺風)을 언급하

25) 이안눌, 《동악집》 권7, 93a면.

26) 이안인, 《竹南堂稿》 권11, <贈議政府左贊成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李公墓碣銘>, 한국문집총간 90권, 527c면.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덕수 이씨 가문의 ‘청백리의 가풍’과 ‘유풍’에 자신이 흠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은 청백리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문학적 명망이 높았던 선조에 대한 자긍심과 존모의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면천의 추설재에 제한 시이다.

<추설재에 제하다[題秋雪齋]>

	이안눌
전쟁 중에 바빠 다녀 나라의 환란 새롭고	隙駒頻催國火新
삼년 동안 아직 죽지 못한 외로운 몸일세	三年未死一孤身
어미 잃은 까마귀 선산에서 피 흘리며 울고	松楸洒血慈烏夜
춘초의 봄날, 이슬비에 마음아파 하네	雨露傷心寸草春
비록 형체 남았으나 토목이나 다름없고	縱有形骸餘土木
게다가 근력 없는데도 풍진 밟고 다니네	更無筋力着風塵
바다 구비에 떠 집 짓고 나무에 기대어	誅茅海曲依桑梓
남은 생 요양하며 장차 세상 피해 살리라	要養殘生且避人 ²⁷⁾

위 시는 동약이 1620년에 어머니를 잃고 3년간 면천에서 여묘 살이를 하면서 1622년 추설재를 짓고 지은 시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20대에 전란을 피해 다녔던 시절을 떠올리고 올해 어머니 상을 만난 슬픔을 말하였다.²⁸⁾ 선영이 있는 면천에서 세상일을 잊고 머물고자 하는 귀전원의 뜻을 마지막 연에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면천에서 동네 이웃들과 어울리며 자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27) 이안눌, 《동약집》 권23, <拾遺錄>, 460c면.

28) 이식, 《택당집 별집》 권9, <禮曹判書贈左贊成東嶽李公行狀>, 공은 원래 남의 후계자로 들어간 입장이라서 상제(喪祭)를 극진히 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그지 없이 비통하게 여겨 일단 반곡(反哭)하고 돌아와서는 그 즉시 묘소 아래에서 여막(廬幕) 생활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참배하며 통곡을 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가 50여 세나 되었는에도 조미료를 가미한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서 삼년상을 마쳤다고 한다.

<추설재에서 회안 상인의 시에 차운하다[秋雪齋，次希安上人韻]>

이안눌

눈은 달빛처럼 침침하고, 머리는 눈처럼 어지러워	眼月全昏鬢雪繁
이 때문에 야윈 몸 거뒀고 향동산으로 돌아왔네	故收骸骨返丘園
옛날 이웃 노인 다투어 찾아오니	舊時隣叟爭相訪
노란 국화 막 피어 푸른 술동이에 비치네	黃菊初開映綠尊 ²⁹⁾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방달(放達)했던 동약으로서는 평생을 외직으로 머물다가 지쳐 전원으로 돌아와 안정을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3·4구는 이러한 동약의 유유자적함을 엿볼 수 있다. 반가움에 예전부터 아는 이웃 노인들이 다투어 찾아와 술 한 잔을 나누며 소탈한 정취를 즐기고 있다. 이는 마치 용재가 창택촌에 은거하면서 지은 시에 “질사발에 탁주를 숲 속에서 마셔 취하니, 인간세상 시시비비 있는 줄 나는 몰라라.[瓦甌濁酒林中醉，未信人間有是非]”³⁰⁾라고 한 시구와 흡사하다.

동약은 1637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는데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에 장사지냈다. 이안눌은 예조판서와 충청도 순찰사를 지냈으며 선조대에 활동한 석주(石洲) 권필(權鞞, 1569~1612)과 쌍벽을 이루는 시인으로, 정철(鄭澈)의 제자로 동년배인 권필, 선배인 윤근수(尹根壽, 1537~1616), 이호민(李好閔, 1553~1634) 등과 동약시단(東岳詩壇)을 결성하여 목릉성세 한시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의 신도비를 쓴 김상헌은 “조선조 중엽 이상은 논할 것이 없고 선조대에 시가 가장 성행하였으나 여러 명가를 두루 손꼽아보아도 이안눌의 위에 있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평하였다.³¹⁾

동약 이안눌은 서울과 면천을 여러 차례 오고 가며 만년을 보냈다.

29) 이안눌, 《동약집》 권23, <拾遺錄>, 476d면.

30) 이행, 《용재집》 권7, <衣白>, 477c면.

31) 김상헌, 《동약집 속집 부록》, <神道碑銘 并序>, 569c면, 蓋亡論我中葉以上, 至宣廟之世, 詩道最盛, 而歷數名家, 罕居公右者.

이안눌에게 면천은 당시 불우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서 벗어나 선대의 유허가 많은 내포의 면천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시 짓기에 몰두한 은거와 자적의 공간적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연헌공 이의무, 용재 이행 선조의 세거 공간이 주는 안락함과 남은 자취를 통해 그는 가문에 대한 자긍심과 문학적 계승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덕수 이씨의 문장가로는 택당 이식이 있다. 택당 이식은 용재 이행의 현손(玄孫)으로, 여러 시편에서 고조인 용재를 떠올리고 차운하거나 선조들에 대한 존모의 감정을 읊었다.

<연광정에서 달구경을 하며 선조(先祖) 용재공(容齋公)의 운을 쓰다.[練光亭翫月 用先祖容齋公韻]>

이식

백 척 성곽 옆 독에 물이 반이나 넘실넘실	百尺城邊水半堤
채색 난간 서쪽에 잔물결 일렁이네	微瀾激激畫欄西
휘영청 달뜨려는데 사라지는 뜬구름	孤輪欲上浮雲滅
평초 끝없이 펼쳐지고 먼 산 낮게 보이누나	平楚無垠遠嶽低
가을 강변 감상한 시 재자들보다 고상하고	秋渚賞高才子詠
징강의 그 구절 적선의 평에도 부합되리	澄江句合謫仙題
천고의 그 냉어를 누구라서 알아볼까	千年冷語何人識
전할 수 없는 맑은 술에 잔뜩 취하노라	不傳清樽醉似泥 ³²⁾

위 시는 택당 이식이 연광정에 걸린 고조 용재 이행의 시를 보고 그에 차운하여 쓴 것이다. 연광정은 평양의 대동강 가 덕암(德巖)의 절벽 위에 있는 정자로 관서팔경 중의 하나인데, 당대 명망 있는 시인이란 시 한 편 정도 남기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로 절경을 품은 곳이다. 용재 이행은 1521년(중종16)에 원접사로 중국 사신 당고(唐皐) 일행을 영접, 전송한 적이 있고 이 때 정사룡(鄭士龍), 소세양(蘇世讓), 이희보(李希

32) 이식, 《택당집》 권3, 한국문집총간 88권, 49d면.

輔) 등과 함께 한양에서 의주까지 5개월에 걸쳐 왕래하면서 수창한 시 <동사록(東槎錄)>을 남겼다. 당시 중국의 정사(正使)인 당고가 용재의 시를 보고 탄복하여 시단(詩壇)의 노장(老將)이라고 크게 칭찬한 일화가 전한다. 택당 이식은 당시 자신의 선조인 용재 이행이 남긴 <연광정 시에 차운하다[次韻練光亭]>³³⁾에 차운한 것이다. 5,6구에서 연광정을 읊은 용재의 시가 빼어나고 절묘함을 높이 칭송하고 당나라 이백(李白)의 시평³⁴⁾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존모의 뜻을 드러냈다. 이는 곧 당대 문학적으로 명망이 높았던 덕수 이씨 가문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표출한 것이며, 이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뜻을 보인 것이다.

이후 18세기 덕수 이씨의 주목할 만한 문인으로 홍주 목사를 지낸 목곡 이기진(李箕鎭, 1687~1755)이 있다. 이기진의 자는 군범(君範), 호는 목곡(牧谷)으로, 택당 이식의 증손이다.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는데 1736년 2월에 홍주 목사로 좌천되었고 이후 1744년에 다시 홍주 목사에 임명되었다. 아래의 시는 1736년 홍주 목사가 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삼가 연현공과 용재 두 선조께서 홍주 수연의 자리에서 지은 시에 차운하다[敬次蓮軒 容齋兩先祖洪州壽席韻]>

이기진

효자가 올리는 술잔에 기쁨과 두려움 겸하고	孝子稱觴喜懼兼
당시에 색동옷이 푸른 깃발에 비쳤으리	應將綵服映青帘
지금도 남은 자취 곧 만날 것 같은데	祗今遺躅如將見

33) 이행, 《용재집》 권8, <次韻練光亭>, 496a면, 涇水平奔不復西, 奇巖終古作全堤. 經營已被高人識, 模寫仍煩大手題. 浮碧與茲名竝重, 落霞從此價還低. 亭前萬頃清如許, 洗盡行塵未有泥.

34) 이백이 그의 시에서 “맑은 강물 조출함이 표백한 명주 같다는 그 표현, 사현휘를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소이로다.[解道澄江淨如練 令人長憶謝玄暉]”라고 한 구절이 있다. 현휘(玄暉)는 남제(南齊)의 시인 사조(謝朓)의 자(字)이다. 《李太白詩集》 卷6 金陵城西樓月下吟》

변변찮은 시로 이으니 스스로 부끄럽구나 廢以荒詞敢自嫌³⁵⁾

삼가 생각건대, 8대조 연헌공께서 홍치 갑자년에 이 고을에 목사로 와서 3년을 지냈다. 병인년(1506, 중종1)은 곧 우리 중종 대왕께서 반정(反正)하신 원년이다. 7대조 용재공께서 유배지에서 풀려나 경악(經嶺)으로 돌아오셨다. 영달하여 돌아와 부모님을 뵈고 축수(祝壽)의 잔치를 열었는데, 이 해 겨울 당시 기쁜 마음으로 지은 것이 반드시 한두 편에 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나, 유독 이 절구 두 편만 유집(遺集)에 남아 있으니 어찌 기이하고 귀하지 않으랴. 지금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선조의 자취를 살피고 생각함에 갱장(羹牆)의 그리움을 견디지 못하였다. 삼가 두 선조께서 남기신 시를 공관에 새겨 걸고 못난 솜씨로 이어서 감회를 기록하였다.³⁶⁾

홍주는 덕수 이씨 6대조 강평공 이명신, 8대조 이익무, 이안눌 등 여러 선조가 역임한 유서 깊은 고장이다. 이기진은 앞서 언급한 이익무의 축수 잔치에 지은 시를 발견하고 당시의 일들이 눈앞에 선 듯 기이하고 귀한 일로 추억하며 선조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230여 년 전 선조들이 이 지역을 연고로 세거하면서 남겼던 자취를 되새기면서 자신 역시 그에 뒤따라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구에서 표현하였다. 다음은 그가 1744년 두 번째로 홍주 목사에 부임할 때 지은 시이다.

35) 이기진, 《牧谷集》 권2, 한국문집총간 2차분 67권, 356b면.

36) 이기진, 《목곡집》 권2, 356b면. [後序], 恭惟八代祖蓮軒公, 以弘治甲子, 出牧茲州, 越三年丙寅, 卽我中宗大王反正初元也. 七代祖容齋公, 起謫中還經嶺, 榮覲獻壽, 實在是年冬, 其時志喜之作, 必不止一二, 而獨此絕, 見載遺集中, 豈不奇且珍乎. 今小孫來莅舊州, 撫念先躅, 不勝羹牆之慕, 謹將二祖遺什, 鏤揭于公館, 仍系拙語以志感.

<홍양 객관에서 삼가 동악공의 관상 시에 차운하다. [洪陽客館 謹次東岳公板上韻]>2수

이기진

(1)

옛 고을의 공관 여전히 우뚝하니
 멋진 고을의 성대하던 모습 떠오르네
 평평한 숲의 밖으로 산과 바다가 에워쌌는데
 계풍루는 높고 난간은 굽어졌네
 관청 벽에 당시의 자취 전해지니
 우리 집안의 두 조상이 거쳐 가셨지
 꾸준히 자손들이 선조의 자취를 계승하는 땅
 뛰어난 작품 동악공의 재주를 가장 우러르네

古州公館出崔崑
 想見名都盛際開
 傍海山圍平楚外
 繫風樓敞曲欄隈
 流傳廳壁當年蹟
 經歷吾家二祖來
 袞袞諸孫繩武地
 雄詞偏仰岳翁才

(2)

두 선조께서 아름다운 명성 떨치신 곳
 후손이 뒷날 부임했네
 상경은 다시 관직을 회복했고
 세월은 또 지금의 시절이 되었네
 지방관으로 와서 재주 부족함이 부끄러운데
 거듭 오게 됨은 다만 성은 덕이네
 맑은 조정에 자주 외방으로 임명되니
 선조의 교훈 저버릴까 두려워라

兩世流芳遠
 仍孫繼躅遲
 上卿還舊秩
 甲子又今時
 共理慙才墜
 重來特聖慈
 清朝頻黜補
 先訓亦荒隳³⁷⁾

첫째 수는 앞에서 살펴 본 이안눌의 <동헌에 제하다[題東軒]>에 차운한 것이고, 둘째 수는 이안눌의 <구월 초 칠일에 홍주에 도착하여 짓다 [九月初七日 到洪州作]>에 차운한 것이다. 보통 고을 관헌에 걸린 관상시를 차운하는 일은 새로 부임한 수령이 흔히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다. 그러나 홍주 목사의 직책을 250여년 사이에 덕수 이씨 선조 몇 사람이

37) 이기진, 《牧谷集》 권2, 356b면.

대대로 부임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전기부터 내포지역 면천에 세거한 덕수 이씨 가문의 선영과 터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짐작된다. 이기진은 이안눌의 시 두 편에 차례로 차운하고 첫째 수 7·8구에서 “꾸준히 자손들이 선조의 자취를 계승하는 땅, 뛰어난 작품 동악공의 재주를 가장 우리르네”라고 하였다. 둘째 수의 5구에서는 후손으로서 자신의 재주가 부족하다는 겸양의 뜻을 말하면서 8구에서 선조의 가르침을 잘 받들지 못할까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지금까지 덕수 이씨의 면천 세거지에 대한 연원과 그 후손들의 작품을 통하여 집성촌과 세거의 의미를 넘어 당대 문장가로서 인정받았던 덕수 이씨 가문의 자긍심, 문학적 전승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다. 특히 당진 면천 세거지를 기반으로 조선 전기부터 문학적 명망이 높았던 가문의 명맥을 계승하고 전승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후손 시인들의 작품에서 면면히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시대마다 정치적 굴곡과 불우한 때에 면천 세거지는 후손들에게 자적과 안분지족을 추구할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이 되었으며, 이 또한 선대가 남겨준 소중한 정신적 가치임을 깨닫고 후손들은 문학적으로 승화하며 계승하려 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

4. 결론

지금까지 면천 창택촌에 은거하면서 생을 마친 연헌공 이의무를 시작으로 용재 이행, 동악 이안눌, 택당 이식, 목곡 이기진에 이르기 까지 흥주목 면천 덕수 이씨 세거지의 연원을 살펴보았다. 이의무는 조선 전기 성종조의 신진사료로서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었고 문학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 이후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용재 이행은 부친의 문학적

재능을 이어받았으며 가학의 전승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삶의 궤적 또한 부친을 닮아 정치적 불행을 많이 겪었지만 문학적 성취는 더 크게 이루었다. 두 사람이 면천 창택촌에 은거하면서 남긴 발자취는 후대의 많은 시인들과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후손 동악 이안눌, 택당 이식 뿐만 아니라 18세기 목곡 이기진까지 이어져 꾸준히 문학적 전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주목 당진 면천이라는 호서의 향토에서 이렇게 명망이 높았던 시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5세기 성종조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시문을 통해 살펴보면 덕수 이씨 가문은 당진 면천에 세거지가 있었으므로 홍주 목사로 나아가 역임한 인연이 많았고, 20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포 지역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이 남겨놓은 작품에는 선조에 대한 가문의 자긍심과 존모의 정을 표현한 것 이외에도 가문의 훌륭한 유풍과 전통을 계승하려했던 후손들의 의지와 경외심이 여실히 표출되어 있다.

조선 시대 가문의 전통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어 현대까지 그 정신과 가치를 일깨워 주고 있다.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자량이 지나쳐 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가족의 가문 의식은 자신이 혼란하고 곤경을 겪을 때나 사회적 신념의 좌절을 겪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가치를 부지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본고는 이에 홍주목 당진 면천 덕수 이씨 세거지를 기반으로 하여 200여년 넘게 선조들의 문학적 전통과 정신적 가치를 계승하고 닦으려 했던 일면을 한문학 작품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성종조 이의무로부터 용재 이행, 동악 이안눌, 택당 이식, 목곡 이기진의 작품을 통해 꾸준히 선조들의 땅을 지키고 선조들이 지키려 했던 가문 의식과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문학적 명망을 계승하려는 의지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불우·곤경과 좌절 속에서도 자신을 부지할 수 있는 안분지족

과 초연한 삶의 자세를 계승하려는 정신적 가치의 전승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화, 탈가족화 되는 현대 사회에 가족과 가문에 대한 긍정적 가치 전승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중환, 《택리지》

이의무, 《蓮軒雜稿》 한국문집총간 15권, 민족문화추진회.

이행, 《容齋集》 한국문집총간 20권, 민족문화추진회.

이안눌, 《東岳集》 한국문집총간 78권, 민족문화추진회.

이식, 《澤堂集》 한국문집총간 88권, 민족문화추진회.

이기진, 《牧谷集》 한국문집총간 2차본 67권, 민족문화추진회.

이재숙,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재숙, 「漢文學에 투영된 洪州의 문화적 위상 고찰」, 『한문학논집』 36집, 2013, 131면~152면

이재숙, 「內浦지역 누정문학 연구-충청수영의 영보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34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6, 285면~317면

■ Abstract

Deoksu Lee family's Residing in Myeoncheon for Generations and Literary Transmission

Lee, Jae Sook

It requires prudence and is meaningful for descendants to come, both in the past and now, to find a land where a family wants to live with good fortune for generations by taking the area as its base for a long period of time. Looking into the figures of a family that resided in a place for generations and its connections in the area, we can assume that this may have influenced not just the history of the family but the academic network and cultural history in the region, too, to a certain extent.

Dangjin of Chungcheongnam-do is a place where quite a few renowned writers of the Joseon Dynasty were produced in terms of our literary history.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reason why Deoksu Lee Family lived in Myeoncheon of Dangjin as its base for generations and settled down in it as a residence for 20 generations lasting for 500 or so years and what meanings it has.

The one that set it as the base for Deoksu Lee's clan was Yeonheongong Lee Ui-mu, one of the literary persons in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after Lee Haeng in the reign of King Jungjong set Deoksu Lee Family's graveyard there, many writers composed Chinese poems passing by the place. In particular, Deoksu Lee Family's descendants respected the literary achievements and value left by the two ancestors and were in awe of the transmission. This researcher here investigates the family's empathy and thoughts about literary transmission associated with the space of Myeoncheon considering Dongak Lee An-nul, Taekdang Lee Sik, and Mokgok Lee Gi-jin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This will allow contemporary families becoming hyper-individualized to glance at how the family continues its reputation through literary works of the old times while longing for its ancestors and having affection of honor with intention and concerns to adhere to its excellent tradition.

Key Words: Lee Ui-mu (李宜茂), Lee Haeng (李荇), Yeonheongong (蓮軒公),
Yongjae (容齋), Deoksu Lee Family, Dangjin, Myeoncheon,
Taekdang(澤堂) Lee Sik(李植), Mokgok(牧谷) Lee Gi-jin(李箕鎭)

이 논문은 2022년 8월 18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18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18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재미(在美)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신호식*

목차

1. 들어가며
2. 아시아계 이민자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3. 순혈주의와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화
4. 개인주의의 등장과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5. 혼종문화와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6. 나오며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북미지역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영화와 TV시리즈를 통해 고찰하였다. 백인중심의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은 오랜 기간 대중문화에 반영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아계 가족이 나오는 미국영화는 펄 벅과 리친양의 소설을 각색한 <대지>(1937)와 <플라워 드럼 송>(1961)이 대표적이었다. 백인감독이 제작한 두 영화는 가부장제에 기반한 가족주의 문화를 이국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웨인 왕과 같은 아시아계 감독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北京故事(A Great Wall)>(1986)와 <뜨거운 차 한잔>(1989), <미시시피 마살라>(1991), <조이 럭 클럽>(1993), <완전한 미국 여자>(1994-1995)에서처럼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의 모습과 개인의

* 고려대학교 영상문화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문화에 완벽히 동화된 아시아계 감독과 배우가 대거 등장한 2000년대에는 <세이빙 페이스>(2004), <천년의 기도>(2007), <엄마의 장례식>(2008), <더 피플 아이브 슬랩 위드>(2009)에서 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발달로 해외에서 미국영화와 TV시리즈를 시청하는 등 미디어 환경이 변화한 2010년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 후손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프레스 오브 더 보트>(2015-2020)와 <김씨네 편의점>(2016-2021)과 같은 아시아계 가족이 주인공인 TV시리즈가 방영되면서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의 혼종문화를 다양성을 수용하는 미국문화의 일부로 보여주었다. 미국사회에 한류와 같은 아시아계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2018)처럼 고부갈등과 같은 아시아적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흥행에 성공한 아시아계 영화들이 등장하였다. 아시아계 이민자 자녀가 부모의 나라를 방문하는 <고 백 투 차이나>(2019), <페어웰>(2019)과 같은 영화에서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아시아 도시를 보여주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제어: 재미 아시아계 가족, 가부장제, 순혈주의, 스테레오타입, 혼종문화

1. 들어가며

2020년대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발달로 아시아권 국가의 영화와 TV시리즈를 북미지역에서도 많이 시청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영상콘텐츠들은 아시아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한류와 같은 아시아계 콘텐츠가 유행하게 된 것은 분명 인터넷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자 후손들의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영화계와 방송계의 진출 및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2021)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해외 콘텐츠들을 수용하는 미국시청자의 취향변화도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북미대중문화에서의

아시아계 영화와 TV시리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본고에서는 미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재미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의 변화양상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이민의 역사로 점철된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유럽계나 아프리카계보다 조명을 덜 받아왔다. 20세기 중반까지도 북미지역에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영화는 찾기가 어려웠고, 백인들의 관점에서 문화적 편견에 둘러싸여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한 신비주의나 가부장적인 가족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데에 머물렀다. 필자는 이처럼 아시아계 사람들이 나오는 콘텐츠가 적은 미국 영화계에서 아시아계 가족을 다룬 최초의 대중영화로 펄 S. 벅(Pearl S. Buck)의 소설을 각색한 <대지(The Good Earth)>(1937)를 선정하고, 이후의 자료들을 조사했다. 극의 배경이 비록 북미가 아닌 중국대륙이지만, 시드니 프랭클린(Sidney Franklin) 감독의 영화 <대지>는 1930년대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였다. 이 영화는 백인배우가 아시아계 배역을 연기하는 일종의 옐로우 페이스(yellow face)¹⁾ 영화로서 필자는 애플TV+에서 2022년에 방영한 이민진(Min Jin Lee) 작가의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 <파친코>와는 대척점에 있는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왜냐하면, 두 작품이 모두 미국자본으로 제작되어 기존 소설을 각색하여 미국 밖의 아시아계 가족을 소재로 하였으면서도, <대지>는 백인이 감독하고, 모두 영어 대사에 주요 배역들을 백인이 맡았지만, <파친코>는 한국계 감독이 한국어와 일본어 대사로 아시아계 배우가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1937년의 <대지>에서부터 2022년의 <파친코>를 비교하여 미국 대중문화에서의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의 단순변화를

1) Wang, Philip., Yu, Phil., Yang, Jeff., *RISE: A Pop History of Asian America from the Nineties to Now*, New York, NY: HarperCollins, 2022, pp.36-39.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20세기 중후반과 21세기 초반까지 미국 대중문화에서 다룬 아시아계 가족과 관련된 작품들을 연대순으로 조사하여 사회적 변동과 함께 달라진 미국 대중문화에서의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영화와 TV시리즈에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세기 중후반부터 2022년까지 북미지역에서 제작된 아시아계 가족과 관련된 대중적 작품들을 분석하여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가 변모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 가족을 다룬 작품이 희귀하므로 1937년의 영화 <대지>에서 24년이 흐른 1961년에 제작된 헨리 코스터(Henry Koster) 감독의 뮤지컬 영화 <플라워 드럼 송(Flower Drum Song)>을 사례로 들었는데, 이 영화 이후에도 1970년대까지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를 다룬 작품은 찾기가 어려웠다.²⁾ 결과적으로 1980년대에 영어에 능통한 웨인 왕(Wayne Wang; 王穎: 1949년 홍콩 출생)³⁾과 같은 아시아계 감독들이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 영화계에 진출하면서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늘어났다.⁴⁾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아시아계 유학생 증가 및 주류 사회에 진출한 아시아계 이민자 후손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를 다루는 사례들이 잦아졌다. 주로 아시아계 작가와 영화감독들의 작품 위주이지만, 이를 통해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의 변화양상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의 사례가 이전 시기보다는 많아졌다.

[표 1]은 사례조사를 위해 참조한 재미 아시아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와 TV시리즈의 목록이다. 20세기 중반까지는 아시아계 가

2) 1970년대 미국 ABC에서 방영된 데이비드 캐러딘(David Carradine) 주연의 드라마 쿵푸(Kung Fu)가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가장 가까운 접근이었다.

3) 아시아계 미국영화의 선구자로 간주되는 영화감독.

4) 요모타 이누히코, 김영철 편역, 웨인 왕, 『존 웨인의 이름을 가진 남자』, 『마이 너러티의 헬리웃: 영화로 읽는 미국사회사』, 한울, 1993, 184~187면.

족을 다룬 영화가 드물고, 아시아계 영화감독이 등장한 1980년대부터 제작 빈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계 가족이 주인공인 최초의 TV시리즈는 ABC에서 방영된 한국계 코미디언 마거릿 조(Margaret Cho) 주연의 <완전한 미국 여자(All-American Girl)>이다. 2020년대가 되면서 아시아계가 주인공인 영화와 TV시리즈는 보편적이 되었다.

[표 1] 아시아계 가족을 다룬 영화와 TV시리즈

제 목	연 도	연 출
대지(The Good Earth)	1937년	Sidney Franklin
플라워 드럼 송(Flower Drum Song)	1961년	Henry Koster
자유를 찾은 소녀(The Girl Who Spelled Freedom)	1986년	Simon Wincer
北京故事(A Great Wall)	1986년	Peter Wang
뜨거운 차 한잔(Eat a Bowl of Tea)	1989년	Wayne Wang
폭풍의 나날(Come See the Paradise)	1990년	Alan Parker
미시시피 마살라(Mississippi Masala)	1991년	Mira Nair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	1993년	Wayne Wang
결혼 피로연(The Wedding Banquet)	1993년	Ang Lee
완전한 미국 여자(All-American Girl)	1994-1995년	Gary Jacobs
세이빙 페이스(Saving Face)	2004년	Alice Wu
이름 뒤에 숨은 사랑(The Namesake)	2006년	Mira Nair
아메리칸 패스타임(American Pastime)	2007년	Desmond Nakano
천년의 기도(A Thousand Years of Good Prayers)	2007년	Wayne Wang
엄마의 장례식(Dim Sum Funeral)	2008년	Anna Chi
그랜 토리노(Gran Torino)	2008년	Clint Eastwood
The People I've Slept With	2009년	Quentin Lee
설리번 & 선(Sullivan & Son)	2012-2014년	Steve Byrne
프레시 오프 더 보트(Fresh Off the Boat)	2015-2020년	Nahnatchka Khan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	2016-2021년	Ivan Fecan
빅 식(The Big Sick)	2017년	Michael Showalter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	2018년	Jon M. Chu
서치(Searching)	2018년	Aneesh Chaganty
고 백 투 차이나(Go Back to China)	2019년	Emily Ting
페어웰(The Farewell)	2019년	Lulu Wang

커밍 홈 어게인(<i>Coming Home Again</i>)	2019년	Wayne Wang
미나리(<i>Minari</i>)	2020년	Lee Isaac Chung
반쪽의 이야기(<i>The Half of It</i>)	2020년	Alice Wu
더 체어(<i>The Chair</i>)	2021년	Amanda Peet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i>Shang-Chi and the Legend of the Ten Rings</i>)	2021년	Destin Daniel Cretton
천재소녀 두기(<i>Doogie Kameāloha, M.D.</i>)	2021년	Matt Kuhn
파친코(<i>Pachinko</i>)	2022년	Soo Hugh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i>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i>)	2022년	Daniel Kwan Daniel Scheinert
파트너 트랙(<i>Partner Track</i>)	2022년	Georgia Lee

2. 아시아계 이민자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은 서구인의 동양에 대한 경계 의식인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에서 기인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19세기 후반에 대농장의 흑인노예를 대체하고, 대륙횡단 철도 공사를 위한 노동자로 북미지역에 들어온 중국인들로 대표되는 아시아계는 백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인식되었고, 급기야는 1882년에 중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금지시킨 ‘중국인 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을 제정되었다. 이민금지는 1917년에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었다.⁵⁾

시드니 프랭클린 감독의 <대지>(1937) 이전에도 미국영화에 아시아계 배역이 등장하기는 했다. 그러나 백인 위주의 미국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역할은 한정적이었고,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⁶⁾ 일본계 배우인 하야카와 셋슈(Hayakawa Sessue)가 주연한 ‘세실 B. 드밀(Cecil B. Demille)의 <사기꾼(*The Cheat*)>(1915)은 백인 여성을 유혹하는 아시아계 남성을 악당으로 설정하고, 그를 제거하여 백인 가부장제

5) Park Hong, Chthy.,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New York: One World, 2020, p.22.

6) 이형식, 『다문화주의와 영화』, 엘피, 2018, 75면.

사회의 질서와 여성의 순결을 보존한다’는 내용이다.⁷⁾ 그리고 D. W. 그리피스(D. W. Griffith)의 <흩어진 꽃잎(Broken Blossoms)>(1919)은 백인 여성을 연모하는 아시아계 남성의 비극적 이야기로 인종 간 결혼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한다.⁸⁾ 오브리 M. 케네디(Aubrey M. Kennedy)의 <황인종의 위협(The Yellow Menace)>(1916)은 일본인과 멕시코인이 공모하여 미국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내용으로 아시아계 사람을 위협한 대상으로 묘사했다.⁹⁾ 또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윌리엄 A. 웰먼(William A. Wellman) 감독의 <차이나타운의 밤(Chinatown Nights)>(1929)과 <도끼의 사나이(The Hatchet Man)>(1932)는 중국계 폭력조직과 범죄세계를 묘사하여 마약과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돌렸다.¹⁰⁾

이처럼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에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지나친 혐오는 초기 미국영화에 그대로 반영되었다.¹¹⁾ 반면에 중국에서 유년기부터 오랜 기간 살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았던 펄 S. 벅¹²⁾의 풀리처상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대지>(1937)에서는 아시아 문화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왕룽과 오란¹³⁾을 비롯한 주요 배역들을 백인배우가 연기하여, 영

7) 이형숙, 「미국 무성 영화 시대의 아시아인 재현에 대한 고찰」, 『비교문학』 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40면.

8) 이형식, 앞의 책, 76면.

9) 정재형, 「인종 시각의 미국 영화 분석」, 『영상학보』 3-4권,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1992, 17면.

10) 위의 논문.

11) 20세기 초반까지 아시아계 사람들은 영화에서 왜곡되어 표현되었으며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감수하며 살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아시아계 청년들이 미군으로 참전하면서 그들의 지위는 높아졌고,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노동자 이주를 금지시킨 중국인 배척법도 1943년에 폐지되었다.

12) 1892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중국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다.

어에 능통한 주연급 아시아계 배우가 부족한 당시의 미국 영화계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백인들의 시각에서 아시아계 가족을 묘사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다.¹⁴⁾ <대지>(1937)는 이전의 아시아계를 다룬 미국영화와 비교하면 동양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품이지만, 왕룽 가족이 고향의 농지를 매입하여 경제적 부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오란이 남편의 독단적 결정과 외도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표출하지 않는 장면들을 넣으면서 이 영화를 통해 순종적인 아시아계 여성과 가부장적인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를 미국 대중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940년대까지도 백인중심의 미국 대중문화에서 특별히 아시아계 가족을 다룬 영화가 없었는데, 1950년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 출신의 작가들이 영어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주연배우가 모두 아시아계인 미국영화가 제작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계 작가인 리친양(黎錦揚; C. Y. Lee)¹⁵⁾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1957년에 쓴 소설 『플라워 드럼 송(Flower Drum Song)』은 1958년에 로저스와 해머스타인(Rodgers and Hammerstein)에 의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로 발표되었고, 1961년에는 헨리 코스터(Henry Koster) 감독에 의해 뮤지컬 영화로 제작되었다.¹⁶⁾ 이 영화는 차이나타운이 배경임에도 거의 모든 대사가 영어이며, 여주인공 메이 리(Mei Li)의 역할을 일본계 배우 우메키 미요시(梅木 美代志)가 연기했고, 남주인공 왕타(Wang Ta)도 일본계 배우 제임스 시게타(James Shigeta)가 연기했다는 점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문

13)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오란의 역할은 독일계 미국인 루이제 라이너(Luise Rainer)가 하였다.

14) 백인배우가 아시아계 배역을 연기하는 ‘엘로우 페이스’는 흑백영화 시대가 지난 다음에도 지속되어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의 상징이 되고 있다.

15) 1915년에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나서 194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6) 1974년과 1992년에 한국의 TBC와 MBC에서 방영되었다.

화적인 세밀함은 적었지만, 무대디자인과 의상, 오리엔탈 리듬의 음악을 중심으로 미국 관객들의 이국적 취향을 만족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이 영화의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차이나타운의 클럽 사장 새미 풍(Sammy Fong)의 주소가 적힌 종이만 들고 그와 중매결혼을 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밀입국한 이른바 ‘사진신부(picture bride)’¹⁷⁾인 중국여성 메이 리가 새미 풍을 찾아오는데, 새미 풍은 중국 전통을 중시하는 부모가 선호하는 조신한 중국인 신부인 메이 리보다는 개방적인 클럽의 댄서 린다 로우(Linda Low)와 혼인하기 위해 메이 리를 다른 중국인 남성 왕타와 사귀도록 역시 조신한 중국 며느리를 찾는 왕타의 어머니 량(Liang) 부인에게 소개한다. 이 영화는 배우자 선택에도 가장의 허락이 필요한 가부장제 중심의 아시아계 가족문화를 보여주었고, 고국의 전통을 유지하는 아시아계 가족의 보수적 이미지는 오랜 기간 미국 대중문화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자리를 잡았다.

3. 순혈주의와 세대 간의 갈등의 유형화

앞서 언급한대로 1980년대에 웨인 왕(Wayne Wang)과 같은 아시아계 작가와 감독들이 미국 영화계에 진출하면서 백인의 편향적 시각에서 형성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에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아시아계 작가와 감독들은 이민자로서 겪어 온 자전적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면서 서구화되는 이민자 자녀세대의 세태를 풍자하는 동시에 미국 대중이 보편적으로 재미를 느끼는 ‘이국적 취향(exotic taste)’과 이제는 클리셰(cliché)가 된 ‘세대 간의 갈등(generational conflict)’을 소재로 하여 아시아계 가족의 이미지를 재현했다.

17) 20세기 초 북미지역의 아시아계 이민 노동자들이 중매인을 통해 자신의 모국에서 혼인할 신부를 선택하는 관행.

1980년대의 중국 개혁·개방¹⁸⁾은 북미의 중국계 이민자가 중국대륙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소재로 한 영화들은 미국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간직하려는 중국 전통문화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국대륙에 사는 친지들에게서도 찾기가 어렵다는 설정으로 재미를 주었다. 이와 같은 성격의 영화로 대표적인 피터 왕(Peter Wang) 감독의 <北京故事(A Great Wall)>(1986)는 30여 년간 미국에 살면서 실리콘 벨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레오 팡(Leo Fang)과 부인 그리고 아들(Paul Fang)이 베이징의 누이 가족을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에서는 미국문화에 동화되어 백인여자친구를 사귀며 아버지의 요구에도 중국어를 배울 생각이 별로 없는 레오 팡의 아들인 폴 팡과 회사에서 백인 후임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진급하여 회사에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내는 레오 팡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1980년대 당시의 미국사회에서의 아시아계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묘사했다. 베이징에 사는 누이의 딸(Chao Lili)은 영어를 배우고, 주위의 친구들이 코카콜라와 같은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흥미롭게 보여주었다.

루이스 hing 추(Louis Hing Chu; 雷霆超)의 1961년 소설인 『뜨거운 차 한잔(Eat a Bowl of Tea)』을 각색한 웨인 왕 감독의 <뜨거운 차 한잔(Eat a Bowl of Tea)>(1989)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뉴욕 차이나타운에 사는 중국계 신혼부부가, 손주를 열망하는 부부의 두 아버지의 성화와 남편인 벤 로이(Wang Ben Loy)가 부부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중국인 커뮤니티에 도는 소문에 의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부관계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불화를 겪으며, 외로움을 참지 못한 부인 메이 오이(Lee Mei Oi)가 차이나타운의 노름꾼 아송(Ah Song)과 외도를 하여 임신한 아이를 남편인 벤 로이의 아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이다.

18) 덩샤오핑(鄧小平)의 체제에서,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에서 제안되어 중국 국내 체제의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의미.

이 영화에서는 대를 이을 자손을 중시하여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아시아계 가족문화와 개인사에 관심이 많은 중국인 커뮤니티를 회화화 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에 아시아계 감독들은 미국 대중의 이국적 취향을 충족시키는 아시아계 가족의 전통적인 모습은 유지시키면서도 미국문화에 완벽히 동화된 자녀세대를 등장시켜 연애와 혼인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구화되는 아시아계 가족의 유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시아계 가족이 조상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순혈주의(pure-bloodism) 이미지도 세대 간 갈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미국 대중문화에서 종종 다루어졌다. 193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일본계 카와무라 가족의 딸 릴리와 백인 영사기사 잭 맥건(Jack McGurn)의 사랑을 그린 앨런 파커(Alan Parker) 감독의 <폭풍의 나날(Come See the Paradise)>(1990)은 백인과 아시아계의 결혼을 현실적으로 다루었다. 이 영화에서 일본계 가족은 딸과 백인남성의 교제를 반대한다. 두 연인은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률에 의해 아시아계와 백인의 혼인을 금지해서 워싱턴 주에 속한 시애틀에 가서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¹⁹⁾에 의해 일본계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혀야 했던 노무라 가족 이야기를 다룬 데스몬드 나카노(Desmond Nakano)의 <아메리칸 패스타임(American Pastime)>(2007)에서도 노무라 가족의 차남인 라일(Lyle Nomura)이 백인여자친구 캐시(Cathy Reyes)와 교제하는 것을 아버지 카츠(Kaz Nomura)가 화를 내며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²⁰⁾ 영화 이외에도 아시아계 가족이 주인공인 최초의 미

19) 1942년 2월에 발령된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이민자를 비롯한 적성국 국민을 강제수용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20) 이 장면에서 아버지 카츠는 일본어로 ‘백인’을 의미하는 ‘하쿠진(白人; Hakujin)’을 강조하며 말하는데, 여기에는 오랜 기간 미국에서 살았음에도 자신들이 일본계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한 미국 정부에 대한 원망도 있다.

국 TV시리즈인 ABC방송의 시트콤 <완전한 미국 여자(*All-American Girl*)>(1994-1995)²¹⁾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마거릿(Margaret)이 주인공인데, 그녀의 한국계 부모도 딸이 명문대 출신의 한국계 남성과 사귀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아시아계 가족의 다른 민족과의 혼인을 지양하는 순혈주의 경향은 2000년대까지도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다루어졌다. 뉴저지 주에 사는 파키스탄계 가족의 이야기인 <빅 식(*The Big Sick*)>(2017)에서도 부모가 아들인 쿠말리(Kumail Nanjiani)가 백인여성과 사귀는 것을 반대하고, 마음에도 없는 파키스탄계 여성을 만나도록 우연을 가장하여 여러 파키스탄계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중국계 가족을 다룬 ABC방송의 시트콤인 <프레시 오프 더 보트(*Fresh Off the Boat*)> 시리즈의 시즌 2의 23회 <만주식 저녁 데이트(*The Manchurian Dinner Date*)>(2016)에서도 삼형제의 어머니 제시카 황(Jessica Huang)이 큰 아들인 에디 황(Eddie Huang)이 백인여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에디의 백인여자친구가 자기를 대신하여 에디의 집으로 보낸 가짜 중국계여자친구의 행실을 보고 제시카 황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시아계 가족에게 남아있는 순혈주의를 과장하여 희화화한 내용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한 아시아계 민족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계 가족이 미국사회에서 조상의 문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미국 대중문화에서 자녀의 혼인상대자가 같은 민족이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치환되어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이 되곤 했다. 그리

21) 한국계 인기 코미디언 마거릿 조(Margaret Cho)를 중심으로 제작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무대디자인과 소품들도 중국풍이 많았다. 결국, 한 시즌으로 종영하였다. 반면에 같은 해에 시작한 브루클린에 사는 여섯 흑인 남녀가 주인공인 Fox TV의 <리빙 싱글(*Living Single*)>과 한국에서도 유명한 NBC방송의 <프렌즈(*Friends*)>는 각각 5시즌과 10시즌까지 편성되어 인기를 끌었다.

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계 가족이 나오는 영화와 TV시리즈에서는 유독 혼인문제를 소재로 많이 다루었다. 그러나 미국문화에 동화된 이민자 2세대와 3세대가 주인공이 되면서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는 점차 다양한 소재들로 분화되어 나갔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아시아 콘텐츠의 유행으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4. 개인주의의 등장과 스테레오타입의 변화

미국 영화계와 방송계에 아시아계 이민자 2세대와 3세대 출신의 여성작가와 감독이 등장한 1990년대에는 획일적인 집단문화와는 대립되는 개인주의 서사들이 영화화되면서 미국 대중문화에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도 변모하였다.

에이미 탄(Amy Tan)의 1989년 소설을 영화화한 웨인 왕 감독의 <조이 럭 클럽(The Joy Luck Club)>(1993)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각자의 딸을 키운 네 명의 중국계 여성들이 과거에 중국대륙에서 겪었던 개인의 이야기와 미국에서 키운 딸과의 이야기들을 통해 미국 대중이 갖고 있던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해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왜냐하면, 20세기 전반까지도 보수적인 중국사회에서 여성은 어린 시절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혼(早婚)을 하여 부모와 시댁 및 남편에 대해 순종적으로 살아왔지만,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의 중국보다는 여성에게 개방적인 전후 미국사회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딸은 자신보다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학교교육은 물론이고, 체스와 피아노 연주와 같은 과외교육을 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조이 럭 클럽>의 가족모임장면을 보면, 백인 남성과의 교제와 혼인도 중국계 가족들 사이에서 흔쾌히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여서 중국계 가족이 이민족 배우자에게 배타적일 것이라는

순혈주의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있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중국계 남성과 결혼한 중국계 여성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개인적 시선에서 가부장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계 이민자가 많은 영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에 하니프 쿠레이시(Hanif Kureishi)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My Beautiful Laundrette)>(1985)를 통해 보수적인 파키스탄계 대가족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대립하는 동성애를 소재로 하여 영국사회에서의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해체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인도계 여성감독 미라 네어(Mira Nair)가 <미시시피 마사라(Mississippi Masala)>(1991)에서 동아시아보다 보수적인 남아시아의 가족문화에 대해 여성의 시선에서 묘사하였다. 이 영화는 1972년에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Idi Amin)의 아시아계 주민 추방정책에 따라 오랜 기간 거주하여 고향처럼 느껴지는 우간다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미국 미시시피 주로 이주한 인도계 가족의 이야기이다. 우간다에서 쫓겨난 것을 계기로 흑인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인도계 가족의 아버지인 제이(Jay)와 우간다에서 행복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미국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딸인 미나(Mina)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 미나는 자유로운 연애관을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디미트리우스(Demetrius)와 교제하지만,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길 바라는 아버지 제이는 미나가 인도계 커뮤니티의 남성과 교제하기를 고집한다. 아프리카계를 싫어하는 것이 인도계 미국인의 보편적 정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딸이 인도계 남성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아시아계 가족의 순혈주의 경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영화에서는 미나가 디미트리우스의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사회에서의 유색인종 사이의 인종적 차별 또는 혐오에 대해 알려준다.²²⁾

22) Mehta, Binita., "Emigrants Twice Displaced: Race, Color, and Identity in Mira

그리고 아버지 제이의 사례에서처럼 미국사회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온 이민자도 있지만, 마지못해 미국에 와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개인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반화된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별한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영화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도 배우자 선택이나 출산과 같은 일반적인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 ‘성적 정체성(sexual identity)’에 관련된 개인적 고민은 2020년대까지도 줄곧 이어지는 주제로 자리매김을 하였다.²³⁾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안(李安) 감독의 <결혼 피로연(*The Wedding Banquet*)>(1993)은 아시아계 가족 안에서의 개인의 성적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이 영화는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백인남자친구 사이먼과 동거하는 웨이팅(Wai-Tung)이 중국계 여성과 혼인하길 원하는 노부모를 속이기 위해 자신의 건물 세입자 여성 웨이웨이(Wei-Wei)에게 월세탕감을 조건으로 가짜 신부역할을 하게 하여 위장결혼을 한다는 내용으로 코미디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웨이팅은 결혼식까지 성공적으로 노부모를 속였으나 피로연 후에 호텔방으로 쳐들어온 짓곳은 친구들이 웨이팅과 웨이웨이를 함께 침대 담요 속에 가두어 옷을 모두 벗게 만들어 우발적으로 동침을 하고, 웨이웨이가 임신하게 된다는 설정으로 극을 진행시킨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아들의 성적정체성과 거짓결혼소동을 알게 된 웨이팅의 부모는 임신한 웨이웨이가 중절수술을 하려고 갈 때 손주만은 낳아달라며 애원한다. 이를 통해, 중국계 가족에게 대를 이을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Nair's Mississippi Masala”, *Screening Asian Americans*, New Jersey,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p.217.

23) 파키스탄계 영국 작가인 하니프 쿠레이시(Hanif Kureishi)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영국 영화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My Beautiful Laundrette*)>(1985)에서는 파키스탄계 청년과 영국 백인청년과의 동성연애가 다루어졌다.

다. 결국 이 영화는 아기의 친모인 웨이웨이와 웨이팅의 남자친구 사이 먼이 공동으로 아기엄마가 된다는 식으로 해피엔딩을 만들면서 끝난다. 이 결말은 웨이팅과 부모 또는 개인주의와 아시아계 가족주의로 대표되는 집단주의의 절충안처럼 보이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 이미지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집단문화와 대립하는 개인주의의 대표적 소재인 성적정체성과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문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작가와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늘어났다.

중국계 여성감독 앨리스 우(Alice Woo)가 제작한 <세이빙 페이스(Saving Face)>(2004)에서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모르고 살던 뉴욕에 사는 중국계 이민자 3세인 여의사 빌(Wil)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만난 발레리나 비비안(Vivian)과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여 중국계 커뮤니티 안에서의 체면을 중시하는 아버지에게 의해 집에서 쫓겨나 딸의 집에 기거하는 마(Ma)를 등장시키며 세대를 거듭하며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점차 미국문화에 완벽히 동화되는 이민자 후손들의 개인주의 성향을 묘사했다.²⁴⁾ 이 영화에서는 영어와 미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 1세대에서는 중국계 커뮤니티가 경제활동을 위해 중요하지만, 이미 미국문화에 동화된 이민자 2세대와 3세대부터는 중국계 커뮤니티가 형식적인 사교모임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간섭하고 구속하는 굴레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반목과는 상반적으로 이민자 후손이 조상의 나라를 방문하거나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는 경향도 영화에 나온다. 미라 네어의 <이름 뒤에 숨은 사랑(The Namesake)>(2006)에서 뉴욕의 인도계 가정에서 태어난 고골(Gogol)이 청소년기에는 이름도 미국식 이름인 닉(Nick)으로 불리게 하고, 백인여자친구의 가족과 더 친밀하게 지내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충격을 받으며 인도인으

24) 이형식, 앞의 책, 75~100면.

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백인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고, 가족과 친분이 있는 인도계 가족의 딸인 무슈미(Moushumi)와 교제를 한다. 하지만 무슈미는 부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도계 남성인 고골과 사귀는 것이었고, 과거의 프랑스인 애인과 다시 만나면서 둘은 헤어진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는 이미 미국문화에 동화된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조상의 문화에 맞추어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개인적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세이빙 페이스>에서는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체면을 세워야 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 의해 남편과 사별하고 젊은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딸이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영화 이후에는 가부장적인 중국계 가족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가부장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이 해체되면서 웨인 왕의 <천년의 기도(A Thousand Years of Good Prayers)>(2007)와 애너 치(Anna Chi) 감독의 <엄마의 장례식(Dim Sum Funeral)>(2008), 쿠엔틴 리(Quentin Lee) 감독의 <더 피플 아이브 슬랩 위드(The People I've Slept With)>(2009)에서는 서구화되고 개방적인 아시아계 가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민족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뜨거운 차 한잔>에서처럼 불임과 외도에 대한 중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소문' 때문에 개인이 고통을 받는 일도 더 이상 없다.

위에서 언급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정착한 이윤 리(Yiyun Li)의 단편소설을 각색한 영화 <천년의 기도>에서는 디트로이트에서 홀로 살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 일랑(Yilan)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서 온 늙은 아버지는 과거 젊은 시절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딸과의 오해를 풀기위해 오히려 딸의 눈치를 살피고, 딸에게 요리학원에서 배운 실력으로 요리도 해준다. <더 피플 아이브 슬랩 위드>는 아시아계 여성 앤젤라(Angela)가 여러 남성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며 임신을 하여 태아

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기 위해 자신과 잦던 남성들의 DNA를 수집한다는 내용인데, 이 영화에서도 가부장적인 가족주의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성교제에 개방적인 앤젤라의 아버지는 젊은 백인여성과의 연애를 하며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의 이미지를 희화화하여 보여준다.

5. 혼종문화와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의 형성

2010년대에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미국 대중문화의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발달로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와 TV시리즈를 해외에서 손쉽게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아시아권 시청자도 고려하여 제작된 글로벌 콘텐츠들이 차츰 늘어났다. 그리고 아시아계 문화를 다양성을 수용하는 미국문화의 일부로 보면서 혼종문화(hybrid culture)를 보여주는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가 하나 둘씩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한국계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ABC방송 시트콤 <완전한 미국 여자>(1994-1995) 이후로 미국방송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2010년대에 다시 시트콤으로 방영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미국 케이블 방송사 TBS에서 방영된 시트콤 <설리번 & 선(Sullivan & Son)>(2012-2014)은 피자버거에서 노동자 계급을 상대로 바를 운영하는 아일랜드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를 둔 가족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스티브 번(Steve Byrne)은 실제로도 아버지가 아일랜드계이고, 어머니가 한국계라서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다.²⁵⁾

소년기에 랩뮤직을 좋아했던 중국계 에디 황(Eddie Huang)의 자전적 소설 『프레스시 오프 더 보트: 회고(Fresh Off the Boat: A Memoir)』(2013)

25) 어머니 역할을 하는 조디 롱(Jodi Long)은 <완전한 미국 여자>에서도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다. 그녀는 한국계가 아닌 일본계와 중국계, 스코틀랜드계가 섞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래서 더욱 혼종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를 각색하여 ABC방송에서 방영된 드라마 <프레스 오브 더 보트(Fresh Off the Boat)>(2015-2020)는 1995년경 올랜도를 배경으로 중국계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삼형제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한국계 배우 랜들 박(Randall Park)이 연기한 아버지 루이스 황(Louis Huang)도 이미 미국 문화에 완벽히 동화된 상태라서 중국어를 거의 못한다는 설정으로 나온다. 반면에 할머니 제니 황(Jenny Huang)은 중국어로만 말하는 설정으로 나오지만 자녀와 손자들과 서로 소통이 가능하여 이민자 1세대와 이민자 2세대 및 3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의 혼종문화를 보여준다. 이 시트콤은 6시즌 동안 116회의 에피소드를 방영하며 **중국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오히려 더욱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코믹하게 재해석하여** 미국 시청자가 아시아계 가족의 문화도 다양성을 수용하는 미국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도 아시아계 가족이 주인공인 시트콤이 방영되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SBS의 <더 패밀리 로우(The Family Law)>(2016-2019)와 캐나다 CBC의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2016-2021)은 둘 다 <프레스 오브 더 보트>처럼 대사가 영어이고, 서구화된 아시아계 가족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조상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나가려는 부모세대와 현지문화에 동화된 자녀세대의 갈등이 상투적으로 에피소드에 간간히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중문화에서 한류를 비롯한 아시아계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싱가포르 출신인 케빈 관(Kevin Kwan)의 소설을 각색한 존 M. 추(Jon M. Chu) 감독의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Crazy Rich Asians)>(2018)²⁶⁾이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3주간 1위를 했다.²⁷⁾ 이 영화는 한국시청자에게는 진부할 수 있는 평범한 집안의 여성이 재벌가 남성과의 연애를 하며 겪는 신데렐라 스토리와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26)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 배역이 모두 아시아계이다.

27) 북미 박스오피스 2018년 33주차, 34주차, 35주차 1위.

대한 내용이지만, 북미지역 관객에게는 아시아 혼종문화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이국적 풍경과 소문으로만 듣던 중국계 부자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합쳐져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과거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스테레오타입을 해체하고, 새롭게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이 된 혼종문화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문화적 혼종성은 미국문화에 동화된 이민자 자녀가 부모의 나라를 방문하면서 더욱 배가된다. 이민자 자녀가 부모의 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은 이미 <北京故事(A Great Wall)>, <이름 뒤에 숨은 사랑>, <프레스 오프 더 보트>에서 나왔다. 그런데 대만 출신 에밀리 텅(Emily Ting) 감독의 <고 백 투 차이나(Go Back to China)>(2019)와 룰루 왕(Lulu Wang) 감독의 <페어웰(The Farewell)>(2019)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민자 자녀들을 보여주면서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크면서 문화적으로 혼종적인 중국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 백 투 차이나>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여주인공 사샤(Sasha Li)는 중국에서 인형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재력을 바탕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패션디자이너를 전공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가 생활비를 끊으며 집세라도 내기 위해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안되어 생활비를 받기 위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선전(深圳)의 인형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국계 미국인에게 낯선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페어웰>에서도 뉴욕에서 예술가를 지망하지만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떨어진 여주인공 빌리(Billi Wang)가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현대적 도시로 변모하는 창춘(長春)을 방문한다. 도시 개발과 경제성장이 한창인 중국도시에서 전통문화는 현대사회에 맞추어 변모했고, 미국사회보다 더 자본주의 경향을 보이면서 미국관객들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에서처럼 그들이 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동양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 혼종성을 느끼게 된다.

2020년대에는 아시아계 가족의 문화혼종을 보여주는 여러 작품들이

제작되며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으로 자리를 잡았다. 대표적으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Minari)>(2020)는 1980년대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칸소 주의 시골로 이주한 한국계 가족을 보여주는데, 전형적인 한국인 할머니 순자의 모습과 미국인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함께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민진의 소설을 각색하여 애플 TV+에서 제작된 <파친코(Pachinko)>(2022) 시즌 1에서는 아시아계 가족의 혼종문화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선자의 남편과 아주머니의 이름이 이삭, 요셉, 사무엘로 모두 기독교식이라는 점과 미국 시청자에게는 이국적인 예배모습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전통복장과 양장이 함께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 아시아계 가족의 혼종문화를 보여준다.

6. 나오며

황인중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백인중심의 북미지역 대중문화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이미지는 여러 편견에 휩싸여 있었다. 백인감독이 제작한 영화 <대지>(1937)와 <플라워 드림 송>(1961)은 미국 대중에게 아시아계 가족이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1970년대에는 백인남성배우 데이비드 캐러딘(David Carradine)이 소림사에서 무예를 연마한 중국계 혼혈인 콰이 창 케인(Kwai Chang Caine)으로 출연한 드라마 <쿵푸(Kung Fu)>(1972-1975)가 대중적 인기를 얻었지만,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아시아 문화에 대한 신비주의만 가중시켰다. 그리고 미국사회에서 아시아계에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변화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1980년대에 웨인 왕과 같은 아시아계 영화감독이 미국영화계에 차츰 등장하면서 아시아계 가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웨인 왕 감독은 <첸의

실종(*Chan Is Missing*)>(1982)에서처럼 차이나타운에서 돈을 빌려고 사라진 중국인 채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소재를 시작으로 냉전기에 중국대륙에 방문하고 싶은 어머니를 위해 여행을 준비한다는 <딤섬(*Dim Sum: A Little Bit of Heart*)>(1985) 등 중국계 미국인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영화에 담았다.

1990년대에는 <조이 럭 클럽>을 비롯하여 <미시시피 마살라>, <결혼 피로연>, <완전한 미국 여자>에서 아시아계 가족이 갖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전통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서구화된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시아계 작가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특히 보수적인 아시아계 가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유로운 이성교제와 성적정체성 문제는 가부장제의 약화와 함께 2000년대에 들어오며 <세이빙 페이스>(2004)와 <이름 뒤에 숨은 사랑>(2006), <천년의 기도>(2007), <더 피플 아이브 슬랩 워드>(2009) 등에서 다루어졌다.

2010년대부터는 아시아계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오락극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시트콤 <프레스 오브 더 보트>(2015-2020)와 <김씨네 편의점>(2016-2021)이다. 그리고 케빈 콰의 소설을 각색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미국 대중문화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던 아시아계 부유층에 대한 이야기와 아시아 혼종문화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이국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3주간 1위를 하며 미국시장에서 흥행하였다.

2020년대에는 아시아계 가족이 나오는 영화와 TV시리즈가 전통양식의 건축물 안에서의 기독교 예배, 전통복장과 양복 그리고 여러 언어의 공존과 같은 여러 민족의 문화가 섞인 혼종문화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미국 대중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며 새로운 아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스테레오타입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 오치 미치오 외, 김영철 편역, 『마이нер리티의 헐리웃: 영화로 읽는 미국사 회사』, 한울, 1993.
- 이형숙, 「미국 무성 영화 시대의 아시아인 재현에 대한 고찰: <속임수>와 <흠어진 꽃잎>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49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237~260면.
- 이형식, 『다문화주의와 영화』, 앨피, 2018.
- 장태한, 『아시안 아메리칸: 백인도 흑인도 아닌 사람들의 역사』, 책세상, 2004.
- 정재형, 「인종 시각의 미국 영화 분석」, 『영상학보』 3-4권,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1992, 7~63면.
- Wang, Philip., Yu, Phil., Yang, Jeff., *RISE: A Pop History of Asian America from the Nineties to Now*, New York, NY: HarperCollins, 2022.
- Feng, Peter., *Screening Asian Americans*, New Jersey,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2002.
- Lee, Robert G., *Oriental: Asian Americans in Popular Cultur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 Park Hong, Chthy., *Minor Feelings: An Asian American Reckoning*, New York: One World, 2020.

■ Abstract

Changes in Stereotypes of Asian Families in North America

Shin, Ho Sik

In this paper, the stereotype changes of Asian families in North America were examined through movies and TV series. In the white-centered American society, prejudice against Asians has been reflected in popular culture for a long time. Until the mid-20th century, American films featuring Asian families are representative of *The Good Earth*(1937) and *Flower Drum Song*(1961), adapted from the novels of Pearl S. Buck and Chin Yang Lee. The two films formed a stereotype by focusing on exotically showing the patriarchal-based familial culture. However, since the 1980s, when Asian directors such as Wayne Wang appeared, *A Great Wall*(1986), *Eat a Bowl of Tea*(1989), *Mississippi Masala*(1991), and *The Joy Luck Club*(1993), focused on the westernized appearance of Asian families and personal lives as in *All-American Girl*(1994-1995). In the 2000s, when Asian directors and actors fully assimilated into American culture appeared, *Saving Face*(2004), *A Thousand Years of Good Prayers*(2007), *Dim Sum Funeral*(2008), *The People I've Slept With*(2009), the story of the Asian family was told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e 2010s, when the media environment changed, TV series featuring Asian families such as *Fresh Off the Boat*(2015-2020) and *Kim's Convenience*(2016-2021), which are adaptations of the autobiographical stories of descendants of Asian immigrants, were aired. It showed the hybrid culture of westernized Asian families as part of American culture that embraces diversity. As Asian content such as Hallyu became popular in American society, Asian films, such as *Crazy Rich Asians*(2018), were successful even though they used Asian materials such as high-income conflicts. Films like *Go Back to China*(2019) and *The Farewell*(2019), in which children of Asian immigrants visit their parents' countries, show Asian cities that are more capitalist than the United States, changing the stereotype of Asians.

Key words: North American Asian Family, Patriarchy, Pure-Bloodism, Stereotype, Hybrid Culture

이 논문은 2022년 8월 15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17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1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박건우*

— 목차 —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과 삶의 균형은 사회적 변화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과 생활은 불균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직장의 업무 수행과 더불어 가정에서의 과도한 역할 기대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과 삶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한 인식을 살펴본 설문조사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결혼상태 및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존재

* 성결대학교 강사.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유무와 연령, 건강 및 주관적 계층의식 등 개인적 요인과 조직의 규모 및 초과근무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일과 삶의 균형, 여성, 가정친화적 제도, 임금 근로자, 제주도

1.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을 통한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삶 자체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은 일과 일 외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질을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삶보다 일과 직장이 더욱 중요시되는 시기가 있었으나,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가치 등이 주목받으며, 일과 삶의 균형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일의 효율성을 향상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사회의 주요 경제활동인구 집단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테면, 10대의 경우 학생으로서 학업이 요구되지만, 그 와중에도 개인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30~40대도 직장에서의 승진 등을 통한 개인적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등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이를 위한 균형이

요구될 수 있다. 즉, 생애주기별로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와 현실 속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황에 적절하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의 경우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개인이 목표하는 이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여성은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직장생활을 지속할지 또는 중단할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 남은 가부장적 사회 인식은 여성이 직장을 병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직장병행에 대한 갈등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여성의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정열 외, 2016)¹⁾.

한편,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도는 2019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역별 일과생활균형 지수에서, 전국 2위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한, 2020년에도 제주도는 일생활 균형지수가 전국 3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자체의 관심, 여성육아 휴직, 가사노동시간, 총 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4개 부문의 실태를 조사한 것인데, 제주도는 2018년 대비 크게 개선된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²⁾ 또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
- 1) 박정열·손영미·신규리(2016), 「기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한국웰니스학회, 69-81면.
 - 2) 제주일보 2021년 2월 9일 “좋은 업무 성과의 근간은 편안한 삶”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9258>)

2021년 정부로부터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에 관련해서 모범 사례를 선별하는 것으로, 해당 사례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³⁾ 이처럼 제주도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타 지역대비 모범사례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일련의 조사에서는 제주도 여성 근로자가 인지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은 약 36.7%에 그쳐(신승배 외, 2021)⁴⁾,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제주도의 전반적인 일과 생활 균형 정도는 전국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개인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제주지역의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현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 어떤 요인이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초기 연구 중 가장 주목받은 연구로 볼 수 있는 김정운·박정열(2008)의 ‘일과 삶의 균형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이를 논의 단계는 아직 미진하며, 특정 대상에 주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Barnett and Hyde(2001)의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삶과 관계가 변화해왔지만, 학술적 관점에서의 이론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젠더와 일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3) 뉴스N제주 2021년 11월 23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가친화기업’ 선정”(http://www.newsjeju.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66506)

4) 신승배 외,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정책 방안』, 2021, 11~13면.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여성 근로자에 주목하였다.

상기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논의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과 변수 등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 패키지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함의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개념 및 특성

현대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쟁점이 되고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Greenhaus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이 지속해서 중요해지는 이유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구조와 성의 역할이 주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남성이 직장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성의 역할이 고정되어 졌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영역의 개념이 더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보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다수 창출되었으며, 여성의 권리 신장과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그리고 노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 WLB)

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및 개념화될 수 있다. 이를테면, Kirchmeyer(2000)⁵⁾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개인 시간 배분과 삶의 전 영역에서의 만족을 성취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Greenhaus et al.(2003)⁶⁾의 연구에서도 일과 삶의 영역에서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강우란 외(2006)⁷⁾의 정의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일과 생활 모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운·박정열(2008: 55)의 연구에서는 “일과 일 이외 영역에서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를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생활균형재단에서 제시하는 일과 삶의 균형은 “‘일’과 ‘일’ 이외의 영역(가족, 여가, 개인의 성장 및 자기개발) 등에 시간과 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조절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과 삶의 균형은 보편적인 개념으로 남성·여성, 미혼·기혼·청년·노년층 등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개인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가치로, 일에 대한 몰입과 보람뿐만 아니라 건강과 안전, 인간관계, 스트레스 관리와 같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나타난다. 한편, 삶의 균형은 주관적 행복에 크게 기여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행복은 성장 및 생존과 관련된 욕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Sirgy & Wu, 2009). 결국,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설명하면 개인 단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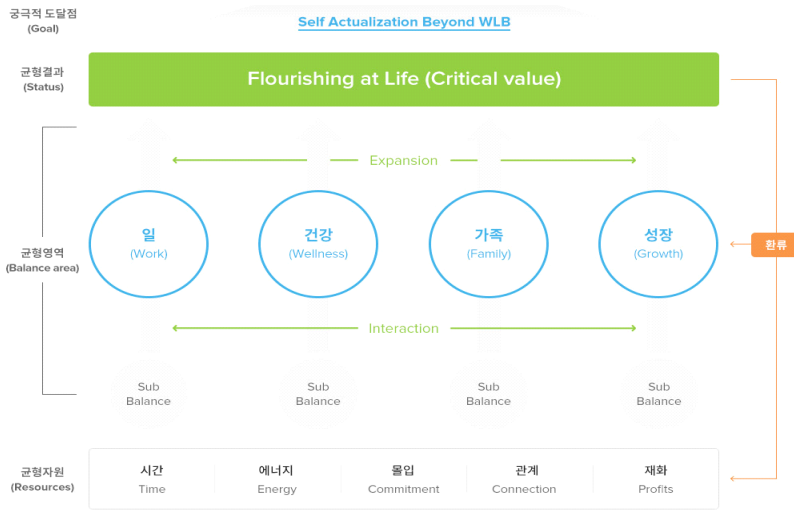
-
- 5) Kirchmeyer, C. (2000). Work-life initiatives: Greed or benevolence regarding workers' time? In C. L. Cooper & D. M. Rousseau(Eds.), Trends in organizational behavior(pp.79-93). West Sussex, UK: Wiley
 - 6)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2003). The relation between work - 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510-531.
 - 7) 강우란·배노조·정지영, 『경영의 새 화두: 일과 생활의 균형』, 삼성경제연구소, 2006, 1~21면

일과 생활의 영역 간 적절한 시간 배분으로 균형있는 만족감을 이루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과 삶의 균형은 시간과 에너지, 몰입, 관계, 재화 등의 균형 자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자아실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과 건강, 가족 그리고 성장은 상호 작용을 통해 환류가 발생하는 균형 영역으로 볼 수 있다.⁸⁾ 특히, 삶의 균형은 삶에서의 건강한 신체 균형과 조화 등을 포함하는 건강과 안전, 자신과 타인의 감정표현과 관리 등을 나타내는 교류, 자아의 성찰과 봉사활동 등의 영적 충만, 가족 및 주변관계, 노동의 가치와 보람, 스트레스 관리, 자기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은 업무 시간 이외에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무몰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정운 외, 2005).⁹⁾

8) 일생활균형재단(<https://kwlbf.org>)

9) 김정운·박정열·손영미·장훈, 「‘일과 삶의 조화 (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 한국여가문화학회, 2005, 29~48면



<그림 1> 일과 삶 균형의 체계적 모형

출처: 일생활균형재단(<https://kwbf.org/>)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해당 지수는 일과 생활, 제도, 그리고 지자체 관심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일생활 균형지수의 지표 내용

영역(배점)	세부 지표(24개 지표)
일 (22.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총 근로시간, ②초과 근로시간, ③휴가기간, ④유연근무제 도입률, ⑤유연근무제 이용률
생활 (30.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남성 가사노동시간 비중, ②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③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④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⑤평일 여가시간, ⑥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⑦일·여가생활 균형 정도
제도 (25.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여성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②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③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④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업장, ⑤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⑥초등돌봄교실 이용률, ⑦일·가정 양립제도 인지도

지자체 관심도 (22.8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일·생활 균형 조례 유무, ②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 ③담당조직 유무, ④일·생활 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⑤가족문화 관련시설 현황
-----------------------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년 12월 30일) “우리 시도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2) 선행연구 검토

일과 생활의 균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많은 연구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 추구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지만, 특정 연구의 경우에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에 따른 갈등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는 연구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과 생활과 관련한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Guest(2002)는 기존의 연구를 분석하여 주요 요인과 측정, 그리고 결과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모델로 정리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과 삶의 균형 영향요인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 요인 그리고 조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균형의 성격은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김요섭·여영훈, 2021 재인용).

<표 5> 일-삶 균형 분석모델

결정 요인		균형의 성격	
조직 요인	개인 요인	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문화 • 조직 특성 가족 요인 • 가족 특성 • 가족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 성 • 에너지 • 성격 • 개인적 통제 및 대처 • 생애 및 경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삶 균형 • 일 중심적 균형 • 가정 중심적 균형 • 일 → 삶 방해 또는 전이 • 삶 → 일 방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간 • 자유시간 • 가족역할

		또는 전이	
--	--	-------	--

출처: 김요섭·여영훈(2021: 7), Guest(2002)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왜 일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며, 최근의 이론과 전통적 관점의 접근을 논의한 Guest(2002)의 연구에서는 조직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이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유럽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적 요인과 가족 특성 그리고 특정 집단 또는 연령층 및 직업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김성국 외, 2017; 박용호, 2015; 김요섭·여영훈, 2021; 손영미 외, 2011; 정미숙 외, 2017; 이소담·이승연, 2017; Lambert et al., 2006).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성의 일과 삶의 불균형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김요섭·여영훈, 2021), 정부출연기관의 비정규 연구 근로자(서여주, 2015), 맞벌이 부부(최환규·김성희, 2018)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되어 왔다. 특정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준다는 자원증대가설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분석한 김주엽 외(2011)¹⁰⁾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가정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할 때 균형

10) 김주엽, 박상언, 지혜정, 「일-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 과 직무만족 및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인적자원개발연구』 14(1),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1, 1~29면.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요섭·여영훈(2021)의 따르면, 기존의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많은 연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그리고 조직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관계에서 특히, 개인적 요인을 다룬 연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영미 외, 2011; 정미숙 외, 2017; 이소담·이승연, 2017). 개인적 차원에서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여성의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력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도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주몽(2020)¹¹⁾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과 원활한 의사소통 및 교류는 직장 내 부정적인 요소들을 완화함으로써, 직장 내 갈등과 문제 등이 개인의 생활 등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의 문화도 일과 삶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영미·박정열, 2014; 신동은, 2015). 이들 연구에서는 근로자 또는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이 속한 조직에서 나타나는 조직문화가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조직문화가 집단적일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친화적인 문화를 가질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기관의 유형, 위치, 제공하는 지원제도 등 기관의 특성도 일과 삶의 균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세정, 2012; 이소담·이승연, 2017; 김요섭·여영훈, 2021; 정미숙 외, 2017). 즉, 근로자가 어떤 조

11) 최주몽, 『혁신문화, 조직커뮤니케이션, 업무자율성이 직원의 워라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직이나 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의 일과 삶 균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유무도 일과 생활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손영미·박정열, 2014).

또한, 조성균·최천(2017)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강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고용안정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바 있으며, 윤병훈·최응렬(2014)은 전라도 지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조직 내 개인 특성이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혜은·서상숙(2016)의 연구에서는 제조업 분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대학병원의 간호사 사례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삶의 질, 조직 효과성 등을 분석한 An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조직문화가 온전하고, 삶의 질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내에서 조직 효과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는 데 있어, 직장남녀 그룹을 대상으로 중국인과 미국인의 차이를 살펴본 Yang et al.(2000)의 연구에서는 가족수요(family demand)와 노동수요(labor demand) 등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가족수요는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등에 따른 시간적 압박으로 직무요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서구적 맥락에서 일-가정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가정 갈등은 업무상 문제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

간적-행동적 갈등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기반 및 가족적 갈등은 직무만족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ambert et al., 2006).¹²⁾ 일-가정 갈등에 대해서 분석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직장내 업무량이 가정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lies et al., 2007).

이처럼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개인 차원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근무하는 기관이나 조직의 특성, 그리고 가족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도, 특정 지역의 여성 집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특정 연구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었듯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일과 삶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지역의 임금 근로자 여성이 지각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건설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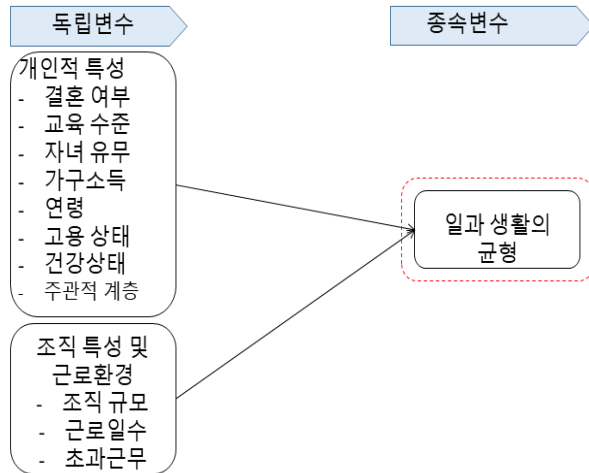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제주지역 임금 근로자 여성의 일과 삶 균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연구

12) Lambert et al. (2006)에 따르면, 일가정 갈등(WFC)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정 관련 문제가 업무로 전이되는 가족기반 갈등이며, 둘째는 직장에서 가족생활에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시간 기반 갈등, 셋째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넷째는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모형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일과 삶의 균형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일, 가정, 여가, 균형 성장, 그리고 전반적인 일과 삶의 균형 수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척도를 활용해왔다(김정운·박정열, 2008; 김요섭·여영훈,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직접적으로 개인이 인지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측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 특성 및 근로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특성에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혼, 교육, 자녀, 소득, 연령, 고용 상태, 건강 상태, 주관적 계층 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조직 특성 및 근로환경에는 조직의 규모, 근로일수, 초과근무 여부 등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혼상태에 따른 배우자 동거와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2>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제주도에 주거하는 여성 근로자이다. 해당 자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조사 2021’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조사자료는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과 고용, 임금, 그리고 근로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내용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근로 조건과 취업 경로, 그리고 현 일자리를 선택하게 된 이유, 직업훈련, 코로나19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직무만족 및 직무스트레스, 직장에서의 차별과 폭력, 경력단절, 일과 생활 균형 등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이 조사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28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약 2주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대인면접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에 응답한 제주지역의 여성 임금 근로자는 총 634명이며, 연령과 지역 그리고 산업분포별 비례할당표집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634개의 유효 사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

<표 6> 설문조사 자료의 개요

구분	내용
자료수집시기	• 2021년 6월 28일~2021년 7월 10일
조사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분석단위	• 개인
조사대상	• 제주지역 내 여성 임금근로자
자료수집방법	• 대인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 연령, 지역, 산업분포별 비례할당표집
사례수	• 634 (유효사례)
가중치	• 없음

출처: KOSSDA(<https://kossda.snu.ac.kr/handle/20.500.12236/25621>)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도구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귀하는 현재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가 활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과 가정, 가족, 여가, 삶 등과의 균형에 대한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김정운·박정열, 2008; 김요섭·여영훈, 2021). 일과 삶의 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주요 결과였다(김요섭·여영훈, 2021; 서여주, 2015; 최환규·김성희, 2018).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의 척도를 구성한 김정운·박정열(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일과 삶의 주요 영역으로 일-가족-여가-성장 등을 활용해 측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간-에너지의 분배, 일과 삶의 영역 간 전이,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척도는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과 삶이 균형적이지 않은 것이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 특성 및 근로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특성에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결혼, 교육, 자녀, 소득, 연령, 고용 상태, 건강상태, 주관적 계층 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조직 특성 및 근로 환경에는 조직의 규모, 근로일수, 초과근무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일과 삶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손영미·박정열, 2014; 홍선희 외, 1998), 근무경력 등 근속연수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고용형태,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김요섭·여영훈, 2021). 또한, 기관

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과 관련된 요인은 조직별로 상이한 문화와 일과 생활 균형 지원제도 등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김요섭·여영훈, 2021), 본 연구에서도 대리(proxy) 변수로 조직의 규모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통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7> 변수의 개요 및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일과 삶의 균형 수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별거 ③ 이혼 ④ 사별
교육 수준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 (3년제 이하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재학 이상
자녀 유무	응답자의 자녀 수
평균 가구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연령	응답자의 연령
고용 상태	① 전일제 근로 ② 시간제 근로
근속 년수	응답자의 현직장 근무기간
건강 상태	① 매우 좋음 ② 대체로 좋음 보통 ③ 보통 ④ 좋지 않음 ⑤ 매우 좋지 않음
주관적 계층	① 하하층 ② 하층 ③ 중하층 ④ 중간층 ⑤ 중상층 ⑥ 상층 ⑦ 상상층
제주 출생 여부	① 제주지역 ② 국내 타 시도 ③ 국외
자녀(막내)의 나이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조직 규모	응답자의 직장 종사자 규모
평균 근로일수(주당)	응답자의 주평균 근무 일수
초과 근로 여부	응답자의 주평균 초과 근무 시간(주당)

4. 분석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대가 117명(18.45%), 30대가 110명(17.35%), 40대 150명(23.66%), 50대 160명(25.24%), 그리고 60대 이상 집단이 97명(15.30%)이다. 연령분포는 5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약 44.3세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가 409명(64.51%)으로 대부분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인 여성은 158명(24.92%)으로 나타났으며, 사별은 31명(4.89%), 이혼은 35명(5.52%), 그리고 별거는 1명(0.1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으로 인식한 여성이 83명(13.09%), ‘대체로 좋음’으로 인식한 여성이 330명(52.05%)로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약 65.14%가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통해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로 응답한 여성이 267명(42.11%)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업은 207명(32.65%), 4년제 대학 졸업은 137명(21.61%)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본 결과, 전일제 근로자가 474명(74.76%), 시간제 근로자가 160명(25.24%)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응답자의 주요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연령층	20대	117	18.45	18.45
	30대	110	17.35	35.80
	40대	150	23.66	59.46
	50대	160	25.24	84.70
	60대 이상	97	15.30	100.00
혼인상태	별거	1	0.16	89.59
	이혼	35	5.52	95.11
	사별	31	4.89	100.00
	미혼	158	24.92	24.92
	배우자 있음	409	64.51	89.43
건강상태	매우 좋음	83	13.09	13.09
	대체로 좋음	330	52.05	65.14
	보통	179	28.23	93.38
	좋지 않음	38	5.99	99.37
	매우 좋지 않음	4	0.63	100.00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1	4.89	4.89
	고등학교 졸업	236	37.22	42.11
	전문대(3년제 이하) 졸업	207	32.65	74.76
	4년제 대학 졸업	137	21.61	96.37
	대학원 재학 이상	23	3.63	100.00
근로형태	전일제 근로	474	74.76	74.76
	시간제 근로	160	25.24	100.00
전체		634	100%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다음으로,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수준은 평균적으로 3.4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통이다(3)’ 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과 삶이 어느 정도는 균형이 잡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

적인 가구 소득(household income)을 살펴보면 월평균 8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응답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은 약 4.8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근속연수는 1년 이하부터 7년까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3.19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생 지역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3%가 제주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6.4% 정도가 제주 외(해외 포함)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의 나이는 1세부터 45세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평균 나이는 약 15.7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 대상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는 1~4명, 5~9명, 그리고 30명 이하의 소기업 등이 74.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여성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주당 5.03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의 경우 1일 또는 7일을 근무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약 2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과 삶의 균형 수준	634	3.416404	.9133635	1	5
결혼 여부	634	.6451104	.4788576	0	1
교육 수준	634	2.818612	.9473838	1	5
자녀 유무	634	.5425868	.4985764	0	1
평균 가구소득	634	481.5615	221.3834	80	2000
연령	634	44.31861	12.89253	20	70
고용 상태	634	.7476341	.4347131	0	1
근속 연수	634	3.198738	1.697019	1	7
건강 상태	634	3.709779	.7915423	1	5
주관적 계층	634	3.615142	.9589477	1	7
제주 출생 여부	634	.8359621	.3706023	0	1
자녀(막내)의 나이	344	15.76744	8.567243	1	45
조직 규모	634	2.476341	1.588935	1	7

평균 근로일수(주당)	634	5.033123	.8359086	1	7
초과 근로 여부	634	.2460568	.4310521	0	1

3)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의식도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있을 때, 막내의 나이가 많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준도 높아져, 정(+)의 관계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이상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¹³⁾은 의심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다. 막내의 나이와 연령변수 간에는 0.78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의 나이도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분석에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된다.

13)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결과에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독립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 이에 대한 통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변수의 설명력이 약해지는 등 분석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 10> 변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일과 삶의 균형 수준	1													
결혼 여부	-0.0661	1												
교육 수준	0.0053	-0.1073*	1											
자녀 유무	-0.1049*	0.5167*	0.0415	1										
평균 가구소득	0.1355*	0.1708*	0.2049*	0.1233*	1									
연령	-0.0002	0.4293*	-0.3641*	0.2366*	-0.1076*	1								
고용 상태	-0.0015	0.0472	0.1917*	0.0715	0.1615*	0.0205	1							
근속 년수	0.0495	0.3066*	-0.0257	0.1748*	0.1110*	0.3735*	0.2694*	1						
건강 상태	0.0997*	-0.1388*	0.2183*	-0.0327	0.1128*	-0.2920*	0.0393	-0.0817*	1					
주관적 계층	0.1742*	0.0599	0.2482*	0.0707	0.4085*	-0.0644	0.1001*	0.1461*	0.1711*	1				
제주 출생 여부	0.0388	0.0364	-0.0219	0.0122	0.1395*	0.0436	-0.0024	0.0645	0.0259	0.0977*	1			
자녀(막내)의 나이	0.1722*	-0.2607*	-0.2933*		0.0085	0.7801*	0.0368	0.2042*	-0.1119*	0.0583	0.1124*	1		
조직 규모	0.0721	-0.0972*	0.2831*	0.0043	0.1266*	-0.1922*	0.2018*	0.0721	0.0448	0.0707	-0.0200	-0.1431*	1	
평균 근로일수(주당)	0.0150	-0.0061	-0.0323	-0.0280	0.0513	0.0676	0.3100*	0.1023*	0.0193	-0.0373	0.0074	0.0412	-0.0369	1

주: * p< 0.05, (1)-(14)는 다음과 같음(일과 삶의 균형 수준, 결혼 여부, 교육수준, 자녀 유무, 평균 가구소득, 연령, 고용 상태, 근속연수, 건강상태, 주관적 계층, 제주 출생 여부, 자녀(막내)의 나이, 기업 규모, 평균 근로일수(주당))

4) 집단 간 비교 분석

회귀분석에 앞서, 배우자 동거 유무별과 고용형태별로 일과 삶의 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배우자 동거 유무별로 살펴본 결과,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0.126 정도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이러한 결과는 무조건적으로 배우자의 존재가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 전이효과로 나타나, 일과 배우자 등 가족 간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11> 배우자 동거 유무별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A) 배우자 없음 (사별, 이혼 등 포함)	225	3.497778	.0591355	.8870318
(B) 배우자 있음	409	3.371638	.0457656	.925551
전체	634	3.416404	.0362743	.9133635
차이: (A)-(B)		.1261396	.0747762	-.0207908

주: 통계적으로 유의함($p < 0.1$)

다음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을 비교하였다. 상대적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수준이 0.0031 정도 매우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적고,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회귀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표 12> 고용형태별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

집단	관측치	평균	표준오차	표준편차
(A) 시간제 근로자	160	3.41875	.0678	.8576102
(B) 전일제 근로자	474	3.415612	.042822	.9323009
전체	634	3.416404	.0362743	.9133635
차이: (A)-(B)		.0031382	.0801908	-.1546796

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5) 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배우자 동거 유무별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전반적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유무와 평균적인 가구소득, 건강상태, 주관적 계층의식, 기업 규모, 초과근무 여부 등이 일과 생활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경우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자녀가 없는 여성 근로자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12, p<0.05$). 그리고 평균적인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9, p<0.05$). 건강상태($\beta=0.088, p<0.05$)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계층의식($\beta=-0.139, p<0.01$)도 높아질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이나 조직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기업이나 조직 규모가 클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7, p<0.1$). 초과근무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경험한 여성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078, p<0.1$). 이러한 결과를 배우자 동거 유무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균 가구소득, 건강상태와 초과근무 여부 등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3> 일과 생활의 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배우자 동거 유무)

		(1) 전체모형	(2) 배우자 동거	(3) 배우자 비동거(미혼 포함)	
개인적 특성	결혼 여부	-0.066 (0.0935)	-0.084 (0.154)	0.025 (0.143)	
	교육 수준	-0.051 (0.0438)	-0.088 (0.0658)	-0.007 (0.0586)	
	자녀 유무	-0.112** (0.0822)	.	.	
	평균 가구소득	0.109** (0.000179)	0.158*** (0.000284)	0.056 (0.000244)	
	연령	0.074 (0.0337)	0.049 (0.0597)	0.057 (0.0468)	
	고용 상태	-0.041 (0.0865)	-0.043 (0.119)	-0.050 (0.126)	
	근속 년수	0.043 (0.0265)	0.070 (0.0349)	-0.000 (0.0401)	
	건강 상태	0.088** (0.0501)	0.033 (0.0750)	0.144** (0.0661)	
	주관적 계층	0.139*** (0.0380)	0.142*** (0.0483)	0.144** (0.0621)	
	제주 출생 여부	0.009 (0.107)	-0.032 (0.156)	0.049 (0.146)	
	조직 특성 및 근로환경	조직 규모	0.087* (0.0255)	0.092 (0.0353)	0.062 (0.0358)
		평균 근로일수 (주당)	0.022 (0.0435)	0.003 (0.0630)	0.031 (0.0615)
		초과근무여부	-0.078* (0.0843)	-0.113** (0.124)	-0.044 (0.115)
N		634	344	290	
	R2	0.077	0.088	0.066	

주: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다음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일제 여성 근로자와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인지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일제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유무, 평균 가구 소득, 연령, 건강상태, 주관적 계층, 기업 규모, 초과근무 여부 등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제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과 평균 가구 소득, 주관적 계층 등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일제 여성 근로자는 자녀가 있는 집단일수록 일과 생활 균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110, p<0.05$), 평균 가구소득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86, p<0.1$).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일과 생활의 균형이 높으며($\beta=0.131, p<0.05$), 건강상태($\beta=0.119, p<0.05$)와 주관적 계층($\beta=0.105, p<0.05$)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일과 생활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103, p<0.05$), 초과 근무를 경험한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일과 생활 균형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103, p<0.1$).}}

<표 14> 일과 생활의 균형 영향요인 분석 결과(고용형태별)

		(1) 전체모형	(2) 전일제	(3) 시간제
개인적 특성	결혼 여부	-0.066 (0.0935)	-0.075 (0.107)	-0.062 (0.183)
	교육 수준	-0.051 (0.0438)	-0.017 (0.0540)	-0.150* (0.0770)
	자녀 유무	-0.112** (0.0822)	-0.110** (0.0992)	-0.115 (0.149)
	평균 가구소득	0.109** (0.000179)	0.086* (0.000205)	0.237*** (0.000385)
	연령	0.074 (0.0337)	0.131** (0.0403)	-0.058 (0.0673)
	고용 상태	-0.041 (0.0865)		
	근속 년수	0.043 (0.0265)	0.040 (0.0305)	0.020 (0.0514)
	건강 상태	0.088** (0.0501)	0.119** (0.0555)	-0.011 (0.113)
	주관적 계층	0.139***	0.105**	0.234***

		(0.0380)	(0.0437)	(0.0778)
	제주 출생 여부	0.009 (0.107)	0.024 (0.127)	-0.064 (0.197)
조직 특성 및 근로환경	조직 규모	0.087* (0.0255)	0.103** (0.0297)	0.088 (0.0509)
	평균 근로일수 (주당)	0.022 (0.0435)	0.040 (0.0698)	0.020 (0.0587)
	초과근무여부	-0.078* (0.0843)	-0.103** (0.0931)	0.014 (0.189)
	N	634	474	160
	R2	0.077	0.078	0.153

주: Standardized beta coefficients;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 < 0.1, ** p < 0.05, *** p < 0.01

추가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사항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 및 고용상태별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제주지역 여성 근로자가 인식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정시퇴근 문화의 정착’과 ‘가족 내 가사 및 양육의 분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각각 197명(31.07%)과 120명(18.93%)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97명(23.72%), 배우자가 없는 경우 100명(44.44%)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정시퇴근 문화의 정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근로의 형태의 경우 전일제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의 159명(33.54%)이 정시퇴근 문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족 내 가사 및 양육분담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동거하는 여성의 105명(25.67%)이 가사 및 양육분담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의 형태가 전일제인 경우, 91명(19.2%)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기업 및 조직의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될 필요성과 가정에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충분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5>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
(단위: 명, %)

구분	배우자 동거 여부		근로형태		전체
	x	O	시간제	전일제	
정시퇴근 문화의 정착	100	97	38	159	197
	44.44%	23.72%	23.75%	33.54%	31.07%
주말 및 휴일 근로 축소	42	62	33	71	104
	18.67%	15.16%	20.63%	14.98%	16.40%
다양한 시간대 보육시설의 확충	14	39	13	40	53
	6.22%	9.54%	8.13%	8.44%	8.36%
가족 내 가사 및 양육의 분담	15	105	29	91	120
	6.67%	25.67%	18.13%	19.20%	18.93%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32	76	31	77	108
	14.22%	18.58%	19.38%	16.24%	17.03%
법적 제도의 시행 강화	20	30	16	34	50
	8.89%	7.33%	10.00%	7.17%	7.89%
기타	2	0	0	2	2
	0.89%	0.00%	0.00%	0.42%	0.32%
전체	225	409	160	474	634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출처: 제주여성가족연구원(2021)의 자료를 토대로 저자 추정

상기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제주 지역의 여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미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여성이 가족을 위해 육아 및 가사노동의 역할이 과도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성지미, 2006; 손영미, 박정열, 2015; 박정열 외, 2016, 김요섭, 여영훈, 2021). 즉, 직장에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가정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일과 삶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의 증가는 일과 삶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을 경우, 육아 및 가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며, 업무와 삶에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영미 외, 2011).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의식도 높을수록 여성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건강할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다(정미숙 외, 2017). 그리고 기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클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이었으며, 초과근무가 과다할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녀를 육아하는데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과도한 초과근무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주관적 계층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조직 차원에서의 건강관리와 근로자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여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작은 조직에 비해서,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연차와 근로시간 관리, 육아휴직 등 친가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이러한 조직의 근로자들은 공식적인 규범과 관리하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향상하는데 긍정적인 환경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소조직의 경우는 근로환경과 조직 내 규범 및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과 생활의 균형에 있어 업무 중심적인 결정이 우선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의 일과 삶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에 포함된 634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평균적인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3.41 수준으로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높게 나오지 않았다(서여주, 2015; 최환규·김성희, 2018; 김요섭·여영훈, 2021). 이러한 결과는 제주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높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분석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일과 삶의 불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높아질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 근로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건강상태는 일과 삶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된다. 또한, 조직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조직 또는 기업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보다 큰 조직에서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직이 클수록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초과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분위기 및 시대적 변화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과거보다 중요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조직에서는 이러한 가정친화적 제도를 구축하는데 있어, 장애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먼저 인식의 전환을 통한 일과 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기관 및 기업에 대해서 일과 생활 균형을 촉진할 수 있는 사례집 및 책자 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할 필요성이 있을 것

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일과 생활 균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포상한다면, 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성되어 제도적 마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천시와 같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워라벨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가족친화 인증 컨설팅’과 같은 가정친화적 제도를 운영 중이다.¹⁴⁾ 이 제도는 근로자의 워라벨 개선을 위해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 등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도 지역의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기도는 2020년 5월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인의 여가와도 연계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여성 임금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지만, 기초사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주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질적인 내용을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는 개인-가족-조직 요인 중에서,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 상세히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후속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삶의 만족도를 고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추진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직무별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14) 인천광역시(<https://www.incheon.go.kr/welfare/WE0903011>)

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다소 제약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강우란·배노조·정지영, 『경영의 새 화두: 일과 생활의 균형(WLB)』, CEO Information, 2006, 558, 1~21면.
- 강혜련·윤미자, 「여성관리자의 다중역할 몰입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인사관리연구』 28, 2004, 55~85면.
- 김성국·박수연·이현실, 「직장 기혼 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5(3),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267~275면.
- 김요섭·여영훈, 「사회복지사의 일-삶 균형에 미치는 영향요인: 지역복지관 종사자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9(3), 여가문화학회, 2021, 1~25면.
- 김정운·박정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여가학연구』 5(3), 여가문화학회, 2008, 53~69면.
- 김정운·박정열·손영미·장훈, 「일과 삶의 조화 (Work-Life Balance)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효과성」, 『여가학연구』 2, 여가문화학회, 2005, 29-48.
- 김주엽·박종찬·김찬중, 「일과 생활의 균형, 만족 및 이직의도의 관계」,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3, 2009, 121~153면.
- 박세정,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자치연구』 14(1), 2012, 49~75면.
- 박용호, 「홀리스틱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본 일터에서의 일-생활 균형 (work-life balance)」,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9, 2015, 51~69면.
- 박정열·손영미·신규리, 「기혼 직장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2016, 69~81면.
- 서여주, 「직무불안이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에 미치는 영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 연구 근로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3, 2015, 1~24면.
- 성지미,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4), 2006, 1~29면.
- 손영미·김정운·박정열, 「중앙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조직 및 개인 변인의 영향력 검증 연구」, 『여가학연구』 9(1), 2011, 101~131면.
- 손영미·박정열, 남녀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변인과 결과 변인의 차이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2), 2014, 161~190면.
- _____,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조직, 지역사회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국가비교연구: 한국, 일본, 영국 기혼여성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2015, 51~74면.
- 신동은, 「기업조직의 특성이 여성관리자의 일-삶 (work-life) 균형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7, 2015, 127~164면.
- 신승배·고지영·선민정, 「제주지역 여성근로자 근로실태와 정책 방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 정미숙·김현리·이윤정, 「한국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6(2), 2017, 114~123면.
- 정서린·장윤옥,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지지, 직장 지지 및 일-가족 전이가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1(3), 2017, 97~119면.
- 최주몽, 「혁신문화, 조직커뮤니케이션, 업무자율성이 직원의 워라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최환규·김성희, 「개인, 가족, 조직관련 요인이 일-삶 균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2(4), 2018, 33~60면.
- 홍선희·양병화·오세진, 「관여, 기대 및 지지에 따른 직장-가정 갈등 요인의 효과모델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1(2), 1998, 1~19면.

- An, J. Y., Yom, Y. H., & Ruggiero, J. S., “Organizational culture, quality of work lif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Korean university hospital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2(1), 2011, pp. 22~30.
- Barnett, R. C., & Hyde, J. S., “Women, men, work, and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56, 2001, pp. 781 - 796.
- Greenhaus, J. H., & Beutell, N. J.,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1), 1985, pp. 76~88.
- Greenhaus, J. H., & Powell, G. N., “When Work and Family are Allies: A theory of Work-Family Enrich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 2006, pp. 72~92.
- Greenhaus, J. H., Collins, K. M., & Shaw, J. D, The relation between work - family balanc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3(3), 2003, pp. 510~531.
- Guest, D. E.,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work-life balance”, *Social Science Information*, 41(2), 2002, pp. 255~279.
- Ilies, R., Schwind, K. M., Wagner, D. T., Johnson, M. D., DeRue, D. S., & Ilgen, D. R., “When can employees have a family life? The effects of daily workload and Affect on work-family conflict and social behaviors at hom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 2007, pp. 1368~1379.
- Kirchmeyer, C., “Work-life initiatives: Greed or benevolence regarding workers' time?” In C. L. Cooper & D. M. Rousseau(Eds.), *Trends in organizational behavior*(pp.79-93). West Sussex, UK: Wiley, 2000.
- Lambert, E. G., Pasupuleti, S., Cluse-Tolar, T., Jennings, M., & Baker, D., “The impact of work-family conflict on social work and human service worke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 exploratory study”,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0(3), 2006, pp. 55~74.
- Sirgy, M. J., & Wu, J., “The pleasant life, the engaged life and the meaningful life: What about the balance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 2009, pp. 183~196.

Yang, N., Chen C. C., Choi, J., & Zou, Y., "Source of work-family conflict: A sino-U.S.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work and family demand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 2000, pp. 113~123.

■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Work-Life Balance

: Focusing on Female Workers in Jeju Area

Park, Geon W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ous factors affecting the work-life balance of female workers, especially focusing on Jeju Island. Work-life balance is a social change and i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of life in modern society. In general, although women perceive work-life balance more important than men, women's work and life are found to be imbalanced. In other words, an imbalance occurs due to excessive role expectations at home along with work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d cases centering on the Jeju area,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 on the work-life balance of female wage worker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y marriage status and employment type of women. More specifically, personal factors such as the presence and age of children, health, and socioeconomic status, as well as the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overtime work were found to be important. Through the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ese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work-life balance of female workers.

Key words: work-life balance, Jeju area, female worker, family-friendly policy, paid employee

이 논문은 2022년 8월 27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27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27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문창배* 최영진**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및 해석
5. 논의 및 결론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8개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총 1,21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회복탄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별 요인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로부터 받는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세 요인 모두 상황이 좋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부모의 물질적 지원이 높았고, 부모의 물질적 지원 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높이는 것이 회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책연구위원.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탄력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교육기관에서는 학생의 정서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다.

주제어 : 회복탄력성,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는 학습격차, 우울, 위축감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교육부, 2021). 등교 축소에 따른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아졌고(여성가족부, 2021), 사회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고령화, 저출산, 경제적 위기 등의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자(김주환, 2011) 자신의 역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Garmezy, 1993; Luther, Cicchetti & Becker, 2000).

우문식(2014)은 살아가면서 겪는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회복탄력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정감에도 영향을 미친다(Anthony, 1987).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사전 연구

에서 회복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원활하게 한다는 결과가 많다.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고 학업성취가 좋으며,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구자은,2000), 학교생활이나 개인문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재홍, 윤경란, 2007). 또한 회복탄력성은 아동들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적인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데 유용하며(이해리, 조한익, 2005)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되는 학업성취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nthony, 1987).

이러한 선행연구로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로, 친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며,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높다.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졌지만,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가치관 정립 등에서 미성숙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학생의 일상적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은 보편적이며 일상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회복탄력성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차이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중학생들의 성별, 학년별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

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어떤 요인에 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고찰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심리학, 사회학 분야에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인간의 능력(한선영, 2015), 내적, 외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능력(Waters & Sroufe, 1983)을 말한다.

선행연구들은 회복탄력성을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능력(Reivich & Shatte, 2003),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Rutter, 1985)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힘든 처지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고무공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인간 내면의 힘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송유진, 2015). ‘탄성’이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다. 이러한 물질의 유연함과 탄성의 의미를 사회과학에서 개인의 회복력이라는 의미에서 ‘탄력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자아탄력성(ego-resilience)’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회복탄력성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요인도 다양하다. 회복탄력성은 환경에 개방적인 성향,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성향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송유진, 2015).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은 개인의 기질, 인지능력, 성격적 특성, 대인관

계 등의 내적요인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학교생활 등의 외적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해리, 조한익, 2005). Wagnild와 Yong(1993)은 인내심, 자기신뢰, 의지력, 독립심, 평정심을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Reivich와 Shatte(2003)는 정서조절력, 충동통제력, 낙관성, 원인분석력,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성 7가지를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홍은숙(2006)은 역경에 대처하는 개인의 내·외적인 능력을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이라고 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개인 내부의 자원으로서 원인분석능력, 감정통제능력, 충동통제능력, 평이한 기질과 높은 인지 능력 등을 포함한다. 둘째는 가정 내 환경으로서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외적 자원이며, 셋째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능력, 타인공감능력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인 사회성(sociability)도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구성한다(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2009). 또한 Reivichi와 Shatte(2003)는 타인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인 공감(empathy)을 회복탄력성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들고 있다. 신우열 외(2009)는 위계적 모형으로 회복탄력성의 구성요인을 9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신우열 외(2009)의 9가지 분류를 구성요인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경험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균형있게 조절하고, 현실

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이다(김용래, 1993). 학교생활적응은 학습자들이 학교를 통해 사회적인 동화와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적이 좋다고 하였다(최영자, 2008).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및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집단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이 커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과제를 형성하는 시기로서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도 관련이 깊다(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이에 따라 최근까지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송유진, 2015),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장경문, 2003)와의 관계나 회복탄력성 요인에 대한 분석(이선형, 문수백, 2016)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력이 뛰어나며(김연경, 2014) 정서표현능력을 향상시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도 한다(임선미, 2014). 이처럼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것은 생활 전반에 잘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회복탄력성과 가정환경과의 관계

회복탄력성은 가정변인과 사회환경 변인 등의 다각적인 영향을 받는다(전지원, 2021). 김영은 외(201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정서적지지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 미루어 볼 때 회복탄력성은 가정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영은 외(2018)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하나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 가정환경에 중점을 두어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

서적 지원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 내 중학교 8개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총 1,21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학급은 해당학교에서 임의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1,300부가 배부되었으며, 이 중에서 총 1,216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민감한 청소년기임을 감안하여 설문조사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 응답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며 진행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

	학년			합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학생	208 (29.9%)	253 (34.3%)	235 (31.9%)	696 (57.2%)
여학생	201 (38.7%)	177 (37.0%)	142 (29.6%)	520 (42.8%)
합 계	409 (33.6%)	430 (35.4%)	377 (31.0%)	1,216 (100.0%)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

한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에서 활용된 측정도구에 연구자가 회복탄력성 척도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는 신우열 외(2009)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을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하위 9가지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9가지 요인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 관계성, 커뮤니케이션능력, 공감능력이며 각 요인에 대해 3문항씩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아주 그렇다=4점’, ‘항상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 값은 .893이다.

<표 2> 회복탄력성 척도의 문항구성

요인	내용	신뢰도 (Cronbach α) .893
원인분석력	나는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882
감정통제력	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880
충동억제력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880
감사하기	나는 감사해야 할 것이 많다.	.885
생활만족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880
낙관성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875
관계성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다.	.886
커뮤니케이션	나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뜻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 찾아낸다.	.876
공감능력	친구가 화 낼 때 나는 그 이유를 꽤 잘 아는 편이다.	.885

3) 자료처리 및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과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의 집단 요소 간 회복탄력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F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 총 5가지 요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을 추출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해석

1)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과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성별 및 학년별 요인과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환경별 요인 즉,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경제가 양호할수록,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을수록 회복탄력성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보다는 부모의 물질적 지원이 높았고, 부모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회복탄력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성별	학년	가정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	회복탄력 성
성별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도						
	N	1216					
학년	Pearson 상관계수	-.011	1				
	유의도	.694					
	N	1216	1216				
가정 경제수준	Pearson 상관계수	-.035	-.142(**)	1			
	유의도	.219	.000				
	N	1216	1216	1216			
부모의 물질적 지원	Pearson 상관계수	.033	-.010	.260(**)	1		
	유의도	.248	.726	.000			
	N	1216	1216	1216	1216		
부모의 정서적 지원	Pearson 상관계수	.064(*)	-.053	.189(**)	.352(**)	1	
	유의도	.025	.067	.000	.000		
	N	1216	1216	1216	1216	1216	
회복탄력 성	Pearson 상관계수	-.058	-.038	.205(**)	.259(**)	.378(**)	1
	유의도	.054	.181	.000	.000	.000	
	N	1216	1216	1216	1219	1216	1216

* : p< .05, ** : p< .01

2) 집단 요인별 회복탄력성 분석

① 성별과 회복탄력성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남학생 평균이 2.89로 여학생 평균 2.77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연구(박재규, 2013)에서 회복탄력성 요소 중 감정통제력이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논문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성별과 회복탄력성

	성별	N	M	SD	t	p
회복탄력성	남학생	696	2.89	.79	1.956*	.046
	여학생	520	2.77	.76		

* : $p < .05$

② 학년별 회복탄력성

학년별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학년과 저학년 등 학년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대해 느끼는 차이는 없다고 하겠다.

<표 5> 학년별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1학년	409	2.85	.77	2	.897	.408
2학년	430	2.81	.75			
3학년	377	2.78	.80			
합계	1216	2.82	.78			

③ 가정의 경제수준별 회복탄력성

가정 경제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가정경제가 매우 어려운 편이 평균이 2.29로 가장 낮았으며, 어려운 편 2.47, 보통 2.73, 잘 사는 편 2.96, 매우 잘 사는 편 3.27 순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수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려운 편(b)와 잘 사는 편(d)·매우 잘 사는 편(e)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냈다.

<표 6> 가정경제 수준별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Scheffe'
가정 경제 수준	매우 어려운 편(a)	3	2.29	.71	4	14.663***	.000	a,b<d,e c<d,e d<e
	어려운 편(b)	54	2.47	.69				
	보통(c)	756	2.73	.78				
	잘 사는 편(d)	335	2.96	.74				
	매우 잘 사는 편(e)	68	3.27	.64				
	합계	1216	2.81	.78				

*** : p< .001

④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부모의 물질적 지원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의 물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이 2.29로 가장 낮았으며, 조금 받음 2.31, 보통 2.58, 받는 편 2.63, 충분히 받는 편 3.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물질적 지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수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충분히 받는 편(e)은 그 외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부모의 물질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Scheffe'
부모의 물질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함(a)	21	2.29	.97	4	26.799***	.000	a,b,c,d<e
	조금 받음(b)	23	2.31	.72				
	보통(c)	256	2.58	.75				
	받는 편(d)	299	2.63	.75				
	충분히 받는 편(e)	617	3.03	.73				
	함 계	1216	2.81	.78				

*** : p< .001

⑤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부모의 정서적 지원에 따른 회복탄력성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평균이 2.27로 가장 낮았으며, 조금 받음 2.29, 보통 2.48, 받는 편 2.81, 충분히 받는 편 3.13 순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앞서 살펴 본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보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 양육참여도는 어머니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시연(202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위수준별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충분히 받는 편(e)과 받는 편은 그 외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회복탄력성

	구분	N	M	SD	df	F	p	Scheffe'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전혀 받지 못함(a)	12	2.27	1.05	4	52.153***	.000	a,b,c,d<e a,b,c<d
	조금 받음(b)	57	2.29	.69				
	보통(c)	332	2.48	.76				
	받는 편(d)	318	2.81	.69				
	충분히 받는 편(e)	492	3.13	.69				
	합계	1216	2.82	.78				

*** : p< .001

3)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회복탄력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에 대한 중학생들의 성별, 학년, 가정 경제수준, 부모의 물질적 지원, 부모의 정서적 지원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R제곱)은 총 분산의 17.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52.636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B= -.117, P<.01)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회복탄력성에 더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년별 요인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B=.129, P<.001)과 부모의 물질적 지원(B=.098, P<.001), 부모의 정서적 지원(B=.249, P<.001)은 양호할수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경우 다른 요인에 비하여 영향력이 큰 만큼 향후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9>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도	N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155	.156		7.40***	.000	
성별	-.117	.041	-.074	-2.82**	.005	1,216
학년별	-.005	.025	-.006	-.21	.832	1,216

가정의 경제수준	.129	.032	.110	4.00***	.000	1,216
부모의 물질적 지원	.098	.023	.120	4.22***	.000	1,216
부모의 정서적 지원	.249	.022	.319	11.38***	.000	1,216
R 제곱=.179 F=52.63*** 유의도=.000						

※ 종속변수 : 회복탄력성

5. 논의 및 결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취직과 결혼, 육아의 모습이 다양해지며 고령화, 저출산, 경제적 위기 등의 사회문제와 결합되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과정이 개인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현장에서는 학습격차, 우울, 위축감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심리·정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만큼, 회복탄력성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회복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사전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원활하게 한다는 결과가 많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로, 친구와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긴밀한 관계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이며,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높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성별, 학년별, 환경별 요인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결과 성별 차이를 토대로 여학생의 경우에는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통제력,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기본적인 성별에 의한 차이로 나타나는 점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 요소와는 다른 기본적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환경별 요인 중에서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부모의 물질적 지원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 교실 등과 같이 이를 인지하며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심적 부분을 충족시켜 줄 다양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발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리하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정서적 교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년별 성장을 고려한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과 동시에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요인에 보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지 규명함으로써 향후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편적·일상적 상황을 주된 요인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제주도라는 특정 지역의 일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일상적 상황에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있어 제한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회복탄력성의 형성에 관한 사항, 환경적 요인의 매개 및 조절효과까지 포함하는 폭넓고 심도 깊은 연구

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재홍, 윤경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 『한국청소년연구』, 18(1), 2007, 185~212면.
- 교육부,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2021.
- 구자은,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연경, 「아동이 지각한 부모공감능력, 회복탄력성, 학교적응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영은 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2018, 5~30면
- 김용래, 「學業成績에 대한 寄與變因의 影響力分析」. 東國大學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은혜, CUI LINA, 노충래,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68호, 2019, 87~114면.
- 김주환, 『회복 탄력성』, 위즈덤 하우스, 2011, 17~20면.
- 박재규, 「성인의 운동참여정도가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4면.
- 송유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공감능력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 -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 「회복탄력성 검사 지수의 개발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4), 2009. 105~131면.
- 여성가족부,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

- 연준희, 「초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이선형, 문수백, 「학령기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6, 136~136면.
- 이해리, 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2005, 161~206면
- 임선미, 「정서표현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장경문,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4), 2003, 143~161면.
- 전지원, 「청년세대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엘리콧터 부모역할과 사회자본의 효과성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7(2), 2021, 425~436면.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 청소년실태조사」
- 최영자,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 주시연, 김경숙,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7호, 2022, 455~469면.
- 한선영, 「회복탄력성, 일-삶 균형과 직무만족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홍은숙,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 2006, 45~67면.
- Anthony, E. J. (1987). Risk,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n overview. *The invulnerable child*, 3~48.
- Garn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 56, 127~136.
- Luthe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Vol. 71, 543~562.
- Reivich, K., & Shatte, A. (2003). *The Resilience Factor: 7 Keys to Finding Your Inner Strength and Overcoming Life's Hurdles*. Harmony. NY :

Broadway Books.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6), 598~611.

Wagnild, G. M., & Young, H. M. (1993).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Resilience Scale. *Journal of nursing measurement*, 1(2), 165~178.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 Abstract

Impacts of the Factors of Sex, Grade, and Environ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Moon, Chang Bae · Choi, Young Ji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factors of sex, grade, and environ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1,216 students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grades of eight middle schools in Jeju-do. As a result of the study, boys had somewhat higher resilience than girls did;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resilience according to their grades. The environmental factor was divided into the economic level of the household, material support from parents, and emotional support, and the better the three factors, the higher their resilience became. The impact of parents' material support on their resilience was greater than the economic level of the household, and that of parents' emotional support was greater than by parents' material support. Thus, to increas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most of all, parents' support for their emo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preparation of an education program concerning students' emotions to support them would be effective.

Key Words: Resilience, Economic level of the household, Parents' material support, Parents' emotional support

이 논문은 2022년 8월 10일 투고되어 2022년 9월 21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22년 9월 21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

『가족과 커뮤니티』 6집

서평: 더 케어 컬렉티브 지음, 정소영 옮김,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위기의 시대, 돌봄의 정치학이 갖는 저항의 의미

윤수진*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은 돌봄의 부재, 즉 ‘무관심’(carelessness)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서두를 연다. 파도에 떠밀려온 익사한 난민의 시체 사진이나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노숙인들을 다룬 뉴스는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이미 오래고, 특히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가 파괴한 돌봄의 제도적, 심리적 인프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 그 무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20년 버소(Verso) 출판사의 ‘코로나바이러스 소책자 시리즈’(Coronavirus Pamphlet Series)의 일환으로 출간된 『돌봄 선언』은 이렇게 전세계적인 팬데믹의 확산, 최근 다시 부상하는 우익과 권위주의 정부의 포퓰리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보편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난 현재의 돌봄의 위기를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하며 “돌봄을 전면에 내세우고 중심에 놓는 정치”(16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 책의 저자인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는 영국 런던을 기반으로 문화 연구, 미디어 연구, 사회학, 심리학, 젠더 연구, 미국학,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집단으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돌봄’(care)이 마주한 다면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연구자들의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다양한 면면을 반영하듯, 『돌봄 선언』은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와 사람보다 이익을 우위에 두는 경제로부터 출발해, 무관심한 국가와 공동체를 거쳐, 무관심의 일상화가 궁극적으로 인간관계의 친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까지”(18-19면)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우리가 처한 돌봄의 위기에 대한 이러한 전방위적 검토와 진단을 경유하며 이 책에서 ‘돌봄’은 “‘직접’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심리적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일”이라는 일상적 의미를 넘어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17면)인 동시에 나아가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 사람과 생물체들이 번성하고, 지구도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사회적□물질적□정서적 조건”(18면)을 의미하는 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한다.

『돌봄 선언』은 이렇게 급진적이고 대안적인 돌봄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삶의 비전을 정치, 친족, 공동체, 국가, 경제, 세상이라는 여섯 가지 영역을 통해 제시한다. 각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섯 개의 장은 각기 다른 맥락과 스케일로 드러나는 구조적 ‘무관심’의 양상을 진단하며 “돌봄이라는 개념을 구성 원칙으로 삼는 세상”(41면)을 만들기 위한 급진적 정치의 기획을 제안하는데, 이를 위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강조되는 것이 돌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인 것은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 파괴된 공공 의료 체계와 복지 제도의 열악한 현실뿐 만이 아니었다. 매우 비극적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팬데믹은 또한 “우리가 살아 있는 생물체로서 다른 모든 인간·비인간 존재들과 공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지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생물·무생물 체계와 연결망에 의존한다는”(174-5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했던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존재의 상호연결성과 의존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와 포용이 돌봄을 개인이나

친족의 문제로 치부하는 제한된 상상력을 넘어 “사회 전체가 돌봄의 보람과 짐을 함께 나누는”(42면) 연대의식과 확장된 돌봄의 윤리를 키우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난잡한 돌봄’(promiscuous care)은 이렇게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확대된 보편적 돌봄 개념의 핵심에 있는 제안이다. “돌봄을 삶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하며 중심에 놓고, 직접적인 대인 돌봄뿐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구 자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돌봄에 대해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사회적 이상”(55면)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족으로 한정되는 돌봄의 대상과 범주를 실험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선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공동 육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선택 가족’(families of choices), 1970년대 2세대 페미니즘의 아이 돌봄 실험 등 이성애중심적 핵가족 단위를 넘어선 다양한 돌봄의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대안 친족 구조에 근거하여 우리가 직접 또는 심리적으로 돌보고 또 함께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배가하는 ‘난잡한 돌봄’의 윤리”(67면)를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돌봄의 ‘난잡함’(promiscuity)이라는 개념은 1980-90년대 미국의 에이즈 인권활동가이자 이론가인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의 「전염병 중에 난잡할 수 있는 방법」(How to Have Promiscuity in an Epidemic)에서 기원한다. 크림프는 당시 손쉽게 전염병의 근원으로 낙인 찍혀 비난 받았던 게이들의 성적 ‘난잡함’을 거꾸로 서로의 건강과 안위를 배려하며 친밀감을 나누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관계 맺기의 실험이라는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한 개념을 저항적, 생산적, 주체적으로 전복한다. 『돌봄 선언』은 이러한 ‘난잡함’의 의미를 이어받아 우리의 돌봄의 범위와 대상을 차별 없이, 실험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난잡한 친족 모델, 난잡한 돌봄의 윤리 속에서 우리는 “이민자와 난민을 돌보는 것이 자국민을 돌보는 것과 똑같이 중요”(85면)함을 주장하고 “우리 가족을

넘어 공동체, 시장, 국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도 아우르는 초국가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의 사회 영역에서”(86면)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가장 먼 관계에 이르기까지 돌봄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증식해 가는 윤리 원칙”(81면)인 난잡한 돌봄의 수행을 통해 우리는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돌봄에 맞서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일상적인 세계시민주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이처럼 『돌봄 선언』이 요청하는 돌봄은 삶의 모든 영역과 수준에서 일어나야 하는 급진적 저항의 정치이자 실천적인 삶의 태도이다. 다름에 대한 차별과 배척을 지양하며 “살아 있는 모든 생명체 간의 상호의존성과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47면)을 전제로 하는 이들의 새로운 돌봄의 비전은 따라서 “페미니즘, 퀴어(queer), 반인종차별주의, 생태사회주의 관점”(48면)에 그 기반을 둔다. 하지만 돌봄의 문제를 현대 좌파 정치학의 다양한 주요 의제들과 겹쳐 놓으며 친족, 공동체, 정치, 경제, 국가, 전지구적 연대라는 거의 모든 존재의 단위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이 책의 광범위한 정치적 기획은 큰 미덕인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한다. 『돌봄 선언』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돌봄의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돌봄의 역량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폭력과 차별의 정치, 돌봄의 위기가 결코 각각 외따로 존재하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인식과 따라서 이러한 전지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속에 우리 모두 각기 다른 규모와 차원에서 돌봄의 수행자로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책의 말미에서 “전 지구적인 무관심을 문제 삼는 것이 단순히 이웃이나 개인 차원에서 떠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국제적 개입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결국 진보적인 변화는 수많은 사람이 모든 종류의 맥락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168면)는 저자들의 말처럼,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배경과 입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처한 “모든 종류의 맥락”을 검

토하고 진단하는 것은 이 얇은 책이 수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다시 말해, 하나의 정치적 기획이자 대안적인 삶의 태도로서 돌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돌봄 선언』의 시도는 선언문이라는 형식을 띤 이 책이 지향하고 있는 정치적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동시에 이런 개념적 명료성과는 별개로 급진적으로 확장된 돌봄의 외연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으로서의 돌봄의 수행 전략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다. 물론 이는 논의의 정치함이나 구체적인 논증보다는 다소 피상적일지라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집중하는 ‘선언문’(manifesto)이라는 장르를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납득할 만한 지점이지만, 실제 돌봄의 현장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논의들이 더해졌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논의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인간·비인간의 경계마저 뛰어넘는 전지구적 돌봄의 확장된 실천이라는 이 책의 제안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의 가능성을 예상한 듯,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91면) 보여주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안 친족의 난잡한 돌봄의 예와 같은 최근의 역사적 사례들을 비롯해 다양한 노동자 및 공동체 협동조합, 지방자치 정부, 시민운동 등을 통한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협업, 돌봄, 노동자에 대한 존경, 민주주의,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례들”(152면)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지구적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 책의 강조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사례들이 영미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돌봄 선언』의 주장에 동의하며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독자라 하더라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은 이 책이 돌봄의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신자유주의를 다루는 방식이다. 본론의 여섯 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들에서 신자유주의는 예외 없이 비판의 초점에 놓이지만 “오로지 이윤과 성장과 국제 경쟁만을

중요시하는 경제구조”(25면)라던가 “신자유주의는 구조적으로 [돌봄에] 무관심”(26면)하다는 정도의 피상적 진술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정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다종다기한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구조들 사이에 존재하는 환원불가능한 차이와 맥락들에 대한 섬세한 고려의 부재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 될 문제의 진단 자체를 불분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좌파 정치학의 큰 과제인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맥락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판 기준 백 페이지 남짓한 짧은 분량 속에 이 책이 담고 있는 광범위한 의제들과 혁명적인 정치적 행동의 요구는 나오미 클라인, 주디스 버틀러를 포함한 몇몇 평자들의 언급처럼 돌봄이 단순히 개인적 혹은 도덕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음을 보여주며 진보적인 초국가적 연대를 위한 하나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사실상 위에 언급한 몇몇 문제들 역시 이들의 논지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짧은 분량의 선언문이라는 형식적 제한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반대로 이런 소책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출간되었기에 가능한 논의의 현재성, 시의성에서 오는 강점 역시 적지 않다. 무엇보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지구적 사태 속에서 돌봄의 위기와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는 이 책의 기획이 갖는 중요성과 의의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무너진 돌봄’(carewashing)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하며 실상은 착취와 환경오염 등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폄훼하면서도 ‘돌봄’을 내세운 광고 캠페인이나 ‘웰빙 상품’ 등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한다거나, “환경과 공급망의 투명성을 피하는 스마트 냉장고”와 같은 “돌봄에 무관심하도록 ‘설계된’ 데이터 장치”(154-5면)의 예를 통해 돌봄의 디지털 인프라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돌봄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매우 중요한 현재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점도 높이 살 만하다.

『돌봄 선언』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드러낸 돌봄의 위기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전지구적 록다운이 뜻하지 않게 보여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의 모습”(161면)의 단편들로 채워진다. 국경도 이익도 의미 없어진 재앙 수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지역의 상호원조 활동들, 스모그가 사라진 푸른 하늘, 노동 시간이 단축되고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광경들을 목격했으며, 이를 통해 저자들은 『돌봄 선언』이 주장하는 돌보는 세상의 비전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팬데믹이 불러온 “현재 신자유주의 규칙들이 무너지는 파열의 시기”는 어찌면 진보적 변화를 위한 전지구적 연대를 시작할 수 있는 “드문 기회”(179면)일지 모른다. 『돌봄 선언』은 신자유주의적 폭력적 삶의 방식에 대한 저항이자 연대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희망으로 지금 우리에게 돌보는 삶의 실천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 및 투고 규정

1. 공통 사항

- 가. 본 규정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격과 절차, 원고 작성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 나. 『가족과 커뮤니티』는 가족, 커뮤니티, 미래 공동체와 관련된 인문학 등 전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수록하되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번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 1) 학위논문 및 이미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본 연구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우선적으로 게재하되, 질의 토론 시간에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어 수정된 논문으로써 심의를 통과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원칙적으로 인문학, 사회학 등 전 학문 영역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생 이상 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교신저자를 두어 투고가 가능하다.
- 라.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소유한다. 이에 대하여 투고자는 ‘저작재산권 이양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2. 발간 횟수 및 시기

- 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기관지 『가족과 커뮤니티』는 매년 2회 발간한다.
- 나. 발행일은 전반기 3월 31일, 후반기 9월 30일로 한다.

3. 접수 시기

- 가. 원고의 접수는 전반기 1월 31일, 후반기 7월 31일에 각각 마감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마감일이 연기될 수 있다.
- 나.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로 넘긴다.

4. 투고 방법

- 가. 투고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투고신청서와 함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해야 한다.
- 나. 투고 논문에는 투고자의 개인 정보나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내용도 담지 않는다.
- 다.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https://check.kci.go.kr>)를 이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라.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재산권 이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5. 논문 구성 형식

- 가. 원고 분량은 원고지(200자) 120매 내외로 하되 150매가 넘지 않도록 한다. 150매가 넘는 경우에는 출판비의 일부를 투고자가 부담해야 한다.
- 나.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 각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논문제목
 - 2) 저자명
 - 3) 목차
 - 4) 국문초록
 - 5) 본문
 - 6) 참고문헌
 - 7) 영문초록
- 라. 국문초록은 A4 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초록 아래에는 논문의 주제와 대표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여 주제어(5~10개 정도)를 첨부한다. 영문초록은 제목, 필자명, 주제어(5~10개 정도)등도 첨부하여야 한다.

6. 논문 작성 양식

가. 모든 원고의 작성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여 투고한다.

- 1) 한글 2005이상으로 작성한다.
- 2) 논문의 장, 절, 항의 부호는 1, 1), ①로 표시한다.
- 3) 저자의 이름은 이름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예: 한국대학교 교수]. 대학 소속의 경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의 경우 ‘교사, 학생’, 연구원 소속의 경우 ‘연구원, 연구사’ 등으로 표시한다.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과 직위를 표시한다. 논문의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 제1저자를 앞에 표시한다.[예: 홍길동(제1저자)·김국중(제2저자)]
- 4) 각주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인용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한 경우	필자명, 년도, ?~?면, 참조.
단행본	필자명, 『書名』, 출판사, 발행년도, ?~?면.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 5) 참고문헌 목록의 표기 형식은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단행본	필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년도.
문집류	저자명, <작품명>, 『서명 내지 문집명』, 출판사, 발행년도.
논문류	필자명, 「논문명」, 『단행본 또는 학회지명』, 출판사, 발행년도, ?~?면

(단행본 또는 학회지 속의 특정 논문을 참고한 경우 그 논문이 수록된 도서의 해당 면수를 밝혀야 한다.)

6) 기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구분	표기 방법	구분	표기 방법
저서, 단행본, 학회지명	『 』	강조, 간접 인용	‘ ’
논문	「 」	직접 인용	“ ”
작품	< >		

7)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표기 형식을 따른다.

[부칙]

가.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논문 심사 규정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의무

- 가. 편집위원회는 임원의 추천과 원장의 결정에 의해 각 전공별로 약간 명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투고 논문의 심사와 학술 논문집 발간을 주관하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다. 논문을 투고한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논문 심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다.
- 라. 학회 임원의 투고 논문에 대해서도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2. 심사위원 위촉

- 가. 편집위원회의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 해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필요시 편집위원 이외의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나. 심사위원은 각 전공 분야별로 연구 업적과 학술 활동이 탁월한 분들 중에서 편집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단, 투고자와 연고가 없는 학자 가운데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논문 심사 절차 및 기준

- 가. 투고기간 종료 후 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1차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나.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심사표, 심사료 등을 동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다.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방법론 및 문제의식의 참신성	상(20)	중(17)	하(14)
	연구 내용 및 결과의 독창성	상(20)	중(17)	하(14)
	연구사적 의의 및 활용도	상(20)	중(17)	하(14)
	용어 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상(20)	중(17)	하(14)
	자료 검증의 충실성	상(20)	중(17)	하(14)

- 라. 논문심사표는 논문명, 심사 기준, 심사 결과, 심사자 인적사항 및 확인 등으로 구성하고, 논문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마. 심사위원은 소정 기간 내에 심사 결과를 4등급으로 점수화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장은 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를 사정한다.
- 바.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의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각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2점), 수정 후 게재(1점), 게재불가(0점)로 심사위원 3인 판정 점수 합계 3점 이상의 논문은 수록한다.

0-1 점	게재불가
2 점	수정 후 재심
3-5 점	수정 후 게재
6 점	게재

*** 편집위원회 결정**

- 사. 수정 후 게재로 평가된 논문은 필자가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여부를 재심한다.
- 아. 게재불가로 평가된 논문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필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자.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후 수정한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이때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통보를 한 후 해당 논문을 심사가 완료된 게재불가 논문으로 재판정한다.

4. 재심사의 절차 및 기준

- 가. 논문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으로서 부분 수정이 가능

한 경우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한 후에 게재한다. 단 수정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나. 논문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사후 수정 보완하여 다시 투고할 수 있다. 단 새로 투고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 다.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에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이 재투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게재 불가’로 결정한다.

5.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나.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심의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6. 심사 철회 요청 절차

- 가. 투고자는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되었던 이유로 심사 철회를 요청할 수 없다.
- 나.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심사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통보한다.

7. 게재 기준

- 가. 게재 확정된 논문들이 본 학술지의 발간 예정 지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게재 횟수가 적은 필자의 논문-최근호에 게재되지 않은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 학술지에 우선 수록한다.
- 나.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상 2인 공동 집필 논문은 주집필자와 부집필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첫 번째 명기된 집필자를 주집필자로 인정한다.

8. 논문집의 발행과 배포

- 가.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논문은 본 연구원의 학술지인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한다.
- 나. 학술지는 연 2회(3월 31일, 9월 30일)씩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9. 부칙

- 가. ‘편집위원회’, ‘논문투고’, ‘논문심사’ 등에 관한 규정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제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나. 이 규정의 효력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 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 윤리 규정

제1장 필자의 연구 윤리

제1조(책임) 본 연구원 회원은 학술 연구자로서 연구 수행상의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2조(표절 금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논문 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검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인용 또는 참고 표시) 논문의 필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주장 또는 이전에 공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 반드시 인용 또는 참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2장 윤리 규범 준수에 대한 사후 심사

제4조(사후 심사) 본 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 윤리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후 심사 요건)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한 뒤, 대상 논문이 윤리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사후 심사 접수) 실린 논문의 사후 심사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를 밀봉하고 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밝히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에 드러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 심사 개최)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연다.

제8조(사후심사요청서 내용)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윤리 규범 미준수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조(사후 심사 심의 및 윤리위원회의 소집) 게재 논문의 사후심사 요청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윤리위원회

제10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실무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상의 윤리 의무 위반 행위를 심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회부 사항)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의 부정한 집행으로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경우.
2. 대상 논문이 그것이 실린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에 나온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성과를 뚜렷하게 표절·중복 게재·변조하거나,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타인의 것을 의도적으로 폄하·은폐하여,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연구자가 특수관계인, 곧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제13조(심사 절차)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는 편집위원장 또는 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개시하고, 위원장은 심사 요청이 접수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본 연구원 윤리위원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외부 심사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배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윤리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 집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4. 위 질의서 우송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뒤 30일 안에 윤리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5. 윤리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6.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면 해당 연구자에게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소명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심사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회원의 품위와 관련된 판정은 일반인과 학계의 자정 요구에 준하되, 여론의 개입이나 부당한 전제에 의해 결정하지 아니 한다.
9.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과 결과의 정직성·효율성·객관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제14조(심사 통보) 윤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위촉 내용
2. 심사 대상 부정행위 내용
3.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자료
5. 심사 대상자의 소명과 처리 내용
6. 심사 결정 내용

제15조(징계 내용) 윤리위원회는 심사를 끝낸 뒤 다음 중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며, 징계는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취소와 인용 금지
3. 연구소 공개 사과
4. 회원 자격 정지
5. 향후 5년간 투고 불가
6.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

제16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즉시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연구원장에게 바로 통보하고, 원장은 통보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과 관련 기관에 알린다.
2.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안에 심사 요청자와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이 삭제되었음을 공지한다.
4. 편집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재심을 요구받은 소장은 기존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새로 윤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4장 비밀 유지

제17조(익명성 보장) 논문 게재와 연구자 윤리 규범에 관한 의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위반 시 조치) 위 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위 1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5장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윤리

제19조(이해충돌 방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1.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꺾어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2.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
2. 이 규정의 수정은 운영 규정 개정 절차에 따른다.
3. 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4.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지침은 2022년 3월 14일 수정되어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과 커뮤니티』 임원 명단

▪ 편집위원

위원장	류도향(전남대)
편집위원	강의혁(전남대), 김청우(부경대), 박미선(전남대), 박 범(공주대), 정희원(서울시립대), 최대희(전남대), 추주희(전남대), 한의승(전남대)
편집간사	강은진(전남대)

▪ 연구윤리위원

위원장	김병인(전남대)
연구윤리위원	김양현(전남대), 엄태식(조선대), 오세인(울산대), 정병호(경북대), 조경순(전남대), 함형석(전남대)

▪ 운영위원

위원장	정미라(전남대)
운영위원	김동근(전남대), 박상철(전남대), 류도향(전남대), 신해진(전남대), 양순자(전남대), 이주리(전남대), 표인주(전남대), 한의승(전남대)

『가족과 커뮤니티』 투고 신청서

아래 양식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주소[familycommunity@naver.com]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성 명			소속 기관		
				직 위		
	연락처	자택 전화	()		E-mail	
		직장 전화			(우편물 수령) 주소	
휴대 전화						
논문 제목	(국 문)					
	(영 문)					
기타 사항	투고 일자					
	원고 매수	매 (200자)	연구비 수혜여부			
<p>위 본인은 상기논문을 귀 연구원 기관지 논문투고규정에 의거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제〇〇집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_</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하</p>						

저작권 위임 및 연구윤리 서약서

논문 제목	(국문)
	(영문)

위의 논문을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 요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서명으로서 동의합니다.

1. 본 논문은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저자는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본 논문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본 논문이 『가족과 커뮤니티』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권한 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 위임합니다.
7. 공동 저자 또한 상기 내용을 숙지하였고,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서명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1					
공동저자2					
공동저자3					

년 월 일

대표 저자 : 성명 _____ (인)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귀중

이 학술지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간행됨(NRF-2018S1A6A3A04042721)

가족과 커뮤니티 (6집)

Family and Community

발행인 : 정미라
발행처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jnuinmun.org/>
연락처 :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산학협력관 312호
 전화 : 062-530-5218
 E-mail : familycommunity@naver.com

발행일 : 2022년 9월 30일
인쇄처 : 한국문화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49, 404호
 (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전화 : 02-464-7708
 팩스 : 02-499-0846
 홈페이지 : <http://hph.co.kr>
